



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I



세종시의 출범으로 자칫 단절될지도 모를 연기지역의 유구한 역사를 기록해 두기 위한 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이 책에서는 금남면·남면·동면 세지역의 마을이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쳐왔으며, 주민들은 언제부터 이곳에 정착해 살아왔고, 그동안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 보았다.

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I

금남면
남면
동면

금남면 · 남면 · 동면 연기문화원



연기문화원

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I)



금남교



건설 중인 한두리다리



독락정



양화리 마을전경



부용리 금락정과 금강



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I

금남면
남면
동면

임선빈 외



연기문화원

□ 발간사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연기군은 예로부터 살기 좋은 고장으로 꼽혀 왔습니다. 서울과 영호남으로 갈라지는 육로교통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금강의 본줄기와 동진강(미호천)이 만나는 수로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금강줄기가 만들어낸 장남 평야는 비옥한 곡창지대로서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기군은 과거의 연기군이 아닙니다. 세종시 중심부에 해당하는 남면과 금남면 일대는 몇 년째 건설현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대대로 정을 붙이며 살아왔던 지역 주민들은 고향땅의 건설 현장을 바라보면서 새 삶을 찾아 이거해 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첫 마을 사업이 끝나 새로운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연기군’이라는 지명도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고, ‘세종시’가 출범하게 됩니다. 행정타운 지역은 전통시대의 토속적인 지명조차도 사라지게 됩니다. 중앙부처가 속속 들어오고, 새로운 많은 주민들이 이주해 올 것입니다. 자칫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연기군의 뿌리가 어떠한지 망각 속으로 사라질까 걱정됩니다.

‘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조사사업은 이와 같이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우리 문화원 길미숙 사무국장의 기획으로 충청남도과 연기군의 예산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입니다. 연기군 전체를 다 조사해야 하겠지만, 예산상의 한계와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우선 세종시 행정타운이 들어 오게 될 금남면, 남면, 동면 지역을 1차년도 사업으로 설정하여 진행했습니다. 또한 지역 향토문화 연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연구자와 향토사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본 책자가 나오기까지에는 한여름의 뜨거운 폭염 속에서 시작하여 한겨울의 엄동설한까지 매주 현지조사를 진행한 조사원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연기군을 고향처럼 사랑하면서 향토사가들과 함께 조사와 집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임선빈 박사님께 연기 지역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남면과 동면 전 지역의 현지 안내를 직접 해 주신 강정현 소장님과 배정수 향토사가를 비롯하여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뜨거운 찬사를 보냅니다.

2011년 12월 20일
연기문화원장 임 영 이

□ 머리말

연기군은 2012년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로 바뀐다. 세종시 건설의 중심지역에 해당하는 연기군 남부지역은 수 백 년 전부터 삶의 터전을 가꾸며 살아오던 주민들의 상당수가 이미 고향 마을을 떠나가고 있다. 이제 세종시가 출범하는 2012년부터는 새로운 주민들도 많이 이주해 올 것이다. 당장은 세종시 건설지역에 해당하지 않지만, 연기군 중부지역과 북부지역도 마을마다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전통시대부터 내려오던 토속적인 지명도 사라지고, 이 땅에 사는 주민 구성과 삶의 모습도 변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연기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조사 사업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조사는 연기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이 그동안 어떠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쳐 왔으며,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언제부터 이곳에 정착해 살아 왔고, 그동안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핀 것이다. 이는 세종시의 출범으로 자칫 단절될지도 모를 연기지역의 유구한 역사성을 기록해 두기 위함이기도 하다.

필자는 2011년 6월에 연기문화원으로부터 본 사업을 의뢰받아 12월까지 문헌조사와 현지 조사 및 원고 집필을 진행했다. 조사는 필자의 책임

하에 연기군 향토사가인 강현숙, 남정환, 윤윤희 선생 등이 참여했다. 사업의 진행은 문헌조사 및 정리를 먼저 실시하고, 현지조사와 원고 집필을 병행하였다.

문헌조사는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호구총수』 등 조선시대 지지류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연기지』 등 일제강점기의 자료, 『한국지명총람』 4, 『연기군 충·효·열 유적』, 『연기군지』에 수록되어 있는 ‘연기지역의 성씨’ 등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이해준 교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연기지역 성씨 조사결과는 큰 도움이 되었다. 남면 등 이미 세종시 건설 사업으로 마을이 없어졌거나, 마을의 모습이 크게 변하여 현지조사가 어려운 지역은 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자료 활용을 허락해 준 이해준 교수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린다.

현지조사는 30여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금남면 일원을 먼저 조사하고, 동면 일원을 조사하였으며, 남면을 조사하였다. 그런데 남면은 세종시 건설의 중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4개리를 제외하고는 이미 건설 사업으로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다. 따라서 일부 지역만 직접 조사하고, 일부 지역은 기존의 조사된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조사팀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현지조사일지를 작성했다. 현지조사는 시종일관 임선빈, 강현숙, 남정현, 윤윤희 등이 함께 다녔으며, 현지 사정에 밝은 강정현 향토사연구소장님과 향토사가인 배정수 님의 안내와 도움을 받았다. 또한 마을의 성씨조사에는 마을 주민들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자료 제공 및 족보 열람 등 적극적인 도움을 주셨다. 도움을 주신 분들의 명단을 이 책의 말미에 수록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원고 집필은 문헌조사와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현지 조사를 통해 입수한 각 문종의 족보 기록 등이 활용되었으며, 강현숙 조사팀장이 그때 그때 기행문 형식으로 작성한 현지조사 보고서가 도움이 되었다.

본 조사는 짧은 기간과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연기군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금남면 남면 동면의 3개면을 우선적으로 실시했다. 이제 머지않아 통일신라 때부터 사용되어 온 연기라는 지명도 사라지고, 1세기 전에 중전의 연기군(현)과 전의군(현)이 합쳐지고, 공주군(목)에 해당하던 금남면 지역을 포함하면서 윤곽이 이루어진 현재의 연기군 경역도 달라질 것이다. 세종시 경역은 공주시 장기면의 일부와 청원군 부용면의 일부를 포함하면서 지금의 연기군보다 더 넓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세종시 경역 전

체를 아우를 수 있는 조사사업이 후속 사업으로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조사와 집필이 진행되는 동안 연기문화원 임영이 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원 가족들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이 있었다.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1년 12월 20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임 선 빈

□ 목차

발간사 8
머리말 10

제1장 조사지역 개관/ 17

1. 연혁과 행정편제 19
2. 토성과 사마 현황 24

제2장 금남면의 터전과 뿌리/ 33

금남면 감성리 38	금남면 석교리 112
금남면 금천리 46	금남면 석삼리 117
금남면 남곡리 54	금남면 성덕리 119
금남면 달전리 60	금남면 신촌리 129
금남면 대박리 72	금남면 영곡리 131
금남면 대평리 77	금남면 영대리 137
금남면 도암리 79	금남면 영터리 143
금남면 두만리 87	금남면 용담리 144
금남면 박산리 89	금남면 용포리 145
금남면 반곡리 91	금남면 장재리 147
금남면 발산리 98	금남면 축산리 148
금남면 봉기리 105	금남면 호탄리 149
금남면 부용리 109	금남면 황룡리 150

제3장 남면의 터전과 뿌리/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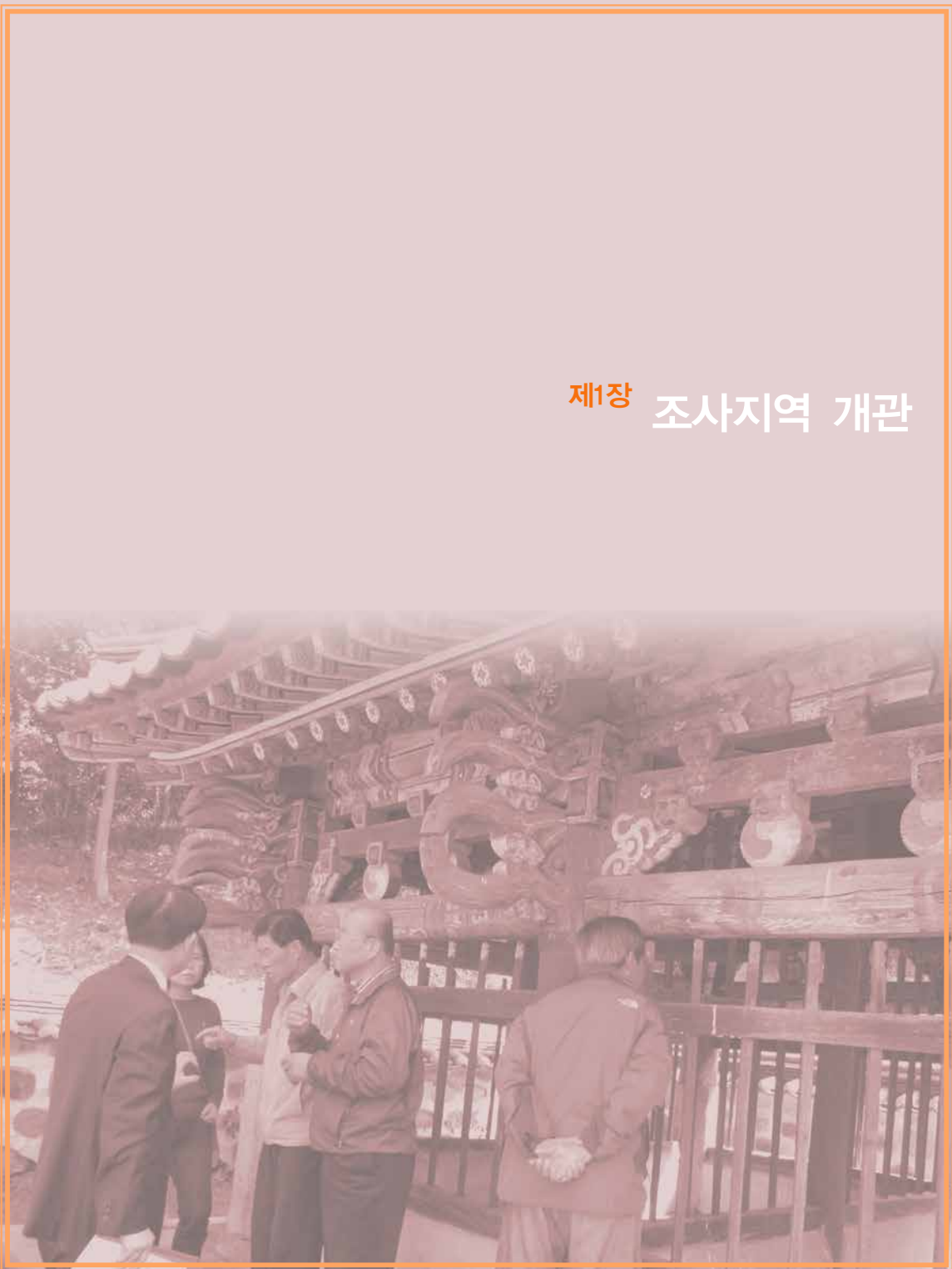
남면 갈운리	158	남면 송원리	201
남면 고정리	162	남면 수산리	212
남면 나성리	170	남면 양화리	214
남면 놀왕리	181	남면 연기리	226
남면 방축리	186	남면 월산리	232
남면 보통리	193	남면 종촌리	236
남면 송담리	196	남면 진의리	241

제4장 동면의 터전과 뿌리/ 245

동면 내판리	249	동면 예양리	292
동면 노송리	261	동면 용호리	303
동면 명학리	271	동면 응암리	312
동면 문주리	278	동면 합강리	323
동면 송룡리	281		

참고문헌	333
도움을 주신 분	334
조사후기	335

제1장 조사지역 개관





고지도를 통해 본 조사지역 『조선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연기현과 공주목(일부) 합성

조사지역 개관



1. 연혁과 행정편제

연기군은 1914년에 연기군과 전의군(조선시대의 연기현과 전의현)이 통합된 고을로, 1973년 7월에 공주군 장기면의 나성리·송원리가 연기군 남면에, 공주군 반포면의 도암리·성덕리·영곡리가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되었으며, 1995년에는 연기군 동면 갈산리가 충북 청원군 부용면에, 충북 청원군 강외면 심중리가 연기군 전동면에 각각 편입되어 오늘날의 연기군 경역이 이루어졌다.

2011년 12월 현재 연기군은 조치원읍과 동면, 서면, 남면, 금남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 1읍 7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6개의 법정리와 209개의 행정리, 305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조사보고서는 짧은 기간에 연기군 전 지역을 조사할 수 없었으므로, 연기군의 남쪽지역 이면서 세종시 건설지역에 해당하여 현재 급격한 마을 공동체의 해체와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금남면, 남면, 동면의 3개 면을 우선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한정하여 조사와 집필이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이 지역은 금강의 북쪽은 주로 연기현에 해당하고, 금강의 남

죽인 금남면 지역은 공주목의 일부에 해당한다. 면리제가 실시되는 조선 후기에 오늘날 연기군의 남면은 연기현 남면(37개리), 군내면(9개리), 공주목 삼기면(20개리) 등에 해당하며, 금남면은 공주목 명탄면과 양화리면이 중심이고, 동면은 연기현 동일면지역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아직 면리제가 구체적으로 실시되기 전인 조선전기의 상황은 자세히 알 수 없다.

연기는 백제초부터 백제 강역에 속하여 376년(근구수왕 2)에 적현성(赤峴城)이었고, 그 뒤에 두잉지현(豆仍只縣)이었으며, 백제말에는 주류성이었다는 설도 있다. 삼국통일 후 757년(경덕왕 16)에 연기현(燕岐縣)으로 고치고 연산군(燕山郡, 현재의 文義)의 속현으로 하였다.

연기현은 1018년(현종 9) 청주에 영속시켰다가 1172년(명종 2) 감무를 임명하였으며, 뒤에는 목주감무(木州監務)로 겸임하게 하였다. 따라서 조선건국초기에는 연기지역에 중앙으로부터 수령이 파견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1406년(태종 6)에 다시 목주와 연기를 나누어 연기현에도 감무를 두었다. 그런데 이 감무는 1413년(태종 13) 10월에 종전의 감무를 종6품 현감으로 고치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연기현에도 현감이 파견되었다. 그런데 이듬해인 1414년(태종 14) 8월에 경외(京外)의 용관(冗官)을 도태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전의와 연기를 합쳐서 전기(全岐)라 고쳐 불렀고, 전기현감이 파견되었다. 전기현감의 근무처는 전기현의 고을명 앞 글자에 전의의 ‘전’자가 사용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종전 연기현의 치소가 아닌 전의현 치소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만 2년만인 1416년(태종 16) 7월에 다시 합병하였던 군현을 나누어 예전대로 하면서 전의와 연기가 분리되어 각각 현감이 파견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초기에 한때 전의와 연기가 병합되어 전기현으로 일컬어졌던 것은 두 고을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었다.

조선초기 연기현의 경역에 대해서는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통해 치소를 중심으로 한 사방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연기현의 경역에 대해 동쪽으로 청주에 이르기까지 15리,

서쪽으로 공주公州에 이르기까지 11리, 남쪽으로 공주에 이르기까지 5리, 북쪽으로 전의에 이르기까지 18리라고 했다(『세종실록』 권149, 지리지, 충청도 청주목 연기현).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동쪽으로는 청주淸州 경계까지 15리, 문의현文義縣 경계까지 15리이고, 남쪽과 서쪽으로는 각각 공주 경계까지 13리이고, 북쪽으로는 전의현全義縣 경계까지 26리(『신증동국여지승람』 권18, 충청도 연기현)라고 하여, 동쪽을 제외한 3면의 거리에 차이가 있다. 연기현의 영역이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동서의 거리가 26리, 남북의 거리가 23리인데 반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동서의 거리 28리, 남북의 거리 39리로 특히 남북간의 영역이 크게 늘어났다. 이와 같은 현상이 그동안 영역의 변동이 이루어진 결과인지, 아니면 단순한 리수 표기의 착오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기현의 규모가 매우 작았음은 알 수 있다. 조선후기의 연기현은 1680년(숙종 6)에 문의에 병합되었다가, 1685년 분리, 복구되었다. 또한 면리제가 실시되는 조선후기에 연기현의 면은 동일면, 동이면, 남면, 북삼면, 북일면, 북이면, 읍내면의 7개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충청도 연기현은 1895년에 8도제가 바뀌어 23부제가 실시되면서 공주부 연기군으로 개편되었고, 1896년에 13도제가 실시되자 충청남도 연기군이 되었다. 연기군은 1909년에 전의면 일원과 공주군 일부를 편입하여 7개면을 두었으며, 1914년 부군면 통폐합시 전의를 병합하였다.

고려후기까지 일정한 구역과 주민을 가진 구획으로 존재했던 향·소·부곡은 군현제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14세기 말 15세기 초에 걸쳐 전국적으로 이속이 이루어졌다. 이때 그들은 하나의 지역단위를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이속할 때에 분할하거나 그 명칭이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되었다. 이속의 형태는 주현 또는 속현으로서 승격되는 경우, 소속이 변동되는 경우, 혁파되어 직촌화하는 경우 등 세 가지가 있었다. 조선초기의 기록 자료를 통하여 드러나는 연기현의 향·소·부곡으로는 현 북쪽 13리에 있는 토흥부곡土興部曲과 현 남쪽 10리에 위치한 연천소蠶川所가 있다(『신

증동국여지승람』 권18, 충청도 연기현 고적조). 토흥부곡은 현재의 연기군 조치원읍 봉산동 주변이다. 연천소는 연기군 남면의 금강변 북쪽에 위치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금강 주변에는 공주목에 편입되기 전 작은 고을과 2개의 부곡, 2개의 소가 있었다. 이들의 위치에 대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공주목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17, 충청도 공주목 고적조).

청류부곡淸流部曲 : 주의 동쪽 40리에 있다.

양화부곡良化部曲 : 주의 동쪽 40리에 있다.

덕진폐현德津廢縣 : 폐현으로 주의 동쪽 50리에 있다.

박산소樸山所 : 덕진현 동쪽 5리에 있다.

금생소金生所 : 덕진현 동쪽 7리에 있다.

청류부곡과 양화부곡은 공주목 고을 치소의 동쪽 40리에 위치한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오늘날 어디에 해당할까?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의하면, 독락정이 공주의 치소로부터 동쪽으로 30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류부곡과 양화부곡은 독락정으로부터 동쪽으로 10리의 거리에 위치한 것이다. 양화부곡은 연기군 남면 양화리에 있었고, 청류부곡도 오늘날의 연기군 남면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조선초기에 공주목에 편입되어 있는 청류부곡과 양화부곡이 금강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금강 북쪽 땅 일부가 공주목 관할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폐현 덕진德津은 금강의 남쪽에 위치한다. 금남면 용담리가 그 치소였다. 이 덕진은 본래 백제의 소비포현所北浦縣인데, 신라가 적오현赤烏縣으로 고쳐서 비풍군의 영현을 삼았다가, 고려가 덕진으로 고쳐서 유성과 더불어 모두 공주 임내任內에 붙였다. 덕진현의 주민들은 현이 폐지된 후에 대전의 덕진동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적오산성은 덕진산성이라고도

부른다. 덕진현 치소로부터 동쪽 5리에 위치한 박산소는 오늘날의 금남면 박산리에 해당하며, 덕진현 동쪽 7리에 위치한 금생소는 현재의 금남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세한 지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후기에는 면리제가 실시되었다. 연기군 금남면 일대는 공주목의 명탄면과 양야리면 지역이었고, 연기군 남면 일대는 연기현 남면, 연기군 동면 일대는 연기현 동이면과 청주의 서강내이상면 일부에 해당되었다. 영조대에 편찬된 지리지인 『여지도서』 방리조에는 공주목 명탄면과 양야리면에 각각 5개리가 기록되어 있고, 연기현 남면 23개리, 동이면 9개리가 기록되어 있다. 1759년의 기묘장적을 기준으로 한 호구수는 공주목 명탄면이 편호 441호, 인구 1,537명, 양야리면이 편호 414호, 인구 1,425명, 연기현 남면이 편호 477호, 인구 1,628명, 동이면이 편호 397호, 인구 1,536명이었다. 그 중에서 명탄면 봉기동리의 편호가 159호, 인구가 489명, 양야리면 감성리의 편호가 143호, 인구가 473명, 연기현 동이면 관교리의 편호가 133호, 인구가 608명으로 다른 리의 2~5배까지 차이가 난다. 아마 이 동리들이 금남면과 동면의 중심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연기현 남면의 경우에는 23개리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1789년의 지역별 면리와 인구의 상황을 기록한 『호구총수』에는 공주목 명탄면 52개, 양야리면 33개, 연기현 남면 29개, 동이면 13개의 자연마을이 기록되어 있고, 호구수는 명탄면의 원호 726호, 인구 1,369명, 양야리면의 원호 450호, 인구 910명, 남면의 원호 471호, 인구 1,741명, 동이면의 원호 376호, 인구 1,593명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의 연기군 경역은 대체로 1914년에 형성되었다. 종전의 연기군 지역과 전의군 지역이 합쳐지고, 금강의 남쪽에 해당하는 금남면이 공주군에서 연기군으로 이속되면서 오늘날 연기군의 모습이 갖춰졌다. 연기군과 전의군은 이전의 현이 1895년에 군으로 바뀐 것이며, 공주군 또한 이전의 공주목이 군으로 바뀐 것이다. 1914년 당시 연기군은 동면, 남면, 서

면, 북면, 금남면, 전의면, 전동면의 7개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후 1931년 4월 면제 개정에 의하여 조치원읍을 신설하여 1읍 6면 101동리가 되었으며,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1973. 3.12 공포)에 의해 공주군 장기면의 나성, 송원 2개리를 남면에, 반포면의 도곡, 성덕, 영곡의 3개리를 금남면에 편입시켜 확장됨으로써 1읍 6면 106동리가 되었다.

2. 토성과 사마 현황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조선초기 연기현의 토성土姓으로 위魏·하河·전술·경耿·장養씨, 내성來姓으로 서울에서 온 왕王씨, 속성續姓으로 김鎭·강康씨가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토성의 수위에 기록되어 있는 연기위씨는 현재 연기에서 그 내력을 전혀 밝힐 수 없는 성씨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위씨는 함길도 함흥부 정평도호부 성씨조의 입성入姓(48성)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어 있으며, 연기燕岐에서 왔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의 48성이 지금은 모두 없다'고 하여 연기로부터 옮겨온 위씨가 『세종실록지리지』가 편찬될 당시에는 이미 정평도호부에 남아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기의 위씨는 함길도 안변도호부 용진현의 망입성入姓(모두 25성)에도 보이고 있다. 망입성이라는 점에서 연기에서 용진현으로 이거한 위씨도 『세종실록지리지』 편찬당시에는 이미 사라진 뒤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기현의 토성조 수위에 기록되어 있는 위씨는 일찍이 사민徙民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연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재미있는 것은 『세종실록지리지』 토성조의 수위에 기록되어 있던 위씨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성씨조에서는 전·경·장·하·위로 5성 가운데 말단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사민대상이 된 연기의 토성 위씨는 점차 고을에서의 위세가 약화되다가 연기지역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공주목에 속해 있던 금남면 지역의 덕진德津에는 현玄·고高씨가 있었으며, 망성亡姓으로 서徐·진陳·오吳씨가 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덕진의 성으로 고高·현玄·서徐·진陳·오吳씨, 양화良化의 성으로 지池·송宋씨, 박산樸山과 금생金生의 성으로 황黃씨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활동상황을 확인할 수가 없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인물조에 ‘신증新增’으로 김준손金俊孫이 등재되어 있는데, 과거에 오르고 정국공신靖國功臣에 참여하여 연성군燕城君에 봉해졌으며, 벼슬이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고 한다. 김준손은 연기김씨(燕城金氏라고도 함)의 시조인데, 원래 연기의 토성은 아니었다. 연기현의 속성續姓 가운데 김씨가 있어서 관련이 있을 듯 하지만, 확인되지는 않는다. 족보를 통해서 확인되는 바로는 연기김씨의 시조인 김준손은 신라 경순왕의 제4자인 대안군大安君 김은열金殷說의 후예이며, 김덕의金德義의 아들이라고 한다. 문과방목에 의하면 김준손의 자는 자언子彦, 호는 주현酒軒, 본관은 연기이며, 거주지는 미상이다. 1468년 사마시에 급제하고, 1486년(성종 17)에 훈도訓導로써 식년문과에 급제하였다. 1506년 9월 중종반정에 공을 세워 정국공신 4등에 책록되고, 연성군燕城君(燕城은 燕岐의 별호임)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이 연기燕岐를 관향으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연기현 인물조에 유일하게 올라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전기 연기현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었던 것 같다. 이후의 연기김씨 인물로는 1591년(선조 24)에 식년문과에 급제한 김효간金孝幹, 1651년(효종 2)에 식년문과에 급제한 김정金珽 등이 있다. 문과방목에 의하면, 김효간은 본관과 거주지가 미상으로 되어 있으나, 김정의 경우에는 거주지는 미상이지만 본관은 연기이고 아버지는 김충간金忠幹이다.

조선후기 지리지에도 연기현의 성씨는 전, 경, 장, 하, 위씨가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장씨가 『여지도서』까지는 조선전기와 다름없이 ‘叢장’씨로

기록되어 있으나, 『충청도읍지』, 『연기읍지』, 『호서읍지』 등에는 ‘蔣장’씨로 바뀌어 있다.

〈표 1〉 조선시대 지리지에 수록되어 있는 연기현 성씨

	구분	土姓	續姓	來姓
1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단종 2)	위(魏), 하(河), 전(全), 경(耿) 장(蔘)	김(金), 강(康)	왕(王, 개경)
2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중종)	전(全), 경(耿), 장(蔘), 하(河), 위(魏)	김(金), 강(康)	왕(王, 개경)
3	『여지도서』 (영조)	전(全), 경(耿), 장(蔘), 하(河), 위(魏)	김(金), 강(康)	왕(王, 개경)
4	『충청도읍지』	전(全), 경(耿), 장(蔣), 하(河), 위(魏)	김(金), 강(康)	왕(王, 개경)
5	『연기읍지』(1824)	전(全), 경(耿), 장(蔣), 하(河), 위(魏)		
6	『호서읍지』(1871)	전(全), 경(耿), 장(蔣), 하(河), 위(魏)	김(金), 강(康)	왕(王, 개경)

조선시대 연기현에서 배출한 사마司馬 즉 생원진사들의 명단을 검토해보면, 조선 중후기 이 지역 유력성씨들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표 2〉는 사마방목에 거주지가 연기로 수록되어 있는 인물들을 정리한 것이다. 39명의 연기 거주 생원 진사를 성씨별로 정리해보면 〈표 3〉과 같다.

〈표 2〉 조선시대 연기 거주 생원·진사

	급제년도 (연령)	분류	성명	본관	본인 생년	부친 성명 및 관력	비고
1	1504년	생원	안복겸 安福謙				
2	1522년	생원	채윤호 蔡允浩	함안			
3	1609년 (25)	진사	이 위 李 韡	해주	1585년(을유)	李中立(선교랑, 강예습독관)	

	급제년도 (연령)	분류	성명	본관	본인 생년	부친 성명 및 관력	비고
4	1616년 (35)	진사	홍이경 洪履慶	남양	1582년(임오)	洪義民(통사랑, 예빈시/전봉사)	
5	1624년 (51)	생원	황여중 黃汝中	강화	1574년(갑술)	黃琰(학생)	
6	1662년 (34)	생원	최유화 崔有華	강화	1629년(기사)	崔造源(선략장군, 용양위/행좌부장)	
7	1696년 (30)	생원	정희채 鄭熙采	진주	1667년(정미)	鄭行道(학생)	
8	1705년 (32)	진사	최 환 崔 煊	강화	1674년(갑인)	崔柱華(학생)	최현의 형
9	1705년 (42)	진사	윤정량 尹廷亮	파평	1664년(갑진)	尹弼星(통훈대부, 돈녕부/전행봉사)	
10	1708년 (25)	생원	송중옥 宋重玉	진천	1684년(갑자)	宋構(유학)	
11	1715년 (35)	생원	최 헌 崔 燾	강화	1681년(신유)	崔柱華(학생)	최현의 동생
12	1719년 (19)	생원	최 시 崔 是	강화	1701년(신사)	崔煊(진사)	
13	1721년 (50)	생원	오태창 吳泰昌	보성	1672년(임자)	吳燾(통훈대부, 사헌부/행감찰)	
14	1768년 (29)	진사	윤광준 尹光濬	파평	1740년(갑신)	尹東興(성균진사)	
15	1771년 (24)	진사	김성렬 金成烈	경주	1748년(무진)	金履相(유학)	
16	1773년 (47)	진사	임한유 林翰儒	부안	1727년(정미)	林在華(학생)	
17	1777년 (28)	진사	강극성 姜克成	진주	1750년(경오)	姜文益(유학)	1785년 문과
18	1777년 (23)	진사	박성환 朴聖煥	밀양	1755년(을해)	朴尙鳳(선략장군, 훈원위/권지봉사)	
19	1786년 (27)	진사	이정식 李廷植	전의	1760년(경진)	李潤臈(통덕랑)	
20	1789년 (34)	생원	최지성 崔之聖	강화	1756년(병자)	崔義敬(유학)	1795년 문과
21	1790년 (27)	생원	임병현 林秉鉉	부안	1764년(갑신)	林亨遠(유학)	

	급제년도 (연령)	분류	성명	본관	본인 생년	부친 성명 및 관력	비고
22	1798년 (45)	진사	조남규 趙南逵	양주	1754년(갑술)	趙榮國(승정대부, 이조/행판서)	
23	1814년 (23)	진사	이헌부 李憲溥	한산	1792년(임자)	李源興(유학)/생부: 李源明(동훈대부, 이천행도호부사)	
24	1819년 (33)	생원	박민각 朴敏愨	죽산	1787년(정미)	朴聖泰(동정대부, 승정원/좌부승지)	
25	1822년 (49)	생원	정산용 鄭山容	동래	1774년(갑오)	鄭東稷(동덕랑) / 생부: 鄭東樞(학생)	
26	1834년 (64)	진사	임석규 林錫圭	부안	1771년(신묘)	林謙肅(학생)	
27	1846년 (40)	생원	김종학 金宗學	안동	1807년(정묘)	金光良(유학)	
28	1867년 (72)	생원	이현수 李玄秀	전의	1796년(병진)	李大會(학생)	
29	1873년 (55)	생원	임달상 林達相	부안	1819년(기묘)	林命源(증 조봉대부, 동몽교관)	
30	1876년 (60)	생원	임영선 林永善	부안	1817년(정축)	林希豐(학생)	
31	1880년 (25)	진사	장이환 張履煥	결성	1858년(병진)	張龜相(유학)	
32	1882년 (21)	진사	장이상 張彝相	결성	1802년(임술)	張綱濟(학생)	
33	1882년 (48)	진사	장철상 張喆相	결성	1835년(을미)	張榮濟(학생)	
34	1888년 (49)	생원	김근현 金根鉉	광산	1840년(경자)	金在懋(학생)	
35	1888년 (30)	진사	장기홍 張基鴻	결성	1859년(기미)	張鼎煥(학생) / 생부: 張升煥(학생)	
36	1891년 (46)	생원	조윤희 趙允熙	양주	1846년(병오)	趙復林(동훈대부, 서산/행군수)	
37	1891년 (18)	생원	장기만 張基萬	결성	1874년(갑술)	張文燮(선략장군, 용양위/행부사과)	
38	1894년 (21)	생원	홍재준 洪在駿	남양	1874년(갑술)	洪揆燮(학생)	
39	1894년 (25)	진사	이덕규 李德珪	한산	1870년(경오)	李寅植(동훈대부, 기기국/전행사사)	

〈표 3〉 연기 거주 생원 진사의 성씨별 시기별 분포

입격 연대 성씨	1501 ~1550	1551 ~1660	1601 ~1650	1651 ~1700	1701 ~1750	1751 ~1800	1801 ~1850	1851 ~1894	합계
강화최씨				1	3	1			5
부안임씨						2	1	2	5
결성장씨								5	5
남양홍씨			1					1	2
파평윤씨					1	1			2
전यी씨						1		1	2
양주조씨						1		1	2
한산이씨							1	1	2
○○安씨	1								1
함안채씨	1								1
해주이씨			1						1
강화황씨			1						1
진주정씨				1					1
진천송씨					1				1
보성오씨					1				1
경주김씨						1			1
진주강씨						1			1
밀양박씨						1			1
죽산박씨							1		1
동래정씨							1		1
안동김씨							1		1
광산김씨								1	1
합 계	2		3	2	6	9	5	12	39

〈표 3〉을 바탕으로 가문별 등재 인원수의 순위를 살펴보면, 강화최씨(5), 부안임씨(5), 결성 장씨(5)가 가장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안임씨는 18세기 중반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결성장씨는 19세기 후반에 집중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본인 거주지가 연기로 되어 있는 사마방목 등재 인물은 모두 39명으로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6세기 2명, 17세기 전반 3명, 17세기 후반 2명,

18세기 전반 6명, 18세기 후반 8명, 19세기 전반 5명, 후반에는 12명이 등재되어 있다.

16세기 전반 사마 급제자로는 안씨(1)와 함안채씨(1) 2명만 등재되어 있고, 후반에는 등재된 인물이 없다. 현재 알려져 있는 사마방목의 전산자료가 조선전기의 방목은 모두 망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수치가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두 성씨(안씨, 채씨)가 다른 성씨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연기지방에 정착하여 사족기반을 확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7세기 전반에는 해주이씨(1) 남양홍씨(1) 강화황씨(1), 후반에는 강화최씨(1) 진주정씨(1)가 등재되어 있다. 18세기 전반에는 강화최씨(3), 파평윤씨(1), 진천송씨(1), 보성오씨(1)가 보이며, 후반에는 강화최씨(1), 부안임씨(2), 파평윤씨(1), 양주조씨(1), 전의이씨(1), 경주김씨(1), 진주강씨(1), 밀양박씨(1)가 등재되어 있다.

19세기에는 모두 17명이 등재되어 있는데, 전반에는 부안임씨(1), 한산이씨(1), 밀양박씨(1), 동래정씨(1), 안동김씨(1)가 등재되어 있고, 후반에는 부안임씨(2), 결성장씨(5), 남양홍씨(1), 전의이씨(1), 양조조씨(1), 한산이씨(1), 광산김씨(1)가 등재되어 있다. 순흥안씨와 함안채씨가 다른 성씨에 비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에 연기지방에 기반을 잡고 있었으며, 강화최씨(5), 부안임씨(5), 결성장씨(5)가 가장 두드러지지만, 부안임씨는 18세기 중반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결성장씨는 19세기 후반에 집중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연기거주 사마 가운데 부안임씨가 부각되지 않는 이유는 조선시대에 오늘날의 금남면 지역과 남면지역의 일부는 연기현이 아니고, 공주목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연기군이지만 조선시대에 공주목에 속했던 지역의 사마급제자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부안임씨 가운데 공주에 거주하던 사마급제자는 임정(1582), 임상협(1612), 임진현(1618), 임서우(1744), 임

낙구(1880) 등 5명이나 확인된다. 또한 임정은 1591년에 문과에도 급제했으며, 임만재는 1678년에 무과, 임병두는 1890년에 문과에 급제했다. 따라서 연기현과 공주목(지금의 금남면과 남면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부안임씨 사마시 급제자를 모두 합치면 10명에 달한다. 이 외에 강진이씨 이만균(1507년 생원, 1522년 문과), 전주이씨 이정환(1633년 생원) 등도 오늘날의 연기군 금남면에 해당하는 공주목에 거주하고 있었다.

〈표 4〉 오늘날의 연기군 지역에 거주하던 공주목 과거 급제자

	급제년도 (연령)	분류	성명	본관	거주지	본인 생년	부친성명 (관력)	비고
1-1	1507	생원	이만균 李萬鈞	강진	공주		李仁文(彰信校尉)	식년생원 3등 59위
1-2	1522	문과	이만균 李萬鈞	강진	미상		李仁文	식년시 을과 5위
2-1	1582년 (29)	진사	임정 林頰	부안	공주	1554년	林大鳴(忠順衛)	식년진사 3등 46위
2-2	1591년 (38)	문과	임정 林頰	부안	미상	1554년	林大鳴	식년시 병과 4위
3	1612년 (27)	생원	임상협 林尙僊	부안	공주	1586년	林頰(通訓大夫 前行襄津縣令)	식년생원 2등 6위
4	1618년 (47)	생원	임진현 林晉賢	부안	공주	1572년	林杜(學生)	식년생원 3등 28위
5	1633 (30)	생원	이정환 李廷煥	진주	공주	1604년	李格 (前行長興庫奉事)	식년생원 3등 6위
6	1678년 (25)	무과	임만재 林萬材	부안	공주	1654년	林輝(及第)	증광시 병과 48위
7	1744년 (33)	생원	임서우 林瑞雨	부안	공주	1712년	林彦升(幼學)	식년생원 3등 20위
8	1880년 (65)	진사	임낙구 林樂龜	부안	공주	1816년	林弘濟(學生)	증광진사 3등 2위
9	1890년 (36)	문과	임병두 林炳斗	부안	공주	1855년	林學洙	별시 병과 7위

제2장 금남면의 터전과 뿌리



금남면의 터전과 뿌리



금남면(鎭南面)은 연기군에서 가장 큰 면으로, 금강의 남쪽에 위치하여 금남면이라 일컫게 되었다. 이곳은 백제 때에는 소비포현(所比浦縣)이라 불렀고, 백제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왕도를 옮긴 후에는 웅진(熊津)에 속했으며, 신라 경덕왕 16년에 웅주, 고려 현종 때에는 공주에 예속되었다. 조선시대에도 공주목에 속하였으며, 조선후기에 면리제가 실시되자 주로 공주목 명탄면(鳴灘面), 양야리면(陽也里面)의 2개면에 분치되었다.

1912년 12월에 명탄면 도중리는 문의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4월에 명탄면 양야리면의 경역 외에 공주군 반포면 용포리 어득운리 신대동 평촌리와 대전군 구죽면 신동리의 일부를 편입하여 금남면이라고 일컬으면서 연기군에 편입시키고 사무소를 대평리에 두었다. 1914년에는 금남면의 행정동리가 23개리였으나, 1973년 7월 1일 공주군 반포면의 도암리 성덕리 영곡리를 금남면에 편입시켜 이후에는 26개리로 구성되었다.

금남면 26개리의 마을명과 조선후기 이후의 면리변천, 각 마을별 조사대상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금남면 마을의 면리 변천

마을명	조선후기		한말『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914년	1973년
	『여지도서』	『호구총수』			
1 감성리	공주목 양야리면 감성리		공주군 양야리면 감성리·장대리	연기군 금남면 감성리	-
2 금천리	공주목 양야리면	양야리면 금천	공주군 양야리면 청사동·금천리·학봉리	연기군 금남면 금천리	-
3 남곡리	공주목 명탄면, 양야리면	명탄면 남곡리, 양야리면 수락동	공주군 명탄면 남곡리, 양야리면 남곡리·수락리	연기군 금남면 남곡리	-
4 달전리	공주목 명탄면	명탄면 달전	공주군 명탄면 달전리·화곡리·성리·계봉리(일부), 회덕군 구죽면 신달전리	연기군 금남면 달전리	-
5 대박리	공주목 명탄면	명탄면 유산소·대박	공주군 명탄면 신산리·대유산동·대박동(일부)	연기군 금남면 대박리	-
6 대평리	공주목 양야리면	양야리면 대평	공주군 양야리면 상거리·하거리·고사동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
7 도암리	공주목 반포면	반포면 도암·행정·유산소	공주군 반포면 명암리·중촌리·도암리·행정리(일부)·유산리(일부)	공주군 반포면 도암리	연기군 금남면 도암리
8 두만리	공주목 양야리면	양야리면 두만리·산동	공주군 양야리면 두만리·산동, 반포면 용포리(일부)	연기군 금남면 두만리	-
9 박산리	공주목 명탄면	명탄면 박산소	공주군 명탄면 박산리, 회덕군 구죽면 신동리(일부)	연기군 금남면 박산리	-
10 반곡리	공주목 명탄면 반곡리	명탄면 반곡리	공주군 명탄면 반곡리(일부)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
11 발산리	공주목 양야리면 발산리	양야리면 중발산·하발산·상발산	공주군 양야리면 점촌·중발리·홍용동·가동(일부)	연기군 금남면 발산리	-
12 봉기리	공주목 명탄면 봉기동리·반곡리	명탄면 봉기동·반곡리	공주군 명탄면 봉기동(일부)·반곡리(일부)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
13 부용리	공주목 명탄면 초오포리	명탄면 초오포	공주군 명탄면 초오개동·부용리·봉기동(일부)	연기군 금남면 부용리	-

마을명	조선후기		한말『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914년	1973년
	『여지도서』	『호구총수』			
14 석교리	공주목 명탄면 석교리	명탄면 석교리	공주군 명탄면 석교리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
15 석삼리	공주목 명탄면 반곡리	명탄면 반곡리 · 석삼동	공주군 명탄면 반곡리(일부) · 석삼동(일부)	연기군 금남면 석삼리	-
16 성덕리	공주목 반포면	반포면 동오리 · 한삼동	공주군 반포면 동오리 · 성덕동 · 한삼동	공주군 반포면 성덕리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17 신촌리	공주목 양야리면	양야리면 화사동	공주군 양야리면 신촌리 · 화사리	연기군 금남면 신촌리	-
18 영곡리	공주목 반포면	반포면 유산소 · 한림정 · 유천동 · 영동리 · 호병동 · 운산소	공주군 반포면 운산리 · 회병리 · 영동 · 병암리 · 한림정리 · 유천리 · 유산리(일부)	공주군 반포면 영곡리	연기군 금남면 영곡리
19 영대리	공주목 명탄면	명탄면 명촌리 · 유산소 · 서대리 · 대박	공주군 명탄면 계양리 · 영대동 · 서대리 · 상평리 · 신대동 · 유산리 · 명촌리 · 대박동(일부)	연기군 금남면 영대리	-
20 영티리	공주목 양야리면	양야리면 와룡리 · 영티리 · 내동	공주군 양야리면 와룡동 · 내동 · 사양리 · 영티리	연기군 금남면 영티리	-
21 용담리	공주목 반포면	반포면 신대리 · 비룡소 · 어득운	공주군 반포면 신대동 · 평촌리 · 용담동 · 어득운리(일부)	연기군 금남면 용담리	-
22 용포리	공주목 양야리면	양야리면 이암리	공주군 양야리면 가동(일부) · 용포리 · 탑산리 · 이암리 · 팽목정리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
23 장재리	공주목 양야리면, 명탄면	양야리면 장재동 · 금산소, 명탄면 석삼동	공주군 양야리면 장재동 · 금산리, 명탄면 석삼동(일부)	연기군 금남면 장재리	-
24 축산리	공주목 양야리면 봉천리	양야리면 구룡리 · 취산	공주군 양야리면 상봉천리 · 하봉천리 · 구룡리 · 용곡리 · 축산리	연기군 금남면 축산리	-
25 호탄리	공주목 명탄면, 양야리면 창리	명탄면 석삼동, 양야리면 호동리 · 창리	공주군 명탄면 석삼동(일부), 양야리면 호탄리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	-
26 황룡리	공주목 명탄면	명탄면 서복리	공주군 명탄면 서복리 · 대지동 · 원각리 · 연소동 · 황룡동	연기군 금남면 황룡리	-

금남면 감성리



조사대상 평산신씨, 이참판댁

감성리柑城里는 1914년에 공주군 양야리면 감성리와 장대리가 합쳐진 동리이다. 행정편제로서의 감성리는 『여지도서』에 처음 보인다. 『여지도서』의 한자 표기는 ‘柑(감자나무 감)’이 아니고 ‘甘(달 감)’으로 되어 있다. 당시 이곳은 공주목 양야리면에 속해 있었으므로, 공주목 치소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감성리는 공주목 관문으로부터 동쪽으로 40리 거리에 있다고 하였으며, 1759년의 기묘장적己卯帳籍을 기준으로 편호가 143호이고, 인구는 남자 223명, 여자

250명이었다. 『충청도읍지』에는 호구수가 153호에 남자 223명 여자 123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호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인구가 대폭 줄어든 것은 무엇인가 기록상의 오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읍지에는 감성리 외에 장대리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호구총수』에도 공주목 양야리면에 감성리와 장대리가 모두 보이지 않는다. 이는 감성리가 자연동리명이 아니라 행정동리명으로 사용되었음을 추측케 한다.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 펴낸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공주군 양야리면에 감성리柑城里와 장대리場垈里가 모두 보인다. 감성리의 한자표기도 ‘柑’으



감성초등학교 앞에서 바라본 마을

로 바뀌어 있다.

1974년 한글학회에서 간행한 『한국지명총람』 4에서는 감성리柑城里(감성구지, 감섬)에 대해 본래 공주군 양야리면의 지역으로서 뒤 산이 성같이 둘러 있고, 또한 감자나무가 있으므로 감성구지, 줄여 감성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장대리를 병합하여 다시 감성리라 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되었으며, 뒤 산에 소나무가 울창하여 백로 수 십마리가 늘 깃들어 있어서 별천지를 이루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장터(장대리, 감성장터)에 대해서는 감성구지 앞에 있는 마을로, 1910년까지 시장이 되었다가 대평리로 옮겼다고 하였다.

이 마을을 조사하면서 ‘감자나무’가 가장 궁금하였다. 사전을 찾아보니 홍굴나무라고 한다. 다시 홍굴나무를 찾아보니 운향과의 상록 활엽 소교목으로, 높이는 2미터 정도이며, 잎은 긴 타원형이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6월에 흰 꽃이 피고 열매는 장과漿果로 등황색이며 약용한다. 한국



감성리 소나무숲

의 제주, 중국 남부에 분포한다고 하였다. 이 마을에 이러한 감자나무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 『한국지명총람』의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이곳 감성리는 오래전부터 학마을로 유명하다. 충청남도 도기념물 7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학의 생활을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연기군 문화공보과의 감성리에 대한 자료에는 ‘백로서식지’라 표기되어 있다. 일반인들이 백로나 왜가리, 황새, 두루미들을 보통 학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흔히 ‘학마을’이라 불리우지만, 학술적으로는 백로이기 때문에 군청에서는 백로로 기록한 것이다. 그런 연유로 이곳에서 말하는 백로와 학은 같은 새이다. 이 백로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이곳에 서식하기 시작하여 몇 해 전까지도 많을 때에는 5000여 마리가 마을 뒷산을 온통 하얗게 덮었다고 한다.

백로는 물고기나 개구리 등을 잡아먹으며 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 4, 5월경에 3~5개의 알을 낳아 부화한 후 새끼가 자라고 겨울이 되면 따뜻한 곳으로 가서 살다가 봄에 다시 찾아오는 철새이다. 이 마을에 백로가 찾



감성리 백로

아와 자리를 잡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금강을 비롯한 작은 내들이 풍부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백로가 소나무를 좋아하는데, 감성리의 아담한 소나무 숲은 그들이 둥지를 짓고 알을 낳아 키우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들에게 백로가 많아 학마을로 유명해져서 좋은 점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온다.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외려 배설물 때문에 냄새나고 먹이로 물고 가던 지렁이나 벌레등을 떨어뜨려서 불편할 때가 많아. 게다가 학들의 배설물 때문에 소나무들이 다 말라죽기도 하지. 그래도 학들이 많이 찾아오는 해는 풍년이 들고 조금 오는 해는 흉년이 든다는 말이 있어서 마을사람들 모두가 봄이면 학들이 많이 오기를 기다리곤 하지”

“옛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 어느 집 며느리가 오랫동안 수태를 못해서 고민하다가



감성리 들판

우연히 학알을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말을 듣고 그 며느리의 나이만큼 학알을 먹었는데 진짜로 아이를 갖게 되어서 그 후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비법으로 전해지고 있지. 그리고 폐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학알을 삶아먹고 나왔던 일도 있었어”

마을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많이 날아와 잘살다가 가길 바라는 백로들이 요즘은 그 수가 많이 줄었다. 이유는 농사짓는 환경이 변하여 백로들의 먹이인 우렁이나 물고기들이 급격히 줄어들어 백로들의 서식조건이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마을의 백로들은 거처하던 소나무가 자기들의 배설물로 인하여 상태가 나빠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소나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학마을이라 불리는 마을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적은 숫자의 백로들이 옛 명성을 잇고 있다.

감성리에는 1908년까지 큰 시장이 있었다. 만평정도의 규모로 장이 열렸던 곳으로 음력 4일과 9일에 장이 서던 ‘감성장터’이다. 당시에는 이곳이 공주군 양야리면의 중심지였다고 한다. 1908년 일제가 대평리에 주재소를 세우고 중심마을을 대평리로 하기 위해 감성장터를 대평리로 옮겼다(이는 1934년에 간행된 『연가지』에 의한 서술임. 『한국지명총람』에서는 1910년에 대평장으로 옮겼다고 하여 2년간의 차이가 있음). 현재 그 장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푸른 들판이 옛 기억을 대신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일제만 아니었다면 이곳 감성리가 면소재지가 되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한다. 대한제국기의 관보를 찾아보니, 1910년 4월 2일에 도살장 설립지의 등급지를 정하였는데, 공주군 양야리면의 대평리는 2등지, 감성장터는 3등지였다. 상권이 감성장터에서 대평리로 넘어간 모습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마을 주민들은 감성장터가 주변 마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주변의 축산리, 밭산리까지 통틀어 감성구지라고 불리었다고 한다. 한때 이 지역의 자랑이었던 ‘양회다리’ 감성교는 일찍이 1950년에 놓여진 다리이다.

감성리 평산신씨 ●●●

감성리 마을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성씨는 평산신씨(平山申氏)이다. 마을 전체 100여호 가운데 17호를 차지하고 있다 한다.

감성리에 거주하는 평산신씨들은 이 마을에 처음 입향한 조상으로 신사경(申思罔, 1684~1750)을 거론한다. 신사경은 고려개국공신 신승겸의 27대 후손으로, 18세기초에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 부총관(副摠管)으로 함경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지냈다. 초명은 사성(思聖)이고, 자는 주경(周卿)이다. 경종 때 무과에 급제하였다는 기록이 족보에 보이나, 다른 자료는 찾지 못했다. 감성리 입향 시기와 입향 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기록할 수는 없으나, 감성리에 묘소가 위치한 것으로 보아 1749년(영조 25)을 전후



감성리 평산신씨 신사경 신도비와 묘

하여 이미 감성리에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사후에 후손들에 의해 묘소가 이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금남면 감성리에는 신사경의 묘소가 있으며 묘소 앞에는 근래에 비문을 지어 세워 놓은 신도비가 있다.

후손들은 신사경이 감성리에 입향하기 전에 살던 곳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족보에 수록되어 있는 묘소의 위치를 통해 추론해 본다. 신사경의 부친 묘소는 경기도 양주에 있고, 조부와 증조부의 묘는 강원도 원주에 있었다. 이를 근거로 유추해 보면, 신사경의 감성리 입향 전 거주지는 경기도 양주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을 것이다.

감성리 평산신씨는 주로 달전리 창녕성씨 문중하고 통혼을 해 왔다. 연유를 물으니 후손들은 평산신씨가 양반이었으니 하찮은 문중과 일가친척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창녕성씨와 주로 혼인을 했다고 대답한다. 감성리 평산신씨에 관한 후손의 증언과 족보의 기록 외에 다른 자료나 근거가 없어서 아쉬웠다.

감성리 이참판댁 ●●●

마을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이 마을에는 조선말기에 ‘이참판’이라고 불리우던 사람이 살던 집이 남아 있다. 현재는 비어 있으나 당시에는 본채와 이웃하여 작은 부인들이 거주하던 집도 있었고 줄줄이 행랑을 지어 사람들을 부렸다 한다. 마을 사람들이 함부로 이참판 집 앞을 다니지 못할 정도로 세력이 대단 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세도를 부리던 이참판의 집은 아이러니 하게도 모두 초가집이었다고 한다. 지금의 모습처럼 기와를 올린 지는 4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행랑채이던 곳에는 각각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집을 짓고 살고 있으며, 이참판 집의 연못이었던 곳은 마을회관의 마당으로 바뀌어 있다. 제보자는 이참판은 한산이씨로 1921년에 돌아가시고, 천안군수를 지냈던 참판의 아들 이석규 또한 1932년에 타계한 후 집이 비었는데, 후손이 더 이상 없는 건지 알 수가 없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집의 소유주도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다.

감성리 이참판댁



금남면 금천리



조사대상 광산김씨, 진주유씨, 최기수의 묘소와 묘비

금천리(金川里)는 1914년에 공주군 양야리면 금천리 청사동 학봉리가 합쳐진 동리이다. 행정편제로서의 금천리는 조선후기의 『여지도서』나 읍지에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호구총수』에는 ‘금천(金川)’이 있으며,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 펴낸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공주군 양야리면에 청사동(靑寺洞), 금천리(金川里), 학봉리(鶴峰里)가 보인다. 이 세 마을이 1914년에 합쳐져 연기군 금남면 금천리가 된 것이다.

『한국지명총람』에서는 금천리(金川, 소내, 쇠내, 우계) 마을명칭의 유래에 대해 이곳에 소가 누운 형국의 명당이 있다 하여 소내, 또는 우계(牛溪)라 하였는데, 변하여 쇠내 또는 금천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천리는 대전광역시와 경계를 이루는 금병산의 북서쪽 자락에 자리한 마을이다. 마을을 금병산이 남동쪽으로부터 병풍처럼 감싸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이 마을 금천리는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이었다. 이 마을에 갑자기 인구가 증가하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1923년 원금천리에 유·불·선 세 종교의 장점을 모아 경전을 만들고 가르침을 펼치는 ‘금강대도’라는 종교 단체가 멀



금천리 저 끝으로 보이는 병풍같은 산이 금병산이다.

리 강원도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와서 자리 잡고 부터이다. 그 후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 전쟁을 치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또는 피난을 하려고 이곳으로 찾아들면서 최고조의 인구증가율을 보였다. 지금은 시골의 팍팍한 살림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도시로 떠나 번성했던 당시의 모습은 자료와 어른들의 기억 속 에서만 찾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조용한 마을이 되었다.

금강대도는 창시자인 이승여가 탄생한 1874년을 개도 원년으로 삼고 있다. 호가 토암^{土庵}인 이승여는 강원도 통천군에서 태어났다. 18세부터 구도와 수련에 정진하여 1906년에 도를 깨쳤다. 1910년에 계룡산으로 내려와 포교하여 수만 명의 신도를 모았다. 본부가 연기로 이전한 것은 1923년이다.

연기의 금천리에는 삼종대성전^{三宗大聖殿}이라는 건물을 세우고 금강대도 연화대도 총본부라 불렀다. 총본부에는 삼종개화문이라는 정문과 개도



1	2
3	

1 금강대도 총본원 삼존개회문
3 금강도덕문

2 금강대도 성경

100년 탐이 서 있다. 여기서 삼종은 유교, 불교, 도교, 즉 유·불·선을 뜻한다. 포교 초기에는 대중교와 유사하게 국조 단군 숭배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유·불·선과의 접목이 이루어졌고, 이후 도주 부부를 신앙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 종교로 파악되어 심한 탄압을 받았다. 일제는 금

강대도가 일본 불교에 편입되기를 원했으나 제2대 도주였던 이성직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자, 1941년 법당에 난입한 경찰에 의해 수십 명이 연행되었으며, 건물도 파괴되었다.

제3대 도주 이일규가 1964년부터 금강대도를 이끌고 있다. 이일규는 이승여의 손자이자 이성직의 장남이며, 호는 월란(月鸞)이다. 창도주 토암과 아들 청학, 손자 월란의 3대는 건부(乾父)로, 그 부인들인 자암(慈菴), 보단(寶丹), 향련(香蓮)은 곤모(坤母)로 신앙한다. 이일규에 따르면, 금강대도의 중심 사상은 '의성(義誠)'이고, 구원은 건부와 곤모를 정성껏 믿고 가르침을 실천하면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경전은 이승여의 『대원경(大圓經)』, 이성직의 『대정경(大正經)』, 이일규의 『대방경(大方經)』이 있으나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2001년부터 매년 『종리학연구』라는 학술지를 발행하고, 『성경(誠敬)』이라는 소식지도 발행하고 있다. 금강대도가 설립한 '금강삼종대'라는 학교도 있다.

광복 이후 6·25 전쟁을 겪으면서 더욱 어려워진 척박한 산간마을 금천리를 먹여 살린 것은 양말을 짜는 일이었다. 총괄은 금강대도에서 하였고 어느 정도의 공장도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 가내공업으로 집집마다 양말 짜는 기계를 들여놓고 양말을 짜서 팔아 생계유지를 했다. 이일에는 가족 모두가 매달리다시피 했다. 공장에는 각처에서 들어온 처녀들이 직원으로 일하기도 하는 등 양말 공장은 마을을 먹여 살리고 다른 마을 처녀들에게도 일자리가 되었다. 금천리의 양말은 목양말이 주를 이루었는데 그중에는 여성들이 주로 신는 장양말이라는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양말도 있었다고 한다. 대전방적공장에서 들어온 실을 염색하여 양말을 짜는데 한 집에서 100결레 정도를 짰다. 이 양말을 10결레 단위로 묶어서 전국을 다니는 도인들이 중간상인 역할을 맡았다.

당시 실 한짝으로 양말을 짜면 두짝 값의 이익이 나왔다. 해방과 전쟁 전후의 경제상황에서는 결코 적지 않은 수입이었을 것이다. 목양말이 전

성기를 이루던 시기는 금천리 마을이 경제적으로 가장 넉넉한 전성기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넉넉함은 질기고 가벼운 나일론양말이 등장하면서 짧은 역사를 남기고 뒤편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 후에는 잠시 인조조개를 가공하여 장식용 구슬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기도 했고, 금병산 넘어 또 다른 민족종교단체인 수운교에서 성행했던 직조사업에 손을 대기도 했다고 한다.

6·25 전쟁으로 피난민들이 몰렸던 시기부터 전후 잠시 동안 이곳 금천리는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했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금천리 인구조사표에 의하면, 가구는 1977년 135가구에서 2009년에는 69가구로 줄었고, 인구는 755명에서 170명으로 줄었다. 현재에도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오늘날의 금천리 사람들은 대부분 금강대도와 함께 들어와 살기 시작하다가 현재까지 머물고 있다. 그런 이유일까? 금강대도 이전부터 거주하던 성씨를 찾기가 쉽지 않다. 현재는 여러 성씨들이 함께 사는 일명 각성반이 마을이다. 다만 금강대도가 들어왔을 때 원금천에 진주유씨 몇 호가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와 예전에 산지기를 두고 시제를 지냈던 광산김씨의 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금천리 광산김씨 ●●●

금천리에는 아주 오래전에 대전 구죽에서 묘를 옮겨 산지기를 두고 시제를 지내오던 광산김씨의 선산이 있다.

증언에 따르면 광산김씨 묘소는 본래 4~5기가 있었으나 합장한 무덤을 포함하여 현재 2기가 남아있다. 예전에는 산지기를 고용하여 종산과 묘역을 관리했으며, 마을 주민들이 광산김씨의 종산인 금화산에서 밭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기도 했는데, 이를 경작하는 주민은 도조를 내는 대신 산

지기 집에 가서 며칠간 일을 해주었다.

원금천 산정말에 있는 광산 김씨의 묘역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된 묘소의 주인공은 김두찬金斗燦(1735~1764)의 배위이다. 묘비에 따르면 그녀의 생년은 1727년(영조 3)이고 금천리에 장사를 지냈다. 두찬의 묘는 본래 구죽 정민동(현 유성 전민동) 허주虛舟 김반金槃(1580~1640)의 묘 왼쪽에 위치했으나, 임신년에 금천리로 옮겨서 합장했다. 또한 이들의 묘소 아래에는 두찬의 종손 김영준(1820~1878) 배위인 남양홍씨, 함평오씨를 합장한 묘소가 있다.

이상의 묘소 위치로 미루어 보아 광산 김씨는 18세기 후반~19세기 초 원금천에 세거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금천리에는 후손들이 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지기를 맡았던 주민도 오래전에 이거하여 더 이상 상세한 내력을 추적하기 어렵다.

금천리 진주유씨 ●●

진주유씨는 원금천에서 한때 향론을 주도하던 성씨였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텃새가 심해서 외지인이 원금천 앞을 함부로 지나다닐 수도 없었고, 마을에서 상하를 가리지 않거나 불효를 저지르는 자가 있으면 불러다가 불기를 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타처에서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인사를 드렸다는 것이다. 진주유씨는 금강대도에 입도하지는 않았으나 진주유씨와 금강대도와의 사이는 돈독했었다고 한다. 6·25 전쟁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려 했지만 진주유씨 집안에서는 '금강도 선생이 하는 대로 따라 하자. 저 어른이 피난을 가지 않으니 탈이 없을 것 같다.'라고 여론을 주도하여 전쟁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당시 북한군이 들어와 있던 시절에도 금천리에서는 한사람의 사상자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금강대도와 함께 금천리를 이끌었던 진주유씨는 충경공파의 후손이었다. 그 파조는 유형柳珩(1566~1615) 장군이다. 그는 조선중기의 무신으로 자는 사온士溫, 호는 석담石潭이다. 공조판서 유진동柳辰叟의 손자로,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장 김천일金千鎰 휘하에 들어가 강화도와 한강변 등에서 활약했고, 이어 선조가 피란한 의주義州의 행재소行在所에 가서 선전관宣傳官이 되었다.

1594년 무과에 급제하여 남해현감이 되었고, 1597년 정유재란 때 이순신李舜臣의 막료가 되어 왜적과 싸우던 중 왜적의 총탄을 맞고도 적선에 돌진하여 싸우는 등 전공을 세워 부산진첨절제사釜山鎭僉節制使에 특진되었다. 1600년 경상우도 수군절도사가 되고, 이듬해 이순신이 맡았던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었으며, 이어 충청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1609년(광해 1) 이후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겸 회령부사를 거쳐 경상도, 평안도, 황해도 의 병마절도사를 역임하였다. 충경忠景의 시호를 받았으며 해남海南의 민충사愍忠祠에 제향되었다.

유형 장군의 교지와 당상관 호패 등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8호이며, 공주시 장기면 하봉리 충렬사에 보관되어 있다. 이후 그의 아들 충걸忠傑과 담연潭然이 공주시 장기면 대교리로 낙향하여 정착하게 된다. 그렇게 몇 대를 살아오던 유형의 8대손인 상구相龜가 19세기 후반에 원금천으로 이거하여 원금천의 입향조가 되었다. 산림처사였던 상구는 원금천이 군자가 거주할만한 터전인데다 피난지이기 때문에 은거지로 택했다는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다. 입향 당시에 3형제를 데리고 들어왔다고 한다. 이 중에서 막내인 응로의 자손이 최근까지 원금천에 살고 있다.

금천리 최기수의 묘소와 묘비 ●●●

금천리 학봉 마을 입구의 북동쪽 야산 하단부에는 최기수의 묘소가 있

다. 최기수崔杞秀의 본관은 화순和順, 자는 여재汝材이다. 이괄의 난이 발생하여 인조가 공주 공산성으로 피난하였을 때, 공주목사 송흥주宋興周의 천거로 행재소行在所의 인조 앞에 나아가 공을 세웠고, 인조가 환궁한 뒤 여러 차례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원종공신에 녹훈되었으며, 이 사실이 『공산지』에 실려 있다. 묘소가 위치한 곳은 화순최씨 종산으로, 묘소에는 1911년에 세워진 묘비(金霽漢 撰 尹用求 書), 상석과 망주석, 1965년에 세워진 묘갈(成九鏞 撰, 宋完彬 書, 金澈顯 篆)이 있다.

금남면 남곡리



조사대상 부안임씨 대지동파

남곡리는 1914년에 남곡리와 수락리가 합쳐진 동리이다. 남곡리와 수락리는 『여지도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호구총수』에는 공주군 명탄면에 남곡리, 양야리면에 수락동이 있다. 이는 남곡리나 수락동이 조선후기에 행정동리명으로는 사용되지 않았고, 자연촌락명으로서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 펴낸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수락리는 양야리면에 포함되어 있으나, 남곡리는 공주군 명탄면과 양야리면에 각각 보이고 있다. 이는 남곡리가 명탄면과 양

야리면의 경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마을이 성장하면서 두 개의 면에 각각 마을 명칭이 등장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지명총람』에서도 남곡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남곡리(남곡, 남골) 본래 공주군 명탄면 양야리면의 경계로서, 물이 남쪽 골짜기에서 흘러오므로, 남골, 또는 남곡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수락리를 병합하여 남곡리라 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됨. 이곳에는 약 200년 전



남곡리 마을 표석



남곡리 개울 이 개울물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른다고 하여 '남곡'이라는 지명이 생겼다.



남곡리 백정묘 터1 마을 주민과 함께 찾아간 묘지 터에는 무성한 풀만 자라고 있었다.



남곡리 백정묘 터2 건너편 산 중턱에 또 다른 백정묘가 있었다고 한다.

에 백정 3,4호가 살았으므로, 그들을 남산백정이라 부르며, 지금도 이곳 남쪽 골짜기에 백정의 묘비가 있음.

남산백정의 묘비가 궁금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 보았으나,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도 하고, 듣기는 들었는데 묘 두기는 밭으로 개간되어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고, 한기는 얼마 전까지도 묘의 형태가 있었지만 지금은 풀이 자라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한다. 일단 그 장소를 확인하고 싶어서 함께 동행하기를 부탁하여 찾아갔으나, 역시 묘비는 물론이고 묘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

남곡리는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이 있기 전까지 양야리면의 면소재지가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 서대산 아래 햇볕 좋은 기슭에 맑은 물이 조용히 흐르는 남곡리는 넉넉한 인심까지 합쳐져서 그야말로 무릉도원 같은 마을이었다.

금남면의 살기 좋은 곳 세 곳을 일컫는 말이 있는데, 소위 '1남곡 2둔대 3달전'이라 한다. 남곡리의 주민들은 남곡리의 물이 좋아서 쌀농사가 잘 되고 맛이 좋기 때문에 1남곡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남곡리를 부자 마을로 만들고 자식들을 모두 대학에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효자 농산물 참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모두 입을 모은다. 이미 1970년대에 마을 집집마다 대학생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부모들의 교육열이 대단하였고, 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던 작물이 참외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남곡리 모습은 참외농가는 없고 배농사와 복숭아 조금, 그리고 논농사 정도이다.

남곡리 부안임씨 대지동파 ●●●

남곡리에는 부안임씨 대지동파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대지동은 남곡리

에서 이웃한 금남면 황룡리에 있는 자연촌락 지명이다. 부안임씨 대지동파의 남곡리 입향조에 대해서는 임응주라는 설과 임우기라는 주장이 있다.

기존의 조사에 의하면, 부안임씨가 남곡리에 살기 시작한 것은 전서공 임난수의 7세손인 임응주林應柱(1500년대 후반)부터라고 한다. 임응주의 아버지가 대지동과 大支洞派의 파조로 성균생원成均生員을 지낸 임대춘林大春이며, 어머니는 강릉최씨江陵崔氏이다. 임응주는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냈으며, 부인은 현감을 지낸 우흠禹欽의 딸인 단양우씨丹陽禹氏이다. 후손들의 전언에 의하면, 임응주는 원래 남면 양화리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살기 좋은 땅을 찾아 400여 년 전에 남곡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임응주가 금남면 남곡리에 입향하기 전에는 안씨安氏가 살았다고 전해진다. 임응주의 묘는 금남면 영대리 서당산에 있으며 묘 앞에는 묘비와 상석이 있고, 재실이 있다.

하지만 이번의 조사에서 후손들에게 확인한 바로는 임응주는 황룡리 대지동 입향조이고, 남곡리에는 그 후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쯤에 임우기林遇箕가 입향했다고 한다. 임우기는 임난수의 10세손이고 임응주의 고손자

남곡리 부안임씨 세보



이다. 송준길宋浚吉의 문인으로 임난수의 신도비를 세우는데 앞장섰으며, 검담서원黔潭書院을 창건하였다.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에 위치하고 있는 검담서원은 1766년(영조 42)에 세웠으며, 송준길을 배향하고 있다. 현재는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31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임우기는 공주 반포면의 충현서원忠賢書院에 원임院任으로 있을 때, 주부자朱夫子 즉 주희의 화상畫像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에 다녀와 화상을 연천漣川 임장서원臨漳書院에 봉안奉安하였다.

그렇다면, 부안임씨 전서공파의 7세손 임응주가

연기군 남면 양화리에서 황룡리 대지동으로 오면서 대지동파가 생겼고, 그 후 그의 고손 임우기가 옆 마을 남곡리에 자리를 잡으니 남곡리의 입향조가 된 셈이다. 임우기는 18세기 초기의 인물이다.

남곡리 주민들은 이 마을이 1980년대에 범죄 없는 마을로 두 번이나 지정 받았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또한 이 마을 조사에서 부안임씨의 통혼은 이웃한 달전리의 창녕성씨와는 하지 않고, 주로 보성오씨와 통혼이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그들만 간직하고 있는 전해지는 일화가 있었다.

일제 강점기인 1935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조선의 성』에서는 남곡리를 부안임씨가 43호 거주하는 동족마을로 보고하고 있다.

금남면 달전리



조사대상 청녕성씨 정재공파, 문절사, 병산사, 인제공 유적비

달전리는 1914년에 공주군 명탄면 달전리 신곡리 성리와 계봉리 일부, 그리고 회덕군 구죽면 신달전리가 합쳐진 동리이다. 『여지도서』에는 이와 같은 지명은 보이지 않고, 『호구총수』에는 공주목 명탄면에 ‘달전’이 보인다. 그런데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공주군 명탄면에 달전리 외에 신곡리^{莘谷里} 성리^{聖里} 계봉리^{鷄峰里} 등도 실려 있다. 또한 구죽면에 신달전리도 있다. 이들이 1914년에 합쳐져 연기군 금남면 달전리가 된 것이다. 『한국지명총람』에서는 달전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달전리(달밭, 월전) 본래 공주군 명탄면의 지역으로서, 앞산이 반달 모양이므로 달밭, 또는 월전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신곡리, 성리, 학봉리 일부와

회덕군 구죽면의 신달전리를 병합하여 달전리라 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됨.



달전리 안산 마을 가운데 있어서 안산이라 한다.

달전리는 열두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그 열두 달전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루고개: 영대리에서 달전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지루고개라 하는데 고개가 길어 넘어가기가 지루해서 생긴 이름 이라고 함.

② 원댕이: 2007년 조사된 <연기군 지명유래>에는 원씨가 부자로 살아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함. 그러나 한편으로는 달전리 입향조인 창녕성씨 정재공이 원래 자리 잡았던 곳이라서 불리운 이름이라고도 함.

③ 샘넘어: 원댕이와 성동의 중간마을이며 이곳에는 4채의 집이 있었고 성동의 샘으로 가는 길이어서 불리게 된 이름.

④ 승동: 성동聖洞을 달리 부르는 이름. 예전에 성대감이 살았었는데 성품이 마치 성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어서 그리 불리게 됨.

⑤ 닭재: 마을 뒷산의 형국이 닭의 모양을 닮았다 하여 불리게 된 이름. 마을 입구 길가에 닭 벼슬에 해당하는 정원이 있었는데 도로 확장사업으

로 정원을 없애고 작은 바위를 세워 두었으며, 이 바위를 ‘닭 벼슬 바위’라 함. 120년 된 망묘대가 있으며 계현이라고도 부름.

⑥ 원달전: 마을의 중심마을로 원래의 달전이라는 의미.

⑦ 새터말: 신기新基, 신달전이라고도 부르며, 1914년에 회덕군 구죽면에서 편입된 마을.

⑧ 안산: 마을 가운데 있어서 지어진 이름. 야트막한 산이지만 반달의 모양을 닮아 달전리라는 지명이 유래한 산. 문절사 앞에서 보면 반달의 모양을 제대로 볼 수 있음. 이 산에는 적송이 자라고 있으며, 마을에서 참나무 등을 제거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음.

⑨ 망골: 바라볼 망뿔자를 쓰는 망골로, 동주 성제원의 묘소가 있으며 망묘대에서 마주 보이는 곳이어서 그리 부르게 되었음.

⑩ 방아골: 예전에 방아가 있던 외딴집이어서 방아골이라 부름.

⑪ 어정물: 마을 남쪽.

⑫ 옷골: 원달전 북쪽에 위치한 곳. ‘옷골’의 뜻을 이곳에서는 듣지 못했지만, 통상적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마을을 이르는 말이라고 함.

이 열두 달전 외에도 몇 가지 자연촌락명이 사용되고 있었다. 달전 1리를 ‘월전’이라 하는데, 이는 우리말로 ‘달밭’이다. 마을에서 마주보이는 앞산이 달의 모양을 닮고 그 앞에 펼쳐진 마을에 달빛이 가득 비취지니 지어진 이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숙바위’라고 불리는 곳도 있다. 이곳에는 예전에 술집이 한 채 있었고, 그 술집 옆에 집채만한 커다란 바위가 있었다고 한다. 그 바위를 ‘술바위’라고 부르다가 술집이 없어지면서 술바위가 숙바위로 변한 듯 하다고 한다.

‘옥정’이라는 우물도 있다. 옥정봉아래 성기운선생의 사당인 병산사 뒤쪽에 있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아주 물맛이 좋았던 곳이라 한다.

달전리 창녕성씨 정재공파 ●●●

금남면 달전리 창녕성씨昌寧成氏 정재공파靜齋公派는 성담년成聃年(1441~1483)을 파조로 한다. 정재는 성담년의 호이다. 성담년은 예문관 대제학 석용石琮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개概이고, 아버지는 승문원 교리 희燿이며, 어머니는 호조 판서 이견기李堅基의 딸이다. 생육신 담수聯壽의 동생이며, 사육신 성삼문과는 6촌간이다. 1470년(성종 1) 별시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1477년 경연經筵 검토관檢討官에 임명되었고, 이어서 예문관 수찬·사간원 정언을 역임하고, 1479년에 공조 정랑과 이조 정랑이 되었다. 이 때 시사時事에 대한 소를 올리자, 왕이 친히 불러 그 진의를 묻고 내약방內藥房의 약재를 하사하여 포상하였다. 그 뒤 홍문관 교리에 이르렀으나 곧 사직하고 성리학 연구에 힘썼다.

그런데 달전리의 창녕성씨 입향조는 파조 성담년成聃年(1441~1483)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인 성희成熹(?~1464)이다. 성희의 자는 용희用晦, 호는 인재人齋이다. 그의 아버지는 경기감사京畿監司를 지낸 성개成概(1300년대), 어머니는 순천박씨이고 부인은 성주이씨이다. 성희는 조산대부朝散大夫를 거쳐 비서원교리秘書院校理 겸 승문원교리承文院校理를 지냈으며, 기사관記事官으로서 『세종실록』, 『문종실록』의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사후에 도승지都承旨로 증직 받았으며, 창녕의 물계서원勿溪書院에 제향되었다. 묘는 고향인 경기도 파주에 있다. 1456년에 사육신 중 한 사람인 성삼문成三問(1418~1456)과 함께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어 김해로 부처되었으며, 가정과 재산을 국가에 몰수당했다.

김해에서 귀양살이를 한 지 2년 째 되는 해, 그는 지령指令을 받고 서울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부강美江까지 올라왔으나, 세조가 서울에서 3백리 떨어져 나가 살라고 명령하여 더 이상 서울로 향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후 그는 영구적으로 생활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처음에는 연기군 남면 양화리로 갔으나, 여러 가지로 여건이 맞지 않아 다시 금강을 건

너 금남면 반곡리를 거쳐 달전리에 정착했다고 한다.

그 후 성희의 아들인 성담수(成聃壽(?~1456))와 성담년이 정성을 다해 부친을 모셨으며, 성담수가 자식을 두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현재 달전리에 거주하는 창녕성씨는 성담년의 자손이며, 파조를 인재공 성희가 아닌, 정재공 성담년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창녕성씨 문중에서 전해 오는 입향 내력과는 달리 달전리에 전해져 오는 ‘원장자·홍장자 전설’도 주목된다. 이 전설은 달전리에 일찌감치 터를 잡았던 이들이 원씨(元氏)와 홍씨(洪氏)였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물론 구전에 불과하지만, 오래전부터 달전리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달전리 뒷산 절골에는 ‘원조암’이라는 바위가 있고 바로 옆에 ‘성씨세장산(成氏世葬山)’이라고 새겨진 바위가 있다.

성희의 두 아들 중 생육신의 한사람으로 일컬어지던 장자 성담수(成聃壽)의 묘소는 실전되었고, 그 자손도 계속 이어지지 못하여 달전리의 창녕성씨들은 대부분 성희의 둘째아들 성담년(成聃年)의 후손들이다. 성담년은 어릴 때부터 효성스럽고 문장에 재주가 있었다. 아버지 성희가 김해로 귀양을 가게 되었을 때 국법상 부자가 서로 만날 수 없었으므로 그는 15세의 어린 나이임에도 김해까지 걸어서 아버지를 따라갔다고 한다. 김해에 이르러 울부짖으며 밥을 빌어 조석으로 공양하였고, 그의 효성에 감동한 마을 유생들에 의해 천거되어 참봉에 제수되기도 하였다. 1483년(성종 14) 별세한 후, 순충보조공신 가의대부 사헌부 대사헌 창녕군(純忠輔佐功臣嘉義大夫司憲府大司憲昌寧君)에 추증되었다.

조사자들이 만난 달전리에 살고 있는 후손들은 인재공이 처음 달전에 왔을 때 자리를 잡도록 도와준 사람은 경주이씨였다고 했다. 그 집터에는 인재공이 머물던 거처라고 하는 사랑채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안에서 보았을 때 ‘ㄱ’자형의 집이며 흙벽이었고 기둥이나 서까래 등 집의 뼈대를

이루는 부분들은 소나무였다.

밖에서 보이는 사랑의 마루는 우물마루이며 마루판은 통나무를 절반으로 자르고 마루면만 다듬어 끼워 넣었고 기둥은 정사각형으로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절개와 위엄을 보여주고 있었다. 후손은 그 사랑채가 이미 500년이 지났고 당시 인재공이 머물던 공간이라 하는데, 조사자들의 짧은 견해로도 남아있는 상태가 200년을 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처음 머물던 터가 그곳이라는 말씀을 조금 과장하여 전하는 듯하다.

현재(2011년) 이집에는 종부(민속기, 84세)가 살고 있었다. 여흥민씨의 후손으로 한글학자 한갑수 선생의 제자였다고 하는데, 지성을 갖춘 분이었다. 한해 스물 네 번이나 돌아오는 제사를 당연한 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조상을 지성으로 모신 공으로 현재까지 잔병치레 없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며, 조상을 모시는 일에 소홀한 요즘의 세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한다. 잘되는 일을 조상에게 돌리고 있으니, '안되면 조상 탓'이라는 세속의 속담을 무색케 한다.

창녕성씨가 들어오기 전부터 살고 있었으며, 창녕성씨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경주 이씨는 현재 이 마을 전체 100가구 중 4가구만이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36호 정도는 각성이고 60호가 창녕성씨 정재공파라고 하니, 이 마을 속 속들이 창녕성씨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달전리에는 1938년에 건립된 인재공 성담년 묘비, 1944

달전리 창녕성씨 증가



년에 건립된 성몽선(成夢宣) 묘표와 성삼문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문절사(文節祠)로, 1975년에 건립된 성희(成熹) 유적비, 후손인 성기운을 기리기 위해 고을 유림들이 세운 병산사(屏山祠)가 있다.

달전리 문절사 ●●●

문절사(文節祠)는 연기군 금남면 달전리 333번지, 달전리 마을의 닭재 아래에 있으며, 정면으로 달전리의 안산이 보인다. 삼문과 사우로 구성된 정면 3칸, 측면 1칸, 전퇴 1칸이며 지붕은 맞배지붕이다. 조선전기의 문신이며 사육신의 한 사람인 매죽헌(梅竹軒) 성삼문을 배향하기 위해 지어진 사당으로, 연기군 문화재자료 제40호이며, 공식 명칭은 ‘매죽헌사우(梅竹軒祠宇(문절사))’라 불린다.

달전리 문절사비



성삼문의 충신 정려가 금남면 달전리에 세워진 것은 1904년이다. 이곳이 성삼문의 출생지도 아니고 생전에 머문 적조차 없는 곳임에도 정려가 세워진 것은 성삼문 사후 이 지역에 입향한 창녕성씨들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충신 정려는 성삼문의 추모·존승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주 동학사 숙모전과 홍성의 노은서원 및 논산의 충곡서원 건립에 이어 가장 후대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성삼문을 최초로 제향한 공주 동학사의 숙모전(肅慕殿)은 성삼



달전리 문절사

문이 참사 당한 직후에 그 제향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동학지東鶴誌』의 기록에 의하면, 1456년(세조 2) 성삼문의 봉사손택 사랑방에서 김시습金時習 · 조려趙旅 · 정지산鄭之産 · 이망월암李望越菴 · 조상치曹尙治 · 성담년成聃年 등이 협의하여 동학사에 들어가 단招魂壇을 모시고 단종에게 제사한 다음 사육신 초혼을 불러 제를 올렸는데, 이것이 바로 공주 동학사 숙모전肅慕殿의 시초이다.



달전리 성삼문 명정 현판

이렇게 사육신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활동이 있기는 하였으나, 개별 인물에 대한 포장은 당장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성삼문의 충신정려 또한 그 명정 시기가 매우 늦은 편인데, 그것은 성삼문의 후손들이 계유정란의 타

격으로 본거지를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고, 오랫동안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후대로 가서는 사육신의 충절이 재평가 받게 되었고, 성삼문의 유허가 남아 있는 곳곳에서 그를 제향하는 서원의 창건활동이 있었다. 충신명정 전에 성삼문을 제향하는 서원이 홍성과 논산에 각각 건립되었다. 홍성의 노은리는 성삼문의 탄생지이자 외가집이 있는 곳이었으며, 논산의 충곡리는 성삼문의 별장이 있었던 고장이었다. 먼저, 홍성 노은리의 노은서원魯恩書院은 1676년(숙종 2)에 건립되어 성삼문의 외손 박호朴豪가 봉사하고 있었으며, 논산 충곡리에서는 성삼문의 별장이 있었던 것을 창건의 동기로 삼아 1680년(숙종 6)에 충곡서원忠谷書院이 건립되어 계백과 사육신을 제향하였다.

달전리에 대대로 거주하던 창녕성씨들은 지역 사족들과 함께 1787년(정조 11)에 성회를 증현서원에 추배하도록 상언하기도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고, 고종대에 이르러 성삼문의 15대 방손 성기운成岐運이 명정상소를 올려, 1902년(광무 6)에 성삼문의 충신명정을 받게 되었다. 성기운(1847~1924)은 1880년(고종 17)에 증광문과에 급제한 이후 벼슬길에 올라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고, 1901년(광무 5)에 협관協辦으로 있으면서 성삼문의 명정상소를 올렸던 것이다. 충신명정을 받고 바로 다음해인 1903년(광무 7)에는 방손傍孫 성주영成周英이 봉사손으로 결정되어 달전리에 단사單祠를 세우고 봉사하면서 '문절사' 건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때의 기록은 1903년 24일자 관보官報에 상세하게 실려 있는데, 성삼문의 단사를 세우면서 사육신 중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도 그 종족으로 하여금 사우를 세우고 자손이 봉사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때부터 매년 음력 6월 6일에 제향을 올리고 있으며, 한때 유럽에서 성삼문이 집현전 학자였던 점을 감안하여 한글날인 10월 9일을 제향일로 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형편이 맞지 않아 다시 음력 6월 7일에 제향하고 있다고 한다. 최초의 단사는 단

칸 초옥이었다고 알려지며, 1967년에 비로소 5칸 사우로 개축하여 영정을 봉안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로 문절사文節祠라 현판하였다.

문절사의 내부는 중앙에 영정을 모시고 영정 오른쪽에 '忠義총의' 왼쪽에 '正心정심'이라 쓰인 족자를 걸었다. 영정 앞에는 촛대와 향로를 놓아 두었고 위패는 종가 집안에서 따로 모신다. 성삼문 사후 500년이 지나서 그런 영정! 더구나 초상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었으니 당시의 성삼문의 모습 그대로는 아닐 것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후손들의 얼굴을 토대로 그려진 것이라 한다.

삼문의 중앙에는 1903년 고종의 어명으로 내려진 충신정문이 걸려 있다. 이 명정현판에는 '忠臣贈資憲大夫 吏曹判書 兼 知經筵義禁府事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知春秋館成均館事 世子左賓客五衛都總府都總管行 通政大夫 承政院右副承旨 諡忠文公成三間之閭 光武七年癸卯四月日 忠신 증자 현대부 이조판서 겸 지경연의금부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춘추관성균관사 세자좌빈객 오위 도총부도총관 행통정대부 승정원우부승지 시충문공 성삼문지려 광무칠년계묘사월일'이라고 새겨져 있다.

달전리 병산사 ●●●

병산사屏山祠는 달전리 마을 남향사면의 낮은 구릉 중단부에 동남향으로 위치한다. 항일의사 성기운成璣運을 제향하기 위해 1972년 문인 성구용과 고을 유림들이 건립하였다. 성기운은 일제 강점기의 항일의사로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 및 지산志山 김복한金福漢을 찾아 인연을 맺었고 일제의 민적령民籍令과 조세, 부역 등 각종 정책에 반대하다가 1912년에 구속되어 갖은 고문을 받는 등 일제의 식민정책에 완강히 반대한 항일의사였으며, 많은 후학들을 길러낸 학자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덕천선생문집惠泉先生文集』, 『덕천집습유惠泉集拾遺』가 전해진다. 현재 병산사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건물



달전리 병산사

에 맞배지붕을 올렸다. 사우 동편에 병산사묘정비(屏山祠廟廷碑, 朴孝秀撰, 宋元彬書, 咸河珠篆)가 있다. 연기군 향토유적 제36호로 지정되어 있다.

병산사가 있는 달전리 원달전 마을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체가구 중 90% 이상이 창녕성씨들이었던 집성촌이었다. 병산사로부터 500여m 떨어진 곳에는 매죽헌 성삼문을 모신 문절사가 위치하고 있다.

달전리 인재공 유적비 ●●●

담재 아래 큰길에서 잘 보이는 곳에 인재공 성희(成熹(?~1464))의 유적비가 서 있다. 인재공은 창녕성씨 정재공파의 달전리 입향조이다. 이곳에 자리를 잡고 살다가 돌아간 후에는 선산인 파주까지 가서 묻혔는데, 임금이 계신 한양 땅을 밟지도 바라보지도 말고 가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리하여

장지로 가는 길은 육로가 아닌 서해 뱃길을 이용했다고 한다. 묘소가 파주 선산에 있기 때문에 이곳 달전리에는 인재공이 창녕성씨의 뿌리임을 후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1974년에 유적비를 세워 기리고 있다.



달전리 인재공 유적비

금남면 대박리



조사대상 경주김씨 삼촌공파, 진주유씨 북부령공파

대박리는 1914년에 공주군 명탄면 신산리 대유산동과 대박동의 일부가 합쳐져 이루어진 마을이다. 『여지도서』에서는 이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고, 『호구총수』에는 공주목 명탄면에서 유산소, 대박 등이 보인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서는 공주군 명탄면에서 대유산동 대박동 신산리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이 1914년에 합쳐져 연기군 금남면 대박리가 된 것이다.

『한국지명총람』에서는 대박리(한박금이, 대박)에 대해 본래 공주군 명탄면의 지역

으로서, 뒤 산의 모양이 함박꽃과 같으므로, 한박금이, 또는 대박이라 한다 하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신산리, 대유산동을 병합하여 대박리라 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하였다고 설명한다.

한박금이, 대박이라 불리던 대박리는 요즘 말 그대로 대박이 났다. 대전 대덕단지에 건설하기로 확정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지구로 선정된 것이다. 땅값이 오르고 많은 보상을 받고 조상들이 살던 고향을 떠나는 것이 좋은 일이라면 정말로 대박이 난 것이다. 하지만 삶의 터전인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이 많은 보상액보다 더 좋다고 하시는 분은 본 적이



대박리 마을



대박리 주민들

없다. 어쨌든 우리가 도착한 대박리는 주변 곳곳에 건설 현장들이 보이고 건설에 필요한 차량들이 좁은 길을 달리고 있는 모습들이 조용한 시골 풍경은 이미 잃어버린 듯하다.

마을 뒷산 가운데 봉우리는 삼방돌이라 하고 오른쪽 봉우리는 꽃산이라 부른다. 꽃산 뒤쪽으로 이어진 봉우리 아래를 대박리 1번지로 부르는데, 그 이유는 마을이 그곳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삼방돌에는 쇠길이나 되는 바위가 있어서, 무속인들이 기도처로 찾아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나무가 무성하여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 마을에는 초정이라 불리는 약수가 있다. 약천藥泉이라고도 불리우며, 예전에는 (물이 나오는) 구덩이가 10개가 있었는데 맛이 소주燒酒같아서 가히 백병百病을 치료할 만 했다고 한다. 혹은 물이 나오는 곳이 5곳으로 물마다 맛이 달랐다고도 한다. 이 물은 피부병과 위장병 등에 특효를 보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머물며 치료를 하고 갔다고 한다. 예전에는 그 물을 영험시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단오와 추석 등 특별한 날에만 그 물을 마시고 씻고 했었는데, 우물로 가는 길에 뱀을 보면 되돌아 왔고, 비린 것을 먹었을 때에도 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물 회사가 들어와서 물을 담아 수출도 하고 오래전부터 그곳을 관리하시던 할머니는 그 물에 닭을 삶아 팔기도 하고 묵과 두부를 만들어 팔기도 한다. 물을 길러 오는 사람에게는 전기료 명분으로 한 말들이 통 하나에 500원씩 받고 있었다.

동네 할머니들은 이 물은 약성이 있어서 지렁이도 빠지면 죽었다고 말 씀하시는데, 생각해 보니 물에 빠진 지렁이는 피부호흡을 못하니 죽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대박리 경주김씨 상촌공파 ●●●

대박리의 경주김씨 상촌공파桑村公派는 고려 공민왕 때 충청도 관찰사를



대박리 초정약수를 받고 있다.

지낸 김자수(金自粹)를 파조로 한다. 대박리 입향조는 김경의(金敬義, 1350년대 인물)로 전해지는데 충북 영동에서 살다가 이곳 대박리로 왔다 한다. 후손에게 왜 이곳으로 왔을까를 질문하니, 그걸 알 수가 있냐며 웃는다. 하긴 그렇다. 나는 이래서 이곳에 와 살기 시작했다고 기록해 놓지 않은 이상, 그 이유를 어찌 알 수 있을까? 김경의의 묘소는 금남면 영대리 검암에 있으며 묘비가 있고 재실은 대박리에 있다.

일제 강점기인 1935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조선의 성』에서 대박리는 경주김씨가 42호 거주하는 동족마을로 보고하고 있다.



대박리 경주김씨 재실

대박리 진주유씨 북부령공파 ●●

대박리에는 진주유씨 북부령공파 유성징과 유기장의 묘소와 묘비가 있다. 유기장(柳夔章(1675~1750))은 자는 백해(伯諧), 호는 호봉(湖峰)이다. 아버지는 후릉참봉(厚陵參奉)을 지낸 유성징(柳星徵(1648~1707))이며, 어머니는 안동권씨 권필중(權必中)의 딸이다. 부인은 정랑(正郎)을 지낸 한산이씨 이정래(李禎來)의 딸과 전의이씨 이연기(李延基)의 딸이다. 유성징은 충경공(忠景公) 유형(柳珩)의 증손으로, 자는 휴경(休卿)이며, 벼슬은 참봉에 이르렀다.

유기장이 금남면 대박리로 들어오게 된 이유는 마을 이름을 듣고 그 뜻이 좋아 들어오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유기장과 연관된 진주유씨 북부령공파의 후손들은 옷말에 많이 살았었는데, 지금은 주로 금남면 영대리에 거주하고, 대박리에는 진주유씨가 살고 있지 않다. 유성징의 묘는 대박리 사곡에 남향으로 있으며, 유기장의 묘는 대박리 절골에 남향으로 있다.

대평리는 1914년에 공주군 양아리면의 대평리 상거리 하거리 고사동 등이 합쳐진 동리이다. 이들 지명이 『여지도서』에는 보이지 않고, 『호구총수』에도 ‘대평’만 보인다. 그런데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대평은 없지만, 상거리 하거리 고사동이 보인다. 『한국지명총람』에는 대평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대평리(구대평) 본래 공주군 양아리면의 지역으로서 큰 들, 곧 금강가의 마을이므로 대평리라 하고 1910년에 감성에 있던 시장을 이곳으로 옮기어 대평장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거리, 하거리, 고사동을 병합하여 대평리라 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되었는데, 1946년 큰 장마로 온 동네 360호가 모두 강으로 변하여, 그 이재민을 거의 용포리로 옮기는 동시에 시장도 자연 옮겨졌다. 현재 이곳에는 새로 지은 10여 호가 살고 있으므로 구대평이라 함.

앞서 감성리에서 언급했던 감성시장이 대평리(구대평)로 옮긴 시기가 『연기지』에는 1908년, 『한국지명총람』에서는 1910년이라 하여 다소 차이가 있다. 이 구대평의 시장도 1946년 수해로 인해 현재의 용포리 대평장으로



금남교 수십 년 동안 남면과 금남면을 이어준 다리

옮겼다.

대평리에는 금남교가 있다. 이 다리는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긴 후에 나무로 다리를 놓았다가, 1935년 철근 콘크리트로 고쳤으나, 6·25사변으로 파괴되고, 그 후 다시 건설하였다. 대평제방은 대평평야의 수해를 막기 위해 1933년에 쌓기 시작하여 7년만에 완성했다고 한다. 대평리에서 바라본 금강으로 돌아오는 돛단배 모습은 일제강점기에 새로 정해진 연기팔경의 하나였다. 참고로 『연기지』에 수록되어 있는 연기팔경燕岐八景은 ① 오봉산의 낙조五峰落照(서면 동리), ② 침산의 가을달砧山秋月(조치원읍의 서쪽), ③ 용당의 기암龍塘奇岩(동면 명학리), ④ 동진의 고기잡이 불 빛東津漁火(금강 상류), ⑤ 당산 봉우리에 아지랑이 개인 모습唐岬晴嵐(남면 연기리), ⑥ 비암사의 새벽 종소리碑岩曉鐘(전동면 다방리), ⑦ 고려의 오래된 성高麗古城(전의면 고동리), ⑧ 금강으로 돌아오는 돛단배錦江歸帆(금남면 대평리) 등이다.

도암리(道岩里)는 1973년 이전에는 공주군 반포면에 속한 지역이었다. 1914년에 공주군 반포면의 명암리(鳴巖里), 중촌리(中村里), 도암리와 행정리(杏亭里)의 일부, 유산리(柳山里)의 일부를 합쳐서 반포면 도암리라 하였으며,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하여 공주군 반포면에서 연기군 금남면으로 편입되었다. 『여지도서』 방리조에는 도암리와 관련된 명칭이 보이지 않는다.



조사대상 화순치씨 부정공파, 최기수, 화순치씨 참관공 재실, 호자 최덕렬 정려, 쌍정려

이는 행정동리명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호구총수』에는 공주목 반포면에 도암(道巖) 행정(杏亭) 유산소(柳山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행정리 유산리 명암리 중촌리 도암리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서는 마을의 지명 유래에 대해, 명암리는 바위에 구멍이 있어 소리를 지르면 울려 나오는 울바위(鳴巖)가 있고, 행정(행정리, 바깥말, 외촌)은 도암리 바깥쪽에 있는 마을로 은행나무가 있으며, 중촌리(중촌, 가운데 말)는 도암리 중앙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1914년에) 도동과 명암의 이름을 따서 도암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호구총수』에 이미 ‘도암’이라는 마을명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해석은 재고를 요한다고 생각



도암리 마을

된다. 도동은 돌이 많아서 ‘독골’이라 부르던 것이 도동이 되었다 한다.

도암교 아래를 흐르는 물은 계룡산 동학사 쪽에서 반포와 성강리를 지나 이곳을 흘러 용수천에서 금강과 만난다. 다리를 건너기 전 입구에는 ‘화순최씨 참판공재실’이라는 알림판이 서 있다. 이 재실은 1997년 문화재 자료 제357호로 지정되었다. 이곳은 모인당慕忍堂이라 불리며, 참판공 최한정과 그의 아들 최종운, 손자 최은의 제사를 모신다. 최은은 이 마을의 입향조이다.

다리 건너 보이는 넓은 들과 웅기종기 모여 있는 바로 보이는 집들이 마을의 전부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들어갔는데, 야트막한 산이 커튼처럼, 병풍처럼 자리하고 있는 뒤쪽을 돌아 들어가니 흰히 트인 포근한 모태 같

은 마을이 눈에 들어온다. 역시 무슨 명당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마을이
얇은 터가 정말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도암리 화순최씨 부정공파 ●●●

이 마을에는 전체 100여호가 살고 있는데 그 중 화순최씨和順崔氏는 60여
호나 된다. 화순최씨 마을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하다. 이 마을의 화
순최씨 입향조는 부정공파副正公派 직장공 최은崔垠(1400년대 후반)이라고 한다.
최은의 자는 자신子慎이다. 아버지는 도승지都丞旨를 지낸 최중온崔重溫이며
어머니는 남양홍씨南陽洪氏이다.

최은은 성종 조에 상서원 직장尙書院 直長을 지냈는데, 연산군 시절에 나
라에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벼슬을 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옛 훈계에 따
라, 벼슬을 버리고 회덕현懷德縣 목현木峴으로 낙향하여 살았다고 전해진다.
만년에는 계룡산 북쪽 정기 어린 장군봉 산하에 비옥한 넓은 들, 그리고
수려한 계룡천이 유유히 굽어 흐르고 있음을 보고, 이곳에 모인당慕忍堂을
세워 수도와 강학을 하면서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이곳에 터를 잡은 연
유에 대해 후손들은 도암리 뒤편의 산세가 화순최씨의 ‘崔최’자와 닮아 있
어서 이곳에 머물렀다는 말씀을 들었다고도 한다.

현재 도암리는 화순최씨의 집성촌이다. 화순최씨는 도암리 외에도 금남
면 성덕리, 신촌리, 금천리와 인근 공주군 반포면 봉암리 등에 많이 거주
하고 있다.

화순최씨의 주요 인물로는 인조의 공주과친 때에 인조를 도와 원종공신
原從功臣이 되었으며, 통훈대부通訓大夫로 장예원사평掌隸員司評을 지낸 최기수
崔杞秀가 있으며, 최석진崔錫晉의 처로 열녀포상을 받은 경주경씨慶州慶氏의
정려가 있다.

최은이 이곳에 와서 수도하면서 강학에 힘써 예의와 도덕이 잘 행하여

진다 하여 ‘도동’ 또는 ‘도곡道谷’으로 칭하여 왔는데, 오랜 세월을 전해오면서 도곡을 ‘도골’ 혹은 ‘독골’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최은의 배위는 보성오씨와 부안임씨가 있다. 보성오씨가 후사를 두지 못하고 돌아가자 다시 부안임씨와 혼인하여 후사를 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곳 도암리에 있는 최은의 묘소 아래쪽에 얼마 전까지 부안임씨의 묘소 1기가 있었다. 그 묘소는 오랫동안 최은의 장인이었다고 전해지다가 부안임씨 문중에서 파묘하여 이장했다고 하는데, 비석이나 족보 등 어떤 자료에서도 최은의 장인인 부안임씨의 묘를 최은의 산소 아래쪽에 모셨다는 기록은 찾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화순최씨는 문중 종손은 물론 방계손까지 많은 산과 재산을 가지고 있어 연기군 곳곳에 소유하고 있는 땅이 많다. 그로 인해 문중의 묘가 곳곳으로 흩어져 자리하게 되는데, 금천리, 발산리, 마암리 등에도 화순최씨 문중의 묘소가 있다. 많은 후손들 중에 가장 번창했던 시기는 최은의 15대손 최복명의 시기였다고 하며 복명의 묘소는 금천리에 있다.

도암리 최기수 ●●●

화순최씨 문중의 인물로는 인조의 공주과천 당시에 공훈을 세워 원종공신이 되었으며 통훈대부 장예원 사평掌隸院司評을 지낸 최기수가 주목된다. 최기수의 행적은 공주의 자료인 쌍수성남비문雙樹城南碑文, 공산읍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에는 이곳이 연기현이 아니고 공주목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최기수의 자는 여재汝材이다. 인조조에 통훈대부를 지냈다. 용모와 체격이 크고 훌륭한하였으며 성품과 도량이 너그럽고 넓어 언뜻 보기에는 엄하게 보이나 실제로는 온화하였다. 부모를 섬김에 효성을 다했고, 여러 동생에게는 우애 있게 지내니 항상 돈목敦睦하였다. 학문을 닦음에는 의리義理를 연구했고, 일을 처리함에는 일상생활에 지켜야 할 법도에 맞도

록 하였다. 일신의 행동은 맑고 검소하였으며, 사람을 대함에는 인정있게 하니 선비들이 존경하였다.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에 인조가 공주 쌍수산 성으로 피난하니, 이 말을 듣고 치를 떨고 눈물을 흘리며, '서울을 지키지 못하고 임금이 피난을 가시는 등 국가의 존망이 눈앞에 놓여있는 위급한 시기에 백성 된 자로서 어찌 평안히 앉아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하고 그날로 의병을 모집하여 전쟁터에 나아가 싸워서 국난을 구하겠다고 맹세 하였다. 이때 임금이 이 고을에서 인재를 구하고 있어서, 고을 목사 송흥주宋興周가 그를 천거하여 행재소의 임금 앞에 나아가니, 임금이 그를 보고 칭찬하며 통훈대부 장예원 사평에 임명하였다. 적이 패하여 물러나니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임금이 환궁한 뒤에 여러 차례 불렀으나 그는 말하기를 "국난이 이미 평정되었으니, 벼슬길보다 초야에 문혀 시문을 즐기니 낫다"하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 업적으로 원종공신이 되었다. 연기군 금남면 금천리 재동마을에 묘와 묘갈이 있다.

도암리 화순최씨 참판공 재실 ●●●

도암 1리 마을회관에서 남서쪽으로 약 300m 떨어진 구릉에 위치한다. 도암리의 화순최씨 입향조인 최은崔垠(1400년대 후반)과 그의 부친인 도승지 최중온崔重溫, 조부인 참판공 최한정崔漢禎(1427~1486), 최은의 아들인 최세계崔世溪의 제사를 모시는 곳이다. 재실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모인당」이라 쓰인 현판이 걸려 있으며, 내부에는 1856년(철종 7) 이원건李源健이 기록한 「모인당중건기」(68.7×33cm) 외에 1968년에 쓴 중수기와 이건기가 걸려 있다. 본래 모인당慕忍堂은 최은이 만년에 수도와 강학을 하면서 여생을 보냈던 곳으로, 1669년(현종 10)에 건립하였다. 중국 순임금의 업적을 사모한데서 나온 모慕자와 당나라 때 서로 참아가며 9대가 화목하게 한집에서 살았다는 장공예張公藝의 참을 인忍자를 취해 그 이름이



도암리 화순최씨 참판공 재실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현재의 모인당은 1928년에 1669년(현종 10) 원래의 모습대로 중건하여, 참판공 최한정(崔漢禎), 도승지 최중은, 직장공 최은 삼대의 향사를 봉행하는 재실로 사용하고 있다. 1997년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57호로 지정되었으며, 『송정 기원후 기유 삼월 초 일일 입주상량(崇禎 紀元後 己酉 三月初一日 立柱上樑)』이라고 쓴 상량문이 있다. 입향조 최은의 부친과 조부의 향사는 이곳에서 지내고 있지만, 묘소는 각각 다른 곳에 있다. 최은의 부친 최중은의 묘소는 회덕에 있다고 족보에 기록되어 있으나, 후손들도 묘소의 위치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조부 참판공 최한정과 증조부의 묘소는 민통선 안 장단마을에 모여져 있어 해마다 그곳으로 성묘를 가고 별초도 하며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도암리 효자 최덕렬 정려●●●

최덕렬(崔德烈)(1763~1835)은 효성과 우애가 남달라 어려서부터 부모를 정성껏 섬겼다. 9세 때에 모친이 병이 나자 정성껏 간호하였으며, 돌아가시려 하자 손을 베어 그 피를 드려 3일간 목숨을 연장시켰다. 본래 효행 실적비만 있었으나, 1996년 후손들이 마을회관 뒤쪽 잘 보이는 곳에 정려를 세워 놓았다. 정려는 정면 1칸, 측면 1칸이며, 맞배지붕이다.

도암리 쌍정려●●●

사평공의 장손 최석진의 처 경주경씨와 질손 완산이씨의 쌍정려가 성덕리에 있었는데, 관리소홀로 인하여 정려는 훼손되어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다. 두열녀의 열행을 살펴보면 경주경씨는 남편 최석진이 젊은 나이에 후사도 없이 요절하자 자결을 하려 하였다 처음에는 시부모가 말리고 노



도암리 회순최씨 효자 최덕열 정려

비에게 신병을 지키도록 했는데 노비가 없는 틈을 타서 기어이 남편을 따라갔다는 열녀이다. 완산이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일년동안 남편의 명복을 빌다가 첫해 기일이 되어 남편을 따라갔다고 한다. 두 여인의 열행을 조정에 올려 쌍으로 정려를 하사받았다.

두만리는 1914년 공주군 양야리면 두만리斗滿里와 산동山洞, 반포면 용포리龍浦里의 일부가 합쳐져 연기군 금남면 두만리가 되었다. 『여지도서』에서는 두만리와 관련된 지명을 찾을 수 없고, 『호구총수』에는 공주목 양야리면에 두만리, 산동 등이 자연촌락으로 보이며, 반포면에는 용포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양야리면의 두만리 산동과 함께 반포면 용포리가 보인다. 오늘날에도 두만리는 공주시 반포면과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지명총람』에서는 두만리(두메안, 두만)의 지명유래에 대해 산에 둘러 싸여 있으므로 두메안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두만이라 하였다고 설명한다. 두만리에는 원두만과 산골이 있다. 원두만은 두만의 원마을이고, 산골(산동)은 두만의 산속에 있는 마을이다.





2	1 두만정
1	2 두만정 현판

박산리는 1914년에 공주군 명탄면 박산리와 회덕군 구죽면 신동리의 일부가 합쳐져 연기군 금남면 박산리가 되었다. 박산리가 『여지도서』의 행정동리명에는 보이지 않고, 『호구총수』에 공주목 명탄면 박산소가 있는데, 이곳이 박산리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지명총람』에서는 박산리(朴山里(박산, 작약등)의 지명유래를 뒷산에 박 참판의 묘소가 있으므로 박산이라 하며, 또는 산모양이 작약과 같이 생겼다 하여 작약골이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박산리 마을입구

반곡리는 1914년에 공주군 명탄면 반곡리의 대부분이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가 되었다. 반곡리의 일부는 석삼리로 편입되었다. 『여지도서』에는 공주목 명탄면 반곡리가 공주목 고을 치소로부터 동쪽으로 47리의 거리에 위치한다고 하였으며, 1759년(己卯帳籍)의 편호가 36호이고, 인구는 남자 153명, 여자 148명으로 합계 301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반면에 『충청도읍지』에는 호수가 106호, 인구가 남자 155명, 여자 106명, 합계 261명으로 호수가 『여지도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곡리는 『호구총수』에도 동리명으로 등장한다. 아마 자연동리명과 행정동리명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지명총람』에서는 지형이 소반과 같으므로 반곡이라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곳에 반봉포란형(班鳳抱卵形)의 명당이 있다고 하였다. 반곡리는 주변을 둘러싼 산의 모양이 쌀을 이는 조랭이처럼 생겼고, 산 아래 형성된 마을은 그 조랭이의 가운데 부분으로 쌀이 모이는 부분이라 한다. 그래서인지 이 마을에서는 조선시대는 물론 현재까지도 국가의 요직에 진출하



조사대상 여양진씨 매호공파, 진시책, 열녀 김해김씨 정려



반곡리 마을 모습



사람들이 떠나간 흔적이 보이는 반곡리 마을이다.

는 소위 출세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사자들이 찾은 반곡리는 세종시 건설로 인하여 주민이 거의 다 이주하고 현재는 다섯 집만 남아 있었다. 이들도 이미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예전에 180여 호가 모여 살던 마을이라고는 전혀 상상이 가지 않았다.

육로 교통이 발달하기 전, 한국전쟁 이후까지도 금강을 건너 양화리로 가는 나루터가 있어서 앵청이나루라고 했으며, 이곳에는 앵소형(鶯巢形)의 명당이 있다고 한다. 마을 오른쪽 산비탈에서 푹푹 떨어지던 물을 약샘이라 불렀는데, 그 물은 옷오른 사람에게 특효를 보였다. 요즘은 신약이 잘 개발되어 이 물을 약으로 쓰는 사람이 없지만,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사진자료라도 남기고 싶어 안내를 부탁하니 사람이 가지 않은지 너무 오래되어 지금은 가는 길도 없고 풀이 무성해서 찾을 수도 없다고 하여 사진조차 찍을 수 없었다.

마을이야기를 하던 주민 중에 마을에 공적비를 세워야 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서 한국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회고한다. 어느 날 빨치산들이 마을 주민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 보리쌀 한 되를 자루에 담아서 새끼줄로 묶어 가져오라는 지령을 내리자, 마을주민들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으나 모두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데 마을 주민으로 당시 빨치산의 일원이었던 '김철식'씨가 사실을 눈치 채고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모두 달아나라고 소리쳐 한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살아있을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라며 지금은 고인이 된 사람의 공을 추억하였다.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애잔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대대로 조상의 숨결이 스며있던 소중한 땅을 떠난 마을 사람들의 심정을 마을에 처음 도착해서 받은 느낌만으로도 충분히 알 것 같았다. 또한 이 마을에서는 괴화산 산제를 3년 전까지도 매년 정성스럽게 지내왔는데, 이제 마을이 없어지면서 마을 사람들을 한마음으로 끌어 모았던 마을 고유의 문

화까지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매우 아쉬웠다.

반곡리 여양진씨 매호공파 ●●●

반곡리는 마을전체 가구 180호 중 80% 이상이 여양진씨 매호공파가 살았던 ‘여양진씨 매호공파’의 집성촌이었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인 1935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조선의 성』에서도 반곡리를 여양진씨가 87호나 거주하는 동족마을로 보고하고 있다.

반곡리 여양진씨 驪陽陳氏의 시조는 고려 인종 때의 명장 진충후 陳寵厚이다. 진충후는 이자겸의 난에 공을 세우고 여양군 驪陽君에 봉해짐으로서 여양진씨의 시조가 되었다. 후손들은 선대가 원래 중국 사람이었다고 하기에, 자료를 찾아보니 ‘송나라 때 우윤 右尹의 벼슬을 지낸 수琇가 고려에 귀화하여 여양현 덕양산 德陽山 아래에 은거한 것이 한국 진씨의 효시이다.’라는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여양은 현재의 홍성이다. 금남면 반곡리 여양진씨는 이중 매호공파 梅湖公派로 한림학사를 지낸 진화 陳華를 파조로 한다.

여양진씨 매호공파의 반곡리 입향조는 시조 진충후의 13세손인 진한번 陳韓蕃(생몰년 미상)으로 사헌부 감찰 司憲府監察을 지냈다. 진한번이 금남면 반곡리에 입향한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김한로의 난 때 이곳으로 피난을 왔다는 것만 전해지고 있으니 14세기 후반의 일이다. 진한번이 입향했을 때 이 마을에는 결성장씨와 창녕성씨가 살고 있었으나 비만 오면 범람하는 마을에서 살수가 없다고 동면과 달전리로 옮겨가고, 그 후 진한번이 들어왔다고 후손들은 전한다. 그의 묘소와 묘비가 금남면 반곡리 뒷산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세종시 개발로 인하여 부여 세도면으로 옮긴 상태이다.

이 마을 출신의 여양진씨는 대대로 출세한 인물이 많다고 한다. 후손들은 조선 고종 때의 인물 진시책을 비롯하여 제헌국회 의원이었던 진현식,

의학박사 진동식, 육군대령 진창식, 캐나다 대사 진필식, 그리고 일제 때 독립운동하다가 순직한 진회현의 처 열녀 김해김씨 등을 거론한다.

이곳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 이유가 혹시 명당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물어보니, 후손들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 중에 반곡리는 땅 팔아서 자식한테 투자하고, 석교리는 돈 벌어서 땅에 투자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식들 가르치는 일에 열심이었으니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겠느냐고 대답한다. 효자는 부모가 만든다는 말과 함께 명당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반곡리 진시책 ●●●

진시책(陳時策)(1831~1906)은 문학과 덕행이 있어 고종으로부터 음관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거절하고 은거하였다. 고종이 거사(居士)라 칭하고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를 주었다. 그의 행적은 금고실기(今古實記)에 실려 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나 경서(經書)와 사기(史記)에 능통하였고, 역학(易學)에 더욱 통달하여 당시 사람들이 ‘동방(東方)의 석학(碩學)’이라고 격찬을 했다고 한다. 한말에 국운이 기울자 당시 판서인 서상우(徐相雨)가 적극 추천하여 1901년(광무 5)에 고종이 그를 불러 치하하고 가선대부의 품계를 내렸으며, 그가 죽자 장례에 사용할 촛불과 돛자리를 하사했다고 한다. 1921년에 마을입구에 유허비(遺墟碑)를 세워 덕행을 기려왔으나, 역시 세종시 건설로 인하여 옮겨야할 상황이 되자, 후손이 부여로 옮긴 듯 하다. 옮기기 전의 유허비는 옥개형의 이수(水)를 갖추었고 비의 전체높이는 225cm에 달하였다. 방형의 대좌는 일부가 땅속에 묻혀있는 상태였고, 비의 측면과 후면에도 비문이 있으나 풍화로 인해 육안식별이 어려운 상태였다.



◀ 진시책유허비 전면 오랜 풍화로 비문이 마모되어 판독이 어렵다. 현재는 후손에 의해 옮겨진 상태다.
▶ 진시책유허비 후면



반곡리 김해김씨 정려

반곡리 열녀 김해김씨 정려 ●●●

진회현의 부인 김해김씨는 1917년 진회현陳會顯에게 출가하였다. 가난한 집안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여러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남편이 부강장에서 장꾼들과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목숨을 잃으니, 18세의 나이에 청상과부가 되었다. 이후 김씨는 어린 유복자를 훌륭하게 키웠고, 후손들이 정려를 건립하여 열행을 기린 것이다. 정려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정렬지문貞烈之門이라는 현판을 걸고 내부에는 김해김씨열행비(1987년 李載現 찬)를 세워놓았다. 반곡리 마을 초입부 동향사면 야산구릉에 동향하여 위치하고 있다. 1987년에 세워졌으며, 연기군 향토유적 제29호로 지정되어 있다.



진회현과 김해김씨의 합장묘비 묘가 이전해 가면서 묘비는 정려 옆으로 놓아 두었다

금남면 발산리



조사대상 신천강씨 발산파, 호자 강협 정려

발산리鉢山里는 1914년에 공주군 양야리면의 점촌店村 중발리中鉢里 흥룡동興龍洞과 가동佳洞의 일부가 합쳐져 연기군 금남면 발산리가 되었다. 그런데 발산리는 『여지도서』의 공주목 양야리면 행정동리에서도 확인된다. 공주목 치소에서부터 동쪽으로 40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759년(己卯帳籍)의 편호가 70호, 인구가 남자 122명, 여자 126명으로 합계 248명이었다. 그러나 『충청도읍지』에서는 발산리가 공주목 치소로부터 동쪽으로 44리에 위치하며, 호구는 호수가 94호, 인구는 남자 120명, 여자 90명,

합계 210명으로 『여지도서』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호구총수』에서는 발산리가 보이지 않고, 대신 중발산, 하발산, 상발산으로 나뉘어 수록되어 있다. 이는 『호구총수』가 읍지의 행정동리명과는 달리 자연촌락명을 수록하였기 때문인데, 발산리는 조선후기에 이미 자연촌락으로 는 상·중·하로 나뉠 만큼 성장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선후기 행정동리명 발산리의 범위가 오늘날의 발산리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었다.



발산리 전경

이 발산리(바리미, 발산)의 지명유래에 대해 『한국지명총람』에서는 마을 서쪽의 산이 주말을 덮어놓은 형국이라 하여 바리미, 또는 발산이라 한다 하였다. 발鉢은 출가자가 이용하는 식기인 바리때를 일컫기도 하고[산스크리트의 파트라(patra)의 음새, 사발沙鉢, 즉 사기로 만든 국그릇이나 밥그릇을 일컫기도 한다.

발산리 신천강씨 발산파 ●●●

금남면 발산리의 신천강씨는 발산파다. 신천강씨(信川康氏)의 증시조 충렬공(忠烈公) 강지연(康之淵)은 몽고의 침입 당시 고종을 호종하여 호종공신(扈從功臣)이 되었으며, 신성부원군(信城府院君)(신성은 신천의 옛 이름)에 봉해졌다. 발산리는 조선태조 이성계의 왕비였던 신덕왕후의 동생인 강순용의 후손들이 자리를 잡아 500여년을 살아오고 있는 마을이다. 일제 강점기인 1935년에 조



발산리 신천강씨 족보

선충독부에서 조사한 『조선의 성』에서는 발산리를 신천강씨가 40호 거주하는 동족마을로 보고하고 있다.

신천강씨 발산파의 발산리 입향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다. 먼저 강진경(康晉卿, 1400년대 중반 인물)을 입향조로 보는 견해이다. 강진경은 병절교위(秉節校尉) 충무위부사정(忠

武衛副司正)을 지냈다. 그러나 예종 때 남이(南怡)장군의 역모에 당시 영의정(領議政)이었던 사촌 강순(康純, 1390~1498)이 연루되어 무고하게 참형되는 것을 보고 화를 입을 것을 염려하여 공주 계룡산에 피신하였다가 금남면 발산리로 거처를 옮겼다. 강진경이 이곳으로 입향 하기 전에 이곳에 어떤 성씨가 살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후 강진경이 평양조씨와 혼인한 것으로 보아 평양조씨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 건국 후 태조의 왕비였던 신덕황후(神德皇后)를 태종 이방원이 탄압하면서 신천강씨들이 흩어졌고, 그 중에 일부가 발산리에 자리잡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 경우 강세운(康世雲)을 입향조로 본다. 그러나 그의 행적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그의 배위가 공주의 유력한 사족가문이었던 공산이씨이고, 아들인 강이(康儼)가 호서 학맥의 연원이라 추앙받는 사계 김장생과 고창 서기, 중봉 조현의 문인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강이를 비롯한 신천강씨 일족은 발산리에서 가까운 공주의 충현서원을 드나들며 발산리와 용포리 등 인근 지역에서 점차 영향력 있는 가문으로 성장했을 것이다. 특히 효자 강협의 증조부 강시진(康時進)은 충현서원 창건시 사람들에 의하여 원장에 추대되었던 인물이다. 현재 금남면 발산리



발산리 신천강씨 재실



발산리 신천강씨 입향조 묘

근방에 거주하고 있는 신천강씨 발산파는 남면 고정리에도 거주하고 있다.

이번의 조사를 통해서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강순과 강진경은 사촌이 아니라 8촌간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후손들은 발산파의 입향조를 강세운이 아니라, 강진경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강진경의 묘와 묘갈은 쑥티 강당골에 있다. 묘소 아래에는 재실이 있는데, 재실에는 관리인이 살고 있다. 묘소는 전월산을 바라보는 북향으로 부인과 상하로 잠들어 있다. 예전의 비갈과 함께 새로운 비석을 세우고 옛 석물들도 매안하지 않고 함께 세웠다. 그중 작은 문인석은 서로 모양이 달랐는데 그 이유는 하나를 누군가가 훔쳐가 버려서 새로 세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천강씨 발산파의 족보를 보면, 이름에 향렬을 따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후손들은 그 이유를 역적이 되어 피난하며 숨어사는 처지여서 제대로 이름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효행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강협(康協, 1674~1750)과 강두수(康斗洙, 1874~1926), 그리고 강석일(康錫一)의 처 진주정씨(晉州鄭氏)가 이 마을에서 배출되었다.

발산리 효자 강협 정려 ●●●

발산리 상말 마을 안쪽 길가에 남서향으로 효자 강협 정려가 위치하고 있다. 정려는 1905년(광무 9)에 건립되었다.

강협(姜協, 1674~1750)의 자는 자경(子慶), 호는 양포(陽圃)이다. 충원서원 창건시 원장으로 추대된 강시진의 증손으로, 강후돈(康厚敦)의 넷째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효행이 지극하여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었고, 마음씨가 어질고 착했다. 어린 나이에 매일같이 부모님의 잠자리를 돌봐 드렸고, 아침에도 문안인사를 드리는 등 그의 효성에 주위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다고 한다. 나이 13살이 되던 해에 부친이 사망하자, 화사동(花寺洞) 골짜기에 장례를 치르고 3년간 시묘살이를 했는데, 옷도 갈아입지 않고 굶주림에 시달



발산리 강협 정려

려 겨우 목숨만 유지할 정도였다고 한다. 학문도 뛰어나 어린 시절부터 윤_윤자의 뜻을 캐물었다고 한다. 공부하기를 좋아하였으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시골에서 검소하게 살았으며, 만년에는 일가 친척의 아이들을 모아 놓고 충과 효를 가르쳤다.

강협의 효자 정려는 그가 사망한지 150여년이 지난 후에 장예경_{掌禮卿} 조정희_{趙定熙}와 진사 장철상_{張喆相} 등의 발론으로 1905년 현 위치에 세우게 되었다. 이때 문중에서는 6대손 강래하_{康來夏}(1864~1931)가 주도하였다. 강래하는 1926년에 연기향교의 전교로 활동하였다. 금남면 지역이 1914년에 공주에서 연기로 편입한 후이므로, 이 시기는 공주향교가 아닌 연기향교를 출입하고 있었다. 조정희나 장철상이 신천강씨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아마 공주 유림이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단정 짓기에는 자료가 미흡하다.

한편, 1982년에 발간된 『한국명현유적대관』의 효자 강협 정려 사진에 의하면 정려 주변에 돌로 쌓은 담장이 둘러져 있고 솟을대문이 있었다, 그러나 몇 차례의 보수 끝에 담장 및 문을 없애고 낮은 철책鐵柵을 들렀으며, 비석을 만들어 정려각 내부 중앙에 세웠고, 정려기도 비석에 새겨 정려각 앞에 세워 놓았다. 최근에는 1996년부터 1997년 사이에 보수가 이루어졌다.

정려는 정·측면 1칸의 건물로 겹처마에 맞배지붕을 하고 있다. 화강석재를 가공한 8각형의 초석 위에 둥근 나무기둥을 올렸으며, 양측면의 박공 밑에는 방풍판을 설치하였다. 정려 내부의 중앙상단에는 명정현판이 걸려 있고 중앙 바닥에는 비석이 서 있는데, 현판에는 ‘효자신천강협지려 孝子信川姜協之閭’라고 쓰여 있다. 정려 내부 중앙에도 ‘효자신천강협지려’라고 새겨진 비석을 새로 만들어 세워두었다.

봉기리鳳起里는 1914년에 공주군 명탄면 봉기동의 일부와 반곡리의 일부가 합쳐져서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가 되었다. 봉기동리와 반곡리는 모두 『여지도서』의 공주목 명탄면에 등장하는 행정동리명이다.

봉기동리鳳起洞里는 공주목 치소로부터 동북방향으로 50리에 위치하며, 1759년기묘장적리卯帳籍의 편호가 158호, 인구는 남자 253명, 여자 236명, 합계 489명으로 명탄면에서 가장 큰 행정동리였다. 반곡리盤谷里

는 동쪽으로 47리에 위치하며, 1759년의 편호가 36호, 인구는 남자 153명, 여자 148명, 합계 301명이었다.

한편, 『충청도읍지』에는 봉기동리가 동 50리에 위치하고, 호수가 128호, 인구가 남자 253명, 여자 162명, 합계 415명이며, 반곡리가 동 47리에 위치하고, 호수가 106호, 인구가 남자 155명, 여자 106명, 합계 261명으로 『여지도서』와 차이가 있다. 봉기동리의 호수와 인구수는 준 반면에 반곡리의 호수와 인구수는 대폭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연인구변동일 수도 있으나, 행정동리명의 편제가 달라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조사대상 양천허씨 덕천공파



봉기리 마을입구

자연촌락의 명칭을 보여주는 『호구총수』에도 봉기동과 반곡리의 명칭은 그대로 등장한다. 이 마을이름은 자연촌락명으로도 사용되고, 주위의 다른 자연촌락을 합쳐 관에서 인위적으로 편제한 행정동리명에도 그대로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봉기동과 반곡리는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도 공주군 명탄면에 실려 있다. 『한국지명총람』에서는 봉기리(봉기, 사려울, 새여울)의 지명유래를 뒷산에 비봉귀소형(飛鳳歸巢形)의 명당이 있다 하며, 또 앞에 여울이 있으므로 새여울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사려울, 또는 봉기라 한다고 하였다.

봉기리에는 삼성들, 허무니고개, 새나루 등의 유래를 간직하고 있는 지명이 있다. 삼성들은 사려울 앞에 있는 들로, 옛날에 이곳에서 이, 최, 정 씨의 세 성이 살았다고도 하고, 세 곳에서 흘러와 합쳐진 물길에서 온 말이라고도 한다.

‘허무니고개’는 자린고비 영감집에 왕파리가 날아와 된장위에 앉았다가 날아가는데 파리다리에 묻은 된장이 아까워서 행주를 들고 쫓아가던 영감이 이 고개에서 파리를 놓치고 쫓아온 것이 허무해서 그리 불리게 되었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허씨들이 많이 살아서 지어진 고개이름이라는 견해도 있다.

금강의 동편에 위치한 봉기리에는 나무도 있었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교통수단이었던 나무의 이름은 고이나루, 고이뱅이나루이다. 봉기리에서 남면 양화리로 건너가는 나무로, 지형이 고양이 모양으로 되었다 하며, 그 후 나무터의 위치가 변하여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갔으므로, 새나무라고 했다.

봉기리 양천허씨 덕천공파 ●●●

2003년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봉기리의 양천허씨는 덕천공파로 봉기리 전체 100호가 가운데 37호가 거주하고 있으며, 입향조는 허징이라 한다. 그러나 8년 만에 찾아간 봉기리에는 인구도 많이 줄었고, 남아 있는 주민들도 세종시 건설로 인하여 이주를 하기로 되어있는 마을이었다.

양천허씨는 초당공파, 청산공파, 승지공파가 있다. 봉기리 덕천공파는 청산공 허주許晷의 후손들이다. 허주(1586~1656)는 양천허씨 22세 손으로 지는 여회汝晦, 호는 비천泌川이다. 죽보에서는 청산현감靑山縣監에 제수되었으나, 벼슬에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한다. 청산공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봉기리에 입향하는 덕천

봉기리 양천허씨의 유래 김해김씨, 양천허씨, 인천이씨의 뿌리는 하나라는 내용이다.



공 허징許澄은 바로 이 허주의 증손자이다. 허징이 덕천현감을 지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덕천공파라 부른다. 입향조 허징의 입향 연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허징이 이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는 최씨가 살았다고 전해오며 재실이 있다. 승지공파는 이웃마을인 부용리에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다.

부용리는 1914년에 공주군 명탄면 초오개동 부용리와 봉기동의 일부가 합쳐져 연기군 금남면 부용리가 되었다. 『여지도서』에 공주목 명탄면에는 초오포리草塢浦里가 공주목 치소로부터 동북 45리에 위치한다고 했는데, 이 초오포리가 초오개동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1759년(己卯帳籍)의 초오포리 편호는 94호이고, 인구는 남자 106명, 여자 98명, 합계 204명으로 되어 있다. 『충청도읍지』에는 101호, 남자 136명, 여자 101명, 합계 237명으로 호구수가 증가하고 있다. 초오포는 『호구총수』에도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자연촌락명이 그대로 주위의 마을을 포함한 행정편제의 동리명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부용리는 『여지도서』 등의 읍지와 『호구총수』에 모두 그 명칭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초오개동, 부용리美蓆里, 봉기동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서는 부용리에 대해 마을 뒤에 부용봉이 있으므로 부용리라고 설명한다. 또한 부용봉美蓆峯은 연꽃이 물에 뜬 형국의 명당이 있다고 하며, 부용리의 원 마을은 원부용이라고 했다. 새오개 마을에서 봉기



조사대상 밀양박씨 규정공파



부용리 마을 입구

리로 넘어가는 고개가 새오개이고, 이 새오개 동쪽에 있는 마을도 새오개(초오개)이며, 새오개에서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원촌리로 건너가는 나무가 새오개나무다. 그렇다면 조선후기 읍지와 『호구총수』의 초오포는 바로 이 새오개 나무의 한자표기였을 것이다.

부용리에는 옛날부터 지명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온다. 부용리는 연꽃이 물위에 떠있는 형국이라 돌이 있으면 무거워서 물위에 떠 있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예전부터 묘를 써도 상석이나 비석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인동장씨가 이 마을과 시돈을 맺은 인연으로 마을에 묘를 쓰면서, 비석과 상석을 세우고 돌아가던 중, 배가 뒤집혀 모두 죽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 일로 인해 인동장씨의 묘소에 세웠던 상석들이 내팽겨 쳐져 지금까지도 풀 썩에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 구술하는 분께 그때가 언제인지 물었으나,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언제인지는 모

른다고 대답했다.

부용리 밀양박씨 규정공파 ●●●

밀양박씨는 신라 시조 박혁거세를 시조로 하며, 규정공(糾正公)은 혁거세의 45세손 '현(鉉)'이다. 바로 이 규정공의 17세손 '동온(東溫)'이 부용리의 밀양박씨 입향조이니, 혁거세로부터는 62세손이다. 족보에서 확인한 바, '동온'은 1707년~1772년의 인물이다. 부인은 인천채씨이고 묘소는 새오개 세동에 위치한다. 조부의 묘는 청원군 강서면 수의리에 있으니, 이곳에 오기 전에는 청원군 강서면 수의리 근처에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동온의 부친 묘소가 동온과 함께 새오개 세동에 있는데, 이곳으로 옮겨와서 살다가 묻힌 것인지, 아니면 사후에 묘만 이곳에 축조된 것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후손의 증언으로는 동온이 처음 이 마을에 입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일제 강점기인 1935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조선의 성』에서는 부용리를 밀양박씨가 23호 거주하는 동족마을로 보고하고 있다.

금남면 석교리



조사대상 전주이씨 돌산부정파, 청송심씨 인수우윤공파

석교리石橋里는 1914년에 공주군 명탄면 석교리가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가 되었다.

『여지도서』에는 공주목 명탄면에 석교리가 수록되어 있는데, 공주목 고을 치소로부터 동쪽으로 50리 되는 위치에 있다. 1759년(己卯帳籍)의 편호가 100호, 인구는 남자가 200명, 여자가 154명으로 함께 354명이었다. 『충청도읍지』에는 200호에 남자가 230명, 여자가 190

명, 함께 420명으로 호수와 인구수가 대폭 증가되어 있다. 석교리는 『호구총수』에도 그 이름이 보인다. 아마 자연촌락명과 행정동리명으로 함께 사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석교리는 마을 입구를 흐르는 삼성천에 돌로 놓은 다리가 있었으므로 돌다리, 또는 석교라 한테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즉 돌다리[石橋]는 다리 이름으로도 사용되고, 마을 이름으로도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다리는 이미 오래전에 물 속에 묻혀서 더 이상은 찾아볼 수 없다.

석교리는 세종시 건설로 옛 마을 전체가 사라지고 새로운 마을이 조성될 계획이다. 석교리의 주민들은 아직 1/3정도는 그대로 살고 있었다. 언젠가는 떠날 것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 마을이라 마을 전체의 분위기는 약



석교리 청송삼씨와 전주이씨가 살아왔던 마을이다.



석교리 고인돌

간 어두웠다. 석교리는 오래전부터 깃잎을 농사지어 소금에 절여서 팔아 번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자식들을 가르쳐온 마을이라 한다.

이 마을에는 터줏대감처럼 전주이씨와 청송심씨가 대를 이어 살아왔다. 전주이씨는 예전의 조사에 누락되어 있었다. 석교리 대부분의 주민이 전주이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석교리의 터줏대감은 '청송심씨'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전주이씨가 이 마을에 먼저 들어왔고, 이어서 청송심씨가 들어와 함께 살아 온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석교리는 8년전 조사에서 60호 정도가 살았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100여 호가 사는 작지 않은 규모의 마을이었다고 한다. 또한 그 당시에 전주이씨가 70호 정도였다니 마을에서 전주이씨의 비중을 짐작할 만하다. 석교리에 현재 남아있는 주민의 가구 수는 40호이고, 이 가운데 전주이씨가 15호, 청송심씨가 8호 정도이다. 이미 이주한 사람들은 다른 마을처럼 가까운 대평리로 가장 많이 가고, 그 외에는 대전과 공주, 계룡시 등으로 옮겼다고 한다. 석교리가 일제 강점기인 1935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조선의 성』에서는 전주이씨가 39호 거주하는 동족마을로 보고되어 있다.

석교리 전주이씨 돌산부정과

돌산부정과(突山副正派)는 조선초기 태종 이방원의 큰아들인 양녕대군의 아들 광석(廣石)을 파조로 한다. 그 돌산부정의 6세손 후성(後晟)이 이 마을의 입향조이다. 후손들은 조상들로부터 입향조라고 들어왔다고 증언하며, 묘소 또한 동면 합강리 황우산 와우형의 명당에 있으니 어느 정도 신뢰가 간다. 더군다나 입향조 후성의 둘째아들 만수(晩秀)의 호가 금음(鏞陰)이었다. 산의 남쪽 물의 북쪽이 양이요, 산의 북쪽 물의 남쪽이 음이니, 금음이야말로 금강의 남쪽을 가리킨다. 호를 금음이라고 사용할 정도였다면, 이미 이곳에서 태어났거나 이 지역 사람이라는 강한 의식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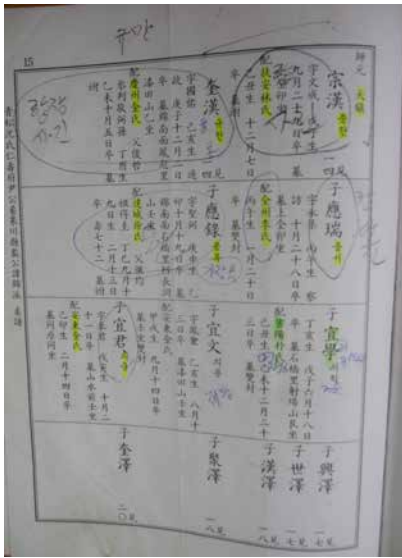
렇다면 금음 이만수의 아버지인 이후성을 이 지역의 입향조로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입향 연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후손들은 '전주이씨는 낮에 들어오셨고 청송심씨는 밤에 들어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 왔다고 한다. 전주이씨 돌산부정과 입향조로 여겨지는 이후성이 태어난 해는 족보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죽은 해는 신미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691년(숙종 17)으로 추정된다. 배위로 단양우씨와 청송심씨가 있는데, 단양우씨에게서는 후손이 없고 청송심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큰 아들 만방은 1660년생이고 작은 아들 만수는 1663년생이다. 만방의 후손은 손자에서 끊어지고, 지금의 후손들은 모두 만수로부터 이어진 것이다.

정리해 보면, 석교리에 살고 있는 전주이씨는 양녕대군의 아들 돌산부정을 파조로 하는 돌산부정의 6세손 후성이 석교리에 17세기 중반쯤 입향했으며, 후성의 둘째아들 만수가 대를 이었고, 그 후손들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인 이국한(마을 이장)씨는 살던 집을 1995년에 새로 지었는데, 안채의 상량문에서 '道光 七年'이라는 명문이 나왔다고 한다. 도광 7년은 순조 27년 정해년, 즉 1827년이다. 당시에는 그 상량문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밖에 쌓아두었다는데 오랜 세월 비바람에 모두 썩어버렸다고 한다.

석교리 청송심씨 인수우윤공파 ●●●

예전의 조사에서 석교리에는 청송심씨 인수우윤공파가 전체 60호중 15호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입향조 심익도(1769~1794)는 1642년에 생원시와 진사시 양과에 입격한 심지치(沈之治(1607~))의 아들로 어머니는 밀양박씨이다. 사마방목에서도 심지치는 1642년(인조 20)에 생원시와 진사시 양과에 입격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당시의 거주지는 서울(京)로 기록되어 있



석교리 청송심씨 족보 조상들의 뿌리와 행적을 찾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석교리 청송심씨 영세불망비 석교리 마을입구에 세워져 있다.

다. 후손들은 경기도 용인에서 살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한다. 부친의 묘소가 용인 무곡리에 있었으니, 가족이 함께 왔다기보다는 심익도 혼자 왔을 가능성이 크다. 처가도 이웃마을 황룡리였으며, 25세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 처가의 산에 묻혔다고 한다. 황룡리 산 41번지에 심익도의 묘소와 표석이 있다.

한편, 직계조상은 아니지만 장재리 방앗간 앞에 서 있던 청송심씨의 영세불망비가 석교리 마을 입구로 옮겨져 있었는데, 이 또한 머지않아 부여로 후손들이 옮겨갈 계획이라고 한다. '영세불망비'는 후손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자리에 위치하며 지역주민들이 관리해야 마땅할 터인데, 아쉬움이 컸다.

석삼리는 1914년에 공주군 명탄면 석삼동의 일부와 반곡리의 일부가 합쳐져서 연기군 금남면 석삼리가 되었다. 석삼동은 『여지도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호구총수』의 자연촌락명칭에는 공주목 명탄면에 반곡리와 석삼동石三洞이 모두 보인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도 반곡리와 석삼동이 실려 있다. 석삼동은 마을 앞에 돌로 만든 장승 셋이 있으므로, 돌삼골, 또는 석삼이라 한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석삼리 발굴현장1 이곳에선 원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묘지와 집터가 발굴되었다.



석삼리 발굴현장2 꽤나 큰 규모의 집터가 있다.

성덕리는 1914년에 공주군 반포면 동오리 한삼동 성덕동이 합쳐져 공주군 반포면 성덕리가 되었고,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하여 공주군 반포면에서 연기군 금남면으로 편입되었다. 성덕리와 관련된 지명을 『여지도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호구총수』에는 반포면에 동오리東五里 한삼동汗三洞이 있으며,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공주군 반포면에 동오리東五里, 석덕동聖德洞, 한삼동汗三洞이 보인다.

자연촌락 명칭인 동오리는 ‘동호리’라고도 불리운다. 한삼 북쪽에 있는 마을로, 계룡천이 마을 앞을 흘렀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 마을 앞 제방을 쌓기 전까지는 금강의 물이 마을 동쪽 앞까지 들어와서 넓은 호수와 같은 풍경이 펼쳐져 불리게 된 이름이라고 한다. 현재는 제방으로 인하여 금강과 용수천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만, 그 이름은 자연촌락명으로 전하고 있다.

제방을 쌓은 것은 일본사람들이고, 1930년부터 시작하여 10여년 걸러 1940년에 완성되었다. 일제 수탈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조사대상 남양홍씨 문정공파, 화순최씨 부정공파, 열녀 경주 경씨 · 완산이씨 쌍정려 터, 성덕보통학교, 심오개 다리

주민들은 제방이 완성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이 생겨서 마을의 소득에 한 몫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 마을 입구에는 예전부터 도깨비 둥멍이라 불리던 둥멍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안내해준 화순최씨 후손은 도깨비 둥멍이라는 말이 어떻게 하여 생기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둥멍이 ‘개바위 둥멍’이라고 정정한다. 개바위 둥멍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옛날 그 둥멍에서 어떤 사람이 빠져 죽었는데, 그 사람이 키우던 개가 그곳에서 자리를 지키며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주인을 기다리다 죽었다 한다. 그 후 그 개가 앉아있던 바위가 둥멍 옆에 있어서 ‘개바위 둥멍’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그 바위는 도로 확장으로 인해 길속에 묻혀 버리고, 둥멍이 있는 길옆에 커다란 버드나무 한그루가 그 자리를 기억이라도 하듯 지키고 있었다.

성덕리 남양홍씨 문정공파 ●●●

금남면 성덕 2리에는 남양홍씨南陽洪氏 문정공파文正公派가 살고 있다. 예전의 조사에서는 마을 전체 45호 중 16호가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후손의 전언에 의하면, 입향조는 홍인성洪仁成(1500년대)으로 지금으로부터 450여 년 전에 남양에 거주하다가 한삼으로 입향했다. 자세한 입향 유래나 정확한 연대는 전해지지 않는다. 홍인성의 묘는 성덕리 뒷산에 위치한다. 후손으로는 절충장군折衝將軍을 지낸 홍관연洪觀淵과 내부주사內部主事를 지낸 홍정식洪正植 등이 있다.

성덕리 화순최씨 부정공파 ●●●

성덕리에는 이웃 마을인 도암리의 입향조 화순최씨의 후손들이 살고 있



성덕리 화순최씨 입향조 최필준의 묘



최필준 묘의 옛 석물

다. 성덕리 입향조는 도암리 화순최씨 참판공의 16세손 최필준이다. 최필준(崔必俊(1622~))의 성덕리 입향 시기와 입향 사유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족보에서 확인한 그의 생년에 비추어 볼 때, 늦어도 17세기 중반 이전에 입향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필준의 묘는 성덕리 산18번지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2009년에 후손들이 납골묘를 새로 조성하여 22위의 조상이 함께 봉안되어 있었다. 납골묘 옆에는 입향조 최필준의 옛 묘비와 문인석, 상석 등을 그대로 옮겨 보관하고 있었다.

처음 세워졌던 옛 묘비에는 '학생(學生) 최공 휘 필준지묘'라 쓰여 있는데, 새로 세운 납골묘의 묘비문은 '통덕랑(通德郎) 화순최씨 휘 필준지묘'라고 바뀌어 있다. 아마 비문을 쓰는데 착오가 있었거나, 아니면 사후에 통덕랑이라는 벼슬을 하사 받은 것 같다.

묘지 아래로는 재실을 두어 그곳에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다. 입향조 필준의 후손으로 현재 종손은 이 마을에 살고 있지 않으며, 제사 또한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들이 이어가고 있었다.

성덕리 열녀 경주경씨 · 완산이씨 쌍정려 터 ●●●

도암리에서 언급한 최기수의 장손부 경주경씨와 방계 증손부 완산이씨의 쌍정려가 있었다는 자리를 성덕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열녀 최석진(崔錫晉)의 처 경주경씨(慶州慶氏)는 남편이 죽자 따라 죽고자 하여 시부모가 없는 틈에 자결했다고 한다. 이러한 열행이 알려져 송규렴(宋奎廉(1630~1709))이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한 1708년(숙종 34)에 정려포상을 받았다. 한국전쟁을 치르고도 보존되어 있던 정려는 그 후 소실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후손들이 정려의 중요성을 알고 복원하려 했으나, 땅의 소유주가 충주박씨여서 복원하지 못하고, 그나마 현재는 그 자리에 충주박씨의 합장묘가 들어서 있었다. 처음부터 왜 남의 땅에 정려를 세웠는지 궁금했는데, 그곳



성덕리 회순치씨 쌍정려 터

은 마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큰길이라 그곳에 정려를 세워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려가 사라지고 난 지금은 산의 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으니 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예전에 걸려 있던 정려현관은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성덕리 성덕보통학교 ●●●

성덕보통학교는 일제 강점기에 세워진 사립학교였다. 설립자 심재승 선생은 1933년 24세의 젊은 나이에 전 재산을 털어 성덕학원을 세우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을 가르쳐 문맹퇴치에 온 심혈을 기울였다. 이에 감동한 이웃동네 주민 강기선씨가 거액의 기금과 함께 동참하여 1937년에는 ‘(사립)성덕보통학교’로 승격되었다. 일제의 눈을 피해 우리나라의 글



성덕보통학교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사립학교였다. 현재는 국제 온누리교회 신학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심재승 선생 공적비 성덕보통학교를 설립한 심재승 선생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과 국사를 가르치니 학생들은 독립정신이 고무되었다. 그러나 결국 일제가 눈치를 채고 학교를 빼앗기에 이른다. 보통학교로 승격된 지 6년 만에 일제는 이 학교를 억지로 빼앗아 공립학교로 만들어 버렸다.

심재승 선생은 학교를 빼앗겼지만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근심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한이 되었고, 마침내 한은 병으로 깊어져 몸을 약하게 만들었으니, 1944년 2월 10일 3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당시 식자들은 겨레의 별이 졌다하며 통곡했고, 산천초목 또한 함께 울었다고 한다.

그리고 일 년 후 일제는 물러가고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다.

그 후 공립학교로 많은 인재들을 길러냈지만 선생께서 지으셨던 목조건물은 낡아서 지탱하기 어렵던 차에 제15대 송조영 교장이 당국의 지원을 받아 1985년 11월 2층의 현대식 건물로 수리한다. 송교장은 심재승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일깨워 어린이들에게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학교를 지역의 구심점으로 삼아 주민들의 일치단결에도 공을 세웠다. 지금은 당시의 건물은 없어졌지만 설립자의 높은 뜻을 받들어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정신만은 살아 있음을 느낀다. 이 학교는 1992년경 폐교 되어 방치되다가, 8년 전부터 온누리 교회 신학원이 들어와 있다.

성덕보통학교를 설립한 심재승 선생은 이곳에 연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공주에서 살다가 학교를 세우기 위해 이 마을에 들어왔고, 현재 후손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심재승의 조카가 충남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 널리 알려진 심대평이다.

성덕리 십오개다리 ●●●

대평리에서 성덕리로 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그 다리의 정식 명칭은 성덕교이지만, 흔히 '십오개다리'라고 불린다. 십오개다리가 무슨 뜻일까? '십오개'란 숫자 15를 가리킨다. 이런 흔치않은 이름이 다리에 사용된 데에는 아주 슬프고 가슴 아픈 사연이 전해진다.

이곳을 흐르는 용수천은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에서 금강으로 합류한다. 때는 1973년 여름, 성덕리에 사는 금호 중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기 위해 배를 타게 되었다. 평소 학생들은 용수천에 놓여있는 작은 다리를 이용하여 건너다니곤 했는데, 전날 내린 많은 비로 인하여 금강의 물이 역류하여 용수천의 다리는 물에 잠겨 건널 수 없었다. 내를 건너지 못해 학교에



십오개다리 다리의 정식이름은 '성덕교'인데 마을 사람들은 '십오개다리'라고 한다.



용수천

못 가게 된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금강 아랫동네 청벽에 사는 한 분이 낚시배를 몰고 왔다.

그리 넓지도 않은 용수천이었지만 그날은 물이 깊어서 위험했다. 하지만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 학생들은 모두 배를 타고 건너기로 했다. 전체 학생은 30여명이었는데, 그중 15명은 먼저 건너 학교에 가는 중이었고 나머지 16명을 태워서 내를 건너고 있었다. 그런데 건너편 내릴 곳을 바로 몇 미터 앞에 두고 서로 먼저 내리기 위해 일어서자 배가 뒤집혔다. 순간 이수라장이 되었고 서로 붙잡고 끌어당기는 통에 겨우 사공과 삼대독자인 한 학생만이 살아서 독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 나머지 15명은 모두 익사 했다. 이 슬픈 소식을 들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원금을 내려주어 다리를 놓았고, 다리 옆에는 '용수천 희생학생 위령비'를 세워 슬픈 넋들을 위로 하고 있다. 이 마을 사람들은 15명의 학생이 희생되고 놓여진 다리라 하여 성덕교보다 '십오개다리'라 부른다.

십오개다리 위령비



십오개다리 위령비 후면



뒷이야기지만, 그때 다행히 살았던 한 학생은 성장하여 충남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대전 용두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신호등과 육교가 없는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해 끝내 죽게 되었다. 당시의 도지사(정석모)가 현장에 달려오고 중앙방송국의 취재도 이루어지면서 크게 사건화 되었다. 사고 후 육교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사고 현장에 육교가 놓여졌다. 성덕리의 16명 학생들은 꼭 필요하지만 실천되지 않고 있던 다리와 육교의 건설이 서둘러 이루어지는 도화선이 되었다.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다.

신촌리는 1914년에 공주군 양야리면 신촌리와 화사리가 합쳐져서 연기군 금남면 신촌리가 되었다. 『한국지명총람』에는 신촌리(새말, 신촌)가 새로 생긴 마을이므로 새말, 또는 신촌이라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신촌' 마을은 조선 후기의 읍지인 『여지도서』나 『충청도읍지』, 『호구총수』 등의 공주목 양야리 면에서 찾을 수 없다. 화사동은 『호구총수』의 자연촌락 명칭에 보인다. 신촌리에 있는 마을 가운데 마을 뒤에 꽃절인 화사花寺가 있었으므로, 고초절(꽃절골, 화사)이라고 불리운 마을이 있는데, 『호구총수』의 화사동은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신촌리新村里와 화사리花寺里가 모두 실려 있다.





신촌리 꽃절터



신촌리 마을

영곡리는 1914년에 공주군 반포면의 윤산리 회병리 영동 병암리 한림정리 유천리와 유산리의 일부가 합쳐져 공주군 반포면 영곡리가 되었고, 다시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하여 공주군 반포면에서 연기군 금남면으로 편입되었다. 지형이 영구와 같다 하여 영구골, 또는 영동이라 하였다고 한다. 『호구총수』 반포면에서는 유산소柳山所 한림정翰林亭 유천동柳川洞 영동리永洞里 호병동壺瓶洞 윤산소尹山所 등의 마을 이름이 확인된다. 윤산리尹山里 회병리回屏里 영동永洞 병암리屏岩里 한림정리翰林亭리 유천리柳川里 유산리柳山里 등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공주군 반포면에 모두 보이는 마을 이름이다.



조사대상 평산신씨 사간공파, 한림정, 병암서사 터

영곡리 평산신씨 사간공파 ●●●

금남면 영곡리 평산신씨平山申氏는 고려의 개국공신 신숭겸申崇謙의 후손으로, 신호申浩를 파조로 하는 사간공파思簡公派이다. 전체 95호 중 20호가 거주하고 있다.



영곡리 평산신씨 세거지 표시석



한양궁 평산신씨들의 세거지를 부르는 이름이다.

영곡리 평산신씨 사간공파 입향조는 신준미申埈美(1489~1560)이다. 그는 17세에 문과에 급제하고 조광조趙光祖로부터 학문을 연마하였으며, 1519년(중종 14)에 현량과賢良科에 급제하여 한림학사翰林學士를 지냈고, 조봉대부朝奉大夫로 예문관 봉고 겸 춘추관 기사관藝文館 奉教 兼 春秋館 記事官을 지냈다.

신준미는 기묘사화己卯士禍(1519) 때 관직을 버리고 금남면 영곡리로 낙향했는데, 이곳과의 연고와 구체적인 사유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사화가 진정되고 조정에서 1545년(명종 원년)에 전적典籍으로 복귀하기를 간청했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고 농사를 지으며 은거했다고 한다. 신준미가 금남면 영곡리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마을에 전씨全氏가 살았다고 한다. 현재까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평산신씨 사간공파는 금남면 감성리에 20호, 공주시 반포면 원봉리에 25호가 거주하고 있다. 신준미의 묘소와 묘비가 금남면 영곡리 산 509-1번지에 있고, 신준미의 옛 집터에 영모재를 지어 시제를 지내고 있다.

신준미가 입향하기 전에는 이 지역을 병암골이라 불렀었는데, 이후 신준미가 한양에서 왔다하여 한양골로 불리기 시작했다.



- | | |
|---|------------------------|
| 1 | 1 영국리 입향조 한림학사 신준미 묘소 |
| 2 | 2 영국리 입향조 한림학사 신준미 신도비 |



영곡리 한림정

영곡리 한림정 ●●●

연기군 금남면과 남면사이를 흐르는 금강은 100여 년 전까지 배를 이용한 물길이 중요한 행로 역할을 한 충청의 젓줄이었다. 금강변 곳곳에 나루가 형성되었고, 빼어난 절경에 정자가 지어졌다. 오강팔정(五江八亭)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오강은 오강(吳江(동진하류), 초강(楚江(부강하류), 금강(錦江, 백마강(白馬江, 청강(靑江(하류)이며, 팔정은 합강정(合江亭, 독락정(獨樂亭, 한림정(翰林亭, 탁금정(濯錦亭, 금벽정(錦壁亭, 사송정(四松亭, 청풍정(淸風亭, 수북정(水北亭) 등이다. 뚝을 단 배들이 하루에 수백척씩 금강의 물결을 가르며 오르내리는 모습을 이 곳 정자에 앉아서 바라보면 장관이었을 것이다.

한림정은 신준미와 연관된 전설이 있다. 신준미는 낙향한 이후 금강변에 정자를 짓기 위해 야산 봉우리에 터 닦기 지반공사를 하고 있었다. 마침 행인 한명이 신준미 앞을 지나가면서 말에서 내리지 않자 하인들이 노하여 그를 꾸짖었다. 그러나 신준미는 이를 만류하여 그대로 보냈으나 얼마 가지 않아 길 한쪽에서 장끼 한마리가 갑자기 날아올라 말이 놀라는 바람에 행인이 말에서 떨어져 빠져 죽으니 불길한 징조라 하여 정자 건립을 그만 두었다. 이후 그는 터 닦기 공사 하던 장소의 바로 아래 강변에서 나룻배를 운행하며 이곳을 한림정이라고 불렀다. 한림나루(한림진)는 한림정 서쪽 금강가에 있는 나루터로, 장기군 송원리로 건너가는 곳이다. 이후 신준미의 13세손인 신옥균이 종종 의 힘을 합쳐 정자건립사업을 추진하여 1965년에 공주와 반포를 왕래하는 산업도로변에 정자를 완성시켜 행인들의 쉼터가 되었다.

영곡리 병암서사 터 ●●●

영곡리 한양골 588번지 마을 회관 맞은편에 있는 평산신씨 재실 자리는 병암서사가 있던 곳이다. 병암서사(屏岩書社)는 신준미(申遵美, 신점(申黈)(1530~1601), 임정(林頌)(1554~1636) 등 3인을 제향했던 곳으로 건립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1871년(고종 8) 흥선대원군의 서원훼철령에 의해 훼철된 후 복원되지 못하였다.

영곡리 병암서사터 지금은 평산 신씨의 재실이다.





- | | |
|---|---|
| 1 | 영곡리 평산신씨 재실 영모재 조선시대 병암 서사 터였다. |
| 2 | 재실앞 은행나무 한림학사 신준미가 심었다는 나무로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

영대리永垆里는 1914년에 공주군 명탄면 유산리柳山里 명촌리鳴村里 신대동新垆洞 계양리桂陽里 영대동永垆洞 서대리西臺里 상평리上坪里와 대박동大朴洞의 일부가 합쳐져 연기군 금남면 영대리가 되었다. 마을 이름이 『여지도서』에는 보이지 않고, 『호구총수』에서는 명촌리 유산소 서대리 대박 등이 확인된다. 유산소는 유산리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공주군 명탄면에서는 계양리桂陽里 영대동永垆洞 서대리西臺里 상평리上坪里 신대동新垆洞 유산리柳山里 명촌리鳴村里 대박동大朴洞이 모두 확인된다.

한편, 『한국지명총람』의 영대리에서는 우려울 위쪽에 있는 마을로 고려 때 거란 군사가 침입하여 ‘둔’쳤던 곳이라고 전해진다는 ‘둔디(둔대)’를 소개하고 있는데, 『호구총수』에서도 ‘둔대리屯垆里’가 확인된다. 음달둔디 안쪽 금병산 밑에 있는 마을은 밤절(올사)이다. 옛날에 절이 있고, 밤나무가 무성하나 열매가 열지 않다가 인조가 이괄의 난으로 공주에 피난한 후부터 밤이 열기 시작했는데, 그 밤이 탕기만큼 커서 임금에게 올렸다고 한다. 밤절 뒤에



조사대상 경주이씨와 이경역 묘갈, 진주유씨와 유취장 묘소



영대리 경주이씨와 진주유씨의 세거지를 나누었다는 개울이 보인다.

있는 바위는 ‘쌀바위’이다. 옛날에 바위 틈에서 쌀이 꼭 밤절에 있는 스님이 겨우 먹을 만큼 끼니 때마다 나와 스님이 먹고 살았는데, 욕심 많은 중이 많이 나오라고 부지깽이로 그 굴을 쑤시자 별안간 피가 나오더니, 영영 쌀은 나오지 않고, 그 대신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영대리는 마을을 흐르는 시내를 기준으로 동쪽은 이경역의 후손이, 서쪽은 유대장의 후손이 차지했다고 전해진다.

영대리 경주이씨와 이경역 묘갈 ●●●

경주이씨가 이 마을에 들어온 것은 400여 년 전이라고 한다. 『연기군지』에도 17세기 중반에 영대리에 경주이씨가 입향했다고 하였지만, 입향조나 입향사유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경주이씨 인물인 이경역



이경억 묘갈과 신도비

의 묘소가 알려져 있다.

이경억李慶億(1620~1673)은 판서 이시발李時發의 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자는 석이錫爾, 호는 화곡華谷이다. 한성부 우윤·도승지, 대사헌으로 동지사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오고 이조·호조·형조·예조판서를 역임했으며, 1672년(현종 13)에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올랐다. 문익文翼의 시호를 받았으며, 저서로는 『화곡유고華谷遺稿』가 있다. 이 묘소는 1914년 경기도에서 이장해 왔는데, 100m 떨어진 입구에 묘갈이 서 있다. 장방형 기단 위에 비신을 세우고 옥개형 이수를 올렸다. 비신의 규모는 1.8m가 넘으며, 기단의 사면은 나선형무늬가 조각되어 있다. 묘갈문은 1730년(영조 6)에 새겨진 것(崔錫鼎 찬, 黃樺 서, 曹命教篆)으로, 오랜 풍화로 비문의 일부가 판독이 불가능하다. 묘갈 오른쪽에는 1995년에 세워진 오석의 신도비가 있다. 묘소는 방형 호석을 둘렀고, 상석 망주석 문인석이 갖추어져 있다.

묘소를 이곳으로 이장하던 상황이 마을 주민들에게 구전되어 오고 있었다. 원래 이경억의 묘소는 진천에 있었는데, 이곳 금남면 영대리의 터가

명당으로 대대손손 길하다는 말을 들은 후손들이 묘소를 이장해 오기로 결정을 한다. 이장해 올 당시가 일제 초기였는데 경주이씨 문중이 대단한 세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순사도 경례를 하며 예우를 다하고 편리를 보아 주었다고 한다. 묘소만 이장한 것이 아니고 문인석과 망부석 상석 등 묘소의 석물과 모든 부재들을 다 가져 오려고 하니 많은 인부들이 필요했다. 힘든 작업으로 인부들의 행동이 느려지면 회초리로 때리며 억지로 작업을 마쳤다고 한다. 그래서 일까? 그 후 이 집안은 번성하기보다는 집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땅부터 조금씩 조금씩 남의 손에 넘어가는 일이 생겼다. 그 후 산만 남았고 제삿날이 되어도 찾아와 제사를 지내는 일조차 없었다. 마지막 종손이 살던 집을 이씨 집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성팔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사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 경주이씨 선산에서 울음소리가 여러 차례 들려 제사를 모시지 않아 조상들이 서운해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3년간 정성껏 제사를 지내 드렸다 한다. 그러자 4년차부터는 유성에서 큰 사업을 하는 후손이 와서 다시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까지 잘 이어지고 있으며 관리도 잘되고 있다고 한다.

영대리 진주유씨와 유취장 묘소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대리는 마을을 흐르는 시내를 기준으로 동쪽은 이경역의 후손이, 서쪽은 유대장의 후손이 차지했다고 전해진다. 유대장은 유장군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주인공은 유취장이 아닌가 생각된다. 유취장 柳就章(1669~1722)은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자는 여진 汝進이다. 백과사전을 통해 확인해 보면, 현감 유담연 柳檀然의 손자이며, 통제사 유성채 柳星彩의 아들이다.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에 임명되고, 도총부도사·훈련원주부·봉산군수 등을 거쳐, 1718년(숙종 44)에 숙천부사·삭주부사·전라도수군절도사·경상도병마절도사를 역임하였다. 1721년(경종 1)에 분부총관

分副總管을 지내고, 이듬해에 훈련중군(訓練中軍)이 되었다. 그러나 신임사화로 소론의 공격을 받아 장흥부로 유배되어, 곧 노론의 거두 김창집(金昌集) 등과 함께 처형되었다. 1808년(순조 8)에 유생 김정언(金鼎言)의 상소에 의하여 신임총랑(辛壬忠良)으로 불리었으며, 사충사(四忠祠)에 합유(合脩)되었다. 그는 숙천부사로 있을 때 선정으로 특진을 하는 등 관(官)으로서의 업적과 제가(齊家)의 법도에 있어서는 본받을 점이 매우 많았다고 하나, 사회관계로 기록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청백(清白)과 효우(孝友)에 대한 행실만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전승(傳誦)된다. 1783년(정조 7)에 신원되어 병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무민(武愍)이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유장군은 서해해군도통사를 지내다가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시신 모두를 수습하지 못하고 잘린 머리만 가져와서 묻기만 했다고 한다. 그 후 누명을 벗고 정식으로 묘를 쓰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원래의 고향도 모르는 유재호 리는 후손이 관리하며 살다가 서울로 이사가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마도 그 후손의 살림이 넉넉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한다. 한편 2007년 조사된 자료에서는 유장군이라 하지 않고 유대장이라 표기되었으며, 충청도 수군절도사로 지낼 당시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였는데, 후에 역적이 아님이 밝혀지자 이곳 영대리로 묘를 쓰도록 허락을 받아 모시게 되었다고 정리되어 있다.

사실 유취장은 공주 장기에 정착해 살고 있던 진주유씨 충경공(忠景公) 유형(柳珩)의 4대손이다. 지금도 공주시 장기면 하봉리 충렬사에는 유취장의 처와 아들 유선기 부부에게 내려진 삼효열 정려가 있다.

동쪽의 이경억 후손, 서쪽의 유대장 후손은 ‘동쪽은 문반, 서쪽은 무반 [東文西武]’의 개념과도 일치하여 재미있다. 아마 이 마을에서는 경주이씨와 진주유씨의 세력이 비등했던 것 같다. 참고로 유취장의 아들인 유선기의 처는 경주이씨였다.

이외에도 영대리에는 언양김씨가 30대째 후손이 살고 있으며, 한양조씨는 20대째 후손이 살고 있다고 한다. 한세대를 보통 30년으로 잡는다고 하면 900년, 600년씩 살아왔다는 셈이니, 쉽게 동의되지 않는다. 아마 오래전부터 살아왔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한편, 영대리 검암에는 경주김씨인 상촌桑村 김자수金自粹의 후손으로 형조판서에 증직된 김정일金挺一의 묘소가 있다.

영티리는 1914년에 공주군 양아리면 영티리 사양리 내동 와룡동이 합쳐져 연기군 금남면 영티리가 되었다. 이 마을 이름들이 『여지도서』에는 보이지 않지만, 『호구총수』에는 와룡리, 영티리, 내동 등이 보이고 있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공주군 양아리면에는 와룡동臥龍洞 내동內洞 사양리沙陽里 영티리永峙里 등이 보인다.



영티는 영재 고개가 있으므로 영재, 또는 영티라고 했고, 와룡동(인골)은 영티 안쪽에 있는 마을로, 와룡농주형臥龍弄珠形의 명당이 있다고 한다. 또한 영티리에 있는 마을인 부춧골(불곡)에는 옛날에 절이 있었고, 오층탑이 있다고 한다.

금남면 용담리



용담리는 1914년 공주군 반포면 신대동新垔洞 평촌리坪村里 용담동龍潭洞과 어득운리魚得雲里 일부를 합쳐서 용담리라 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되었다. 신대리新垔里 비룡소飛龍所, 飛龍巢 어득운魚得雲 등의 지명은 『호구총수』 공주목 반포면에서 이미 자연촌락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용담리는 『호구총수』에

는 비룡소로, 한말에는 용담동으로, 1914년 이후에는 용담리로 명칭이 바뀌고 있다. 『한국지명총람』에서는 비룡소飛龍沼라는 마을이 벌말 뒤쪽에 있는데, 이곳에 비룡소라는 소가 있다고 했으며, 비룡소沼라는 늪은 그 위에 비룡상천형飛龍上天形의 명당이 있다고 한다.

용포리는 1914년 공주군 양야리면 이암리 용포리 탑산리 팽목정리와 가동의 일부가 합쳐져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가 되었다. 이암리는 조선후기의 『호구총수』에도 그 지명이 보이고 있다.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 펴낸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공주군 양야리면에 가동佳洞 용포리龍浦里 탑산리塔山里 이암리鯉岩里 팽목정리彭木亭里가 보이고 있다. 『한국지명총람』에서는



용포리(대평장)에 대해 구렁목과 잉어바위 밑으로 흐르는 금강의 뜻을 따서 용포리라 하였고, 1936년(1946년 병술년 장마의 오기) 큰 장마로 인하여 대평리가 강으로 변하고 그 주민이 이곳으로 옮겨오는 동시에 시장도 함께 옮겨져서 그대로 대평장이라 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잉어바위는 장터 서쪽 큰 길가에 있는 바위로, 전에 냇물이 이 바위 밑으로 흘러 내려갔는데 물이 깊고 잉어가 늘 바위 밑에서 놀며, 또 바위 모양이 잉어처럼 생겼는데, 현재는 길가에 파묻혀 있다고 한다. 이 바위가 있는 마을 이름도 잉어바위(鯉岩)라고 한다. 탑산리는 강당산 밑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 탑이 있었으며, 팽나무정이는 팽나무가 있는 마을이라고 한다.



용포리

장재리長在里는 1914년에 공주군 양야리면 장재동長在洞 금산리金山里와 명탄면 석삼동石三洞의 일부가 합쳐져서 연기군 금남면 장재리가 되었다. 『호구총수』에도 양야리면에 장재동과 금산소金山所, 명탄면에 석삼동이 있다.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 펴낸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양야리면에 장재동만 있고 금산리는 없다. 『한국지명총람』에서는 뒷산에 장절이란 절이 있으므로 장절골, 또는 장재라 하였으며, 이곳에 3기의 고인돌[지석총]이 있다고 했다. 또한 장재 동쪽에 있는 마을을 절재[길재], 금산, 금산리라 하는데, 이곳은 괴화산 밑으로 금이 석자 세치나 쌓여 있다 하며, 또 김씨의 묘가 있다고 하였다.



금남면 축산리



축산리는 1914년에 공주군 양야리면 상봉천리 하봉천리 구룡리 용곡리 축산리가 합쳐져 연기군 금남면 축산리가 되었다. 『여지도서』에는 이 마을 이름 가운데 봉천리奉天里가 공주목 양야리면의 행정동리 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공주목 고을 치소로부터 동쪽으로 45리에 위치하며, 1759년(己卯帳籍)의 편호는 84호, 인구는 남자 132명, 여자 159명으로 합계 291명이었다. 『충청도읍지』에는 104호, 남자 132명, 여자 104명, 합계 236명으로 호수는 늘었으나 인구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 『호구총수』에는 구룡리九龍里와 취산鷲山만 보이고 있다.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 펴낸 『구한국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양야리면에 하봉천리下鳳川里 축산리丑山里 구룡리九龍里가 수록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서는 축산리(취산, 축산)에 대해 뒤에 수리산이 있으므로 한자로 옮겨 취산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축산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축산리의 축산 건너 구석에 있는 마을인 평말(구령말, 구룡, 구룡리)에 구룡농주형九龍弄珠形의 명당이 있다고 하였다.

호탄리壺灘里는 1914년에 공주군 명탄면 석삼동 일부와 양아리면 호탄리가 합쳐져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가 되었다. 마을 앞에 병처럼 생긴 여울이 있으므로 호려울 또는 호탄이라 하며, 또 사창의 창고가 있으므로 동창이라 했다고 한다. 아마 동창은 『여지도서』의 공주목 양아리면 창리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창리倉里는 공주목 관문으로부터 동쪽으로 40리의 거리에 위치했으며, 편호가 34호, 인구는 남자 56명, 여자 55명이었다. 『호구총수』에는 명탄면 석삼동, 양아리면 호동리壺洞里, 창리 등이 실려 있다. 『구한국지방



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명탄면 석삼동, 양아리면 호탄리 등이 모두 보인다. 한편, 『여지도서』 창고조에서는 동창이 10간의 규모이며 동쪽으로 50리 양아리면에 있다고 하여, 마을명 창리의 위치와는 다소의 거리차가 있다.

『한국지명총람』에는 호탄리에 있던 창고를 일제시대에 헐어다가 면사무소를 지었고, 동창 한가운데에는 사창터만 있다고 했다. 또한, 동창 동쪽 너머에 있는 마을인 안터는 전에 안씨씨가 살았는데, 도깨비가 장난하여 솥뚜껑을 솥안에 넣는 여러 가지의 변란을 일으키므로 이 마을이 비게 되었고, 그 자리에 현재 금호중학교가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

금남면 황룡리



조사대상 밀양박씨 귀정공파

황룡리黃龍里는 1914년에 공주군 명탄면 연소동, 황룡동, 서복리, 원각리, 대지동이 합쳐져 연기군 금남면 황룡리가 되었다. 『여지도서』에서는 관련지명이 찾아지지 않지만, 『호구총수』에는 서복리西腹里가 보인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서복리西卜里, 대지동大枝洞, 원각리元角里, 연소동燕巢洞, 황룡동黃龍洞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서는 마을 뒤 산에 황룡도하형黃龍渡河形의 명당이 있다고 하여 동고지, 둥그지, 또는 황룡이라 한다고 했다. 또한 황룡리에 있는 마을인 넉미(용미)는 뒤산이 용의 형체이므로 용미라 하던 것이 변하여 넉미가 되었고, 황룡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인 답미(서복)는 산의 모양이 닭과 같다고 해서 붙은 지명이며, 연소동燕巢洞(제비집골)은 마을의 지형이 제비집 같이 생기었다고 한다.



황룡리 복지관 준공식 우리가 조사했던 그날 복지관을 건립하고 준공식을 하였다.



황룡리 복지관 준공식 고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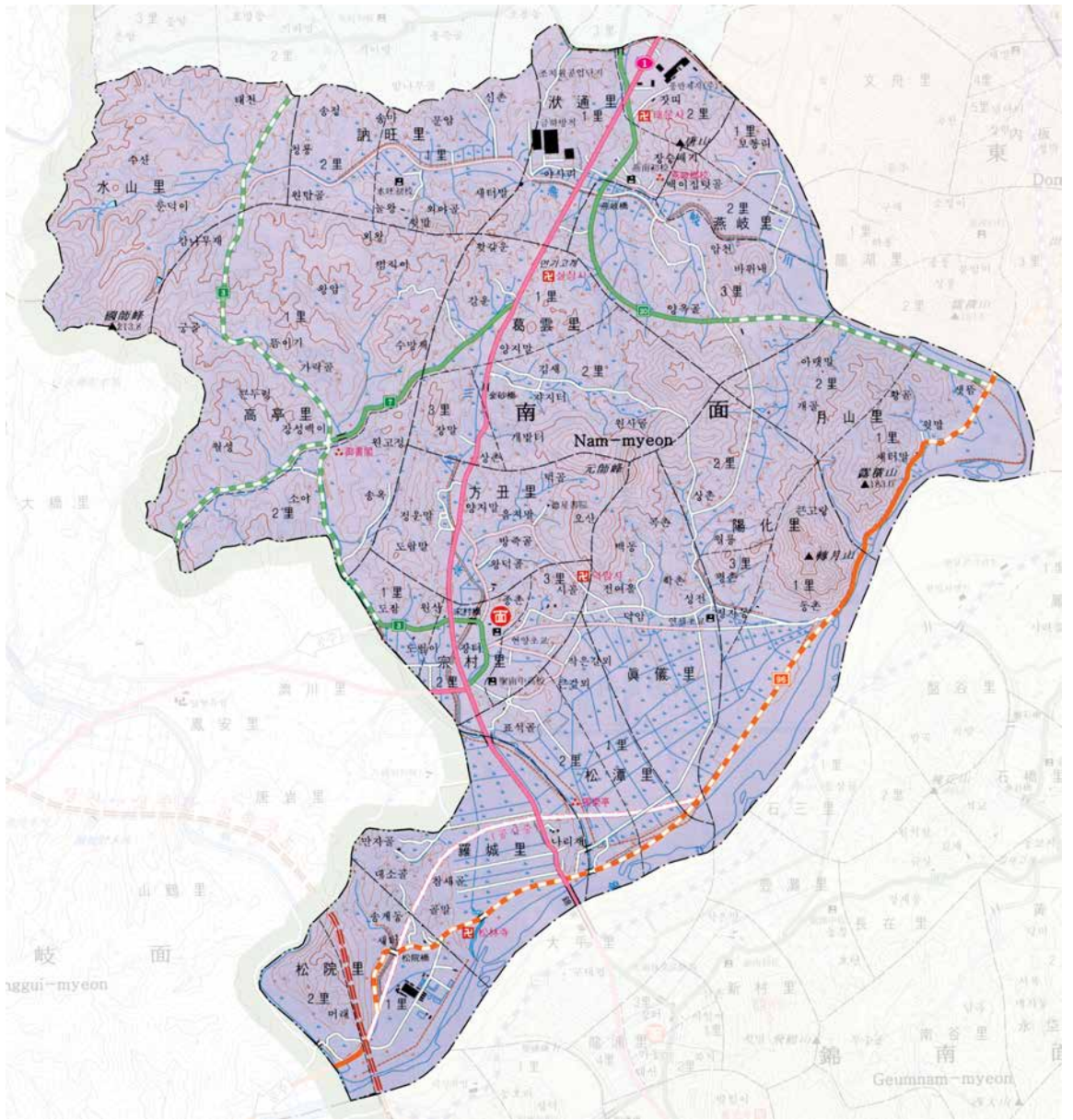
황룡리 밀양박씨 귀정공파 ●●●

금남면 황룡 1리의 밀양박씨는 박혁거세의 29세손인 경명왕의 첫째 아들 밀성대군 박언침(朴彦枕)을 시조로 한다. 후에 밀양박씨는 10여개의 본관으로 나뉘고 다시 여러 파로 갈라지는데, 금남면 황룡 1리에 거주하고 있는 밀양박씨 귀정공파는 전체 45호 중 20호가 거주하고 있다.

금남면 황룡 1리에 터전을 마련한 밀양박씨 귀정공파 입향조는 박건원(朴乾元)(1400년대 인물)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지냈다. 황룡리는 누런 용이 승천한 곳이라는 지명유래가 전해지는데, 박건원이 어떠한 이유로 금남면 황룡 1리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전해지지 않아 알 수가 없다. 현재 금남면 황룡리에 박건원의 묘소가 있으며 묘비와 석물이 있다.

제3장 남면의 터전과 뿌리





남면의 터전과 뿌리



조선후기에도 연기현 고을 치소의 남쪽에는 남면이 있었다. 이 남면의 동리洞里에 대해 『여지도서』에는 놀왕리 송정리 청룡리 만수동리 백정촌리 수산리 석현리 국사동리 운주동리 두목리 중리 소학동리 방축동리 덕동리 분출동리 금사리 북룡리 외삼기리 내삼기리 산소동리 개동리 대동리의 22개리가, 『호구총수』에는 대천동 놀죽리 송정리 청룡리 만수동 백정촌 수산리 석현리 국사리 중리 월성리 소학리 운주리 사리 분토동 관대리 방축동 덕동리 북룡리 외삼기리 원암리 정지동 산소동 내삼기리 양화동 갈운리 대곡 제곡리 원곡의 28개리가 수록되어 있다.

1914년에는 종전 연기군 남면의 37개리, 군내면의 9개리와 공주군 삼기면의 20개리를 병합하여 12개리로 만들어 연기군 남면이라고 일컬었으며, 연기리에 사무소를 두었다. 이후 1973년 7월에 공주군 장기면 나성리와 송원리를 이속시켜 14개리가 되었다. 남면은 세종시로 바뀌면서 가장 많은 마을을 행정중심의 부지로 내어놓고 4개의 리가 남아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남면 14개리의 마을명과 조선후기 이후의 면리변천, 각 마을별 조사대상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남면 마을의 면리 변천

마을명	조선후기		한말『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914년	1973년
	『여지도서』	『호구총수』			
1 갈운리	연기현 남면 금사리	남면 금사리·갈운리·원곡	연기군 남면 금사리·상촌리·수망리·갈운리·원곡리·창촌리·자지동리	연기군 남면 갈운리	-
2 고정리	연기현 남면 중리	남면 중리·월성리	연기군 남면 중리·소야리·송옥리·고정리·월성리	연기군 남면 고정리	-
3 나성리	공주목 삼기면 나성리, 장척면 만자동리	삼기면 나성리·만자동, 장척동면 송계	공주군 삼기면 용암리·울정리·나성리·노은리, 장척면 만자동·송계리	공주군 장기면 나성리	연기군 남면 나성리
4 놀왕리	연기현 남면 놀왕리·청룡리	남면 놀왕리·청룡리	연기군 남면 신대리·놀왕리·하눌리·왕암리·청룡리	연기군 남면 놀왕리	-
5 방축리	연기현 남면 방축동리·덕동리	남면 박축동·덕동리	연기군 남면 방축리·덕동리·오산리·왕덕리·정문촌리	연기군 남면 방축리	-
6 보통리	미확인		연기군 군내면 월리·보통리·봉암리(일부)	연기군 남면 보통리	-
7 송담리	공주목 삼기면 나성리	삼기면 나성리	공주군 삼기면 나성리·송담리(일부)·노은리	연기군 남면 송담리	-
8 송원리	공주목 장척동면 만자동리	장척동면 행정리·송계·신촌리	공주군 장척면 죽동·행리·만자동·송계리·신촌리·원호동·원촌리	공주군 장기면 송원리	연기군 남면 송원리
9 수산리	연기현 남면 수산리·국사동리	남면 수산리·국사리	연기군 남면 수산리·국사리·대천리	연기군 남면 수산리	-
10 양화리	연기현 남면, 공주목 삼기면	연기현 남면 양화동, 공주목 삼기면 기양리	연기군 남면 월룡리·학천리·원암리·내산리·평촌리·양화리, 공주군 삼기면 행단리·봉산동·평촌리·기양동·	연기군 남면 양화리	-

마을명	조선후기		한말『구한국지방행정 구역명칭일람』	1914년	1973년
	『여지도서』	『호구총수』			
11 연기리	연기현 읍내면 압천리 · 교촌리 · 중부리 · 북부리 · 서부리 · 신촌리	읍내면 압천리 · 교촌 · 중부 · 북부 · 서부 · 신촌	연기군 군내면 압천리 · 교촌리 · 신촌리 · 서부리 · 중부리 · 북부리	연기군 남면 교촌리	-
12 월산리	연기현 남면 개동리 · 대동리	남면 석연리	연기군 남면 화연리 · 대동리 · 개동리	연기군 남면 월산리	-
13 종촌리	공주목 삼기면 화옥동리	삼기면 유계 · 도잠리 · 이산소 · 소진의 · 종촌리 · 화옥동	공주군 삼기면 종촌리 · 이산동 · 봉산동 · 도산동 · 도잠리 · 화옥리 · 진의동(일부) · 송담리(일부) · 유계리, 연기군 남면 도잠리	연기군 남면 종촌리	-
14 진의리	공주목 삼기면	공주목 삼기면 가정 · 덕암리 · 진의, 연기현 남면 북룡리	공주군 삼기면 진의동(일부) · 창동 · 덕암리 · 가정리 · 성전동 · 송현리, 연기군 남면 북룡리	연기군 남면 진의리	-

남면 갈운리



조사대상 입서 묘소

갈운리는 1914년에 연기군 남면의 갈운리 수망리 창촌 자지동 상촌리 금사리 원곡리를 합하여 연기군 남면 갈운리라 하였다. 『여지도서』에는 금사리(金沙里)가 연기현의 치소 관문으로부터 7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편호가 56호이고, 남자가 75명, 여자가 79명으로 합계 154명이라고 하였다. 『호구총수』 연기현 남면에는 금사리 외에도 갈운리(葛雲

里 원곡(元谷) 등이 수록되어 있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연기군 남면에서는 금사리(金沙里) 상촌리(上村里) 수망리(水望里) 갈운리(葛雲里) 원곡리(元谷里) 창촌리(倉村里) 자지동리(紫芝洞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의하면, 갈운리(갈운)는 마을 주위에 산이 칩덩쿨처럼 얼기설기 서려있다 하여 '갈운'이라고 하며, 금사는 조선시대 금사역이 있었던 마을이고, 창말(창촌)은 사창(社倉)이 있었던 마을이라 한다.

금사역(金沙驛)은 조선초기 세종조에는 울봉도(栗峯道) 역승의 관할역이었으나, 1460년(세조 6)에 역제가 개편되면서 울봉도 소관에서 성환도(成歡道) 소관으로 옮기고 증약도찰방(增若道察訪)이 관할하도록 하였다. 이는 1455년(세조 원년)에 역승도가 찰방도로 바뀌면서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 즉 찰방이 관할



갈운리에서 금강방향



갈운리에서 조치원 방향



갈운리 느티나무는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는 역이 지나치게 많고 역로가 광활하여 제대로 역을 관리할 수 없는 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역로의 조정과 이에 따른 চাল방의 명칭을 정한 결과이다. 이는 『경국대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이후 금사역은 성환도의 속역으로 남게 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역원조에 의하면, 금사역은 연기현 치소의 남쪽 5리에 위치한다고 했다. 조선후기의 『여지도서』에서는 금사역이 연기현 치소의 남쪽 7리에 위치하고, 성환도에 속하며, 아전 20명과 노 30명, 비 5명, 대마大馬 2필, 기마驕馬 6필, 복마卜馬 2필이 역에 속해 있었다. 이곳 갈운리가 지금은 세종시 건설공사로 과거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갈운리 임서 묘소 ●●●

갈운 3리 상촌 마을에 부안임씨 연기지역 입향조인 공조전서 임난수의 셋째 아들 임서(林叙(?~1368))의 묘소가 있다. 임서는 어려서부터 효심이 지극하고 항상 겸손하였다. 고려 공민왕의 공주에게 장가갔으나 왕실 종친을 끼고 현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산반(散班)에 머무르다가, 고려가 망하자 선인(先人)의 옛 농장(舊庄)에 자취를 감추어 스스로 정양(靜養)하였다. 조선 태조 때 예조판서로 수차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는데, 태조가 이를 가상히 여겨 예장(禮葬)을 명하였다. 그러나 묘비에 의하면 ‘세종 18년 10월 5일’ 묘를 연기 남면 갈운리 금사동에 두었다고 되어 있다. 1436년(세종 18) 세운 비의 전면에는 ‘충의교위좌군사직임서지묘(忠毅校尉左軍司直林叙之墓)’라고 쓰여 있으며, 비의 크기는 높이 63cm, 가로 32cm, 두께 12cm이다. 조선전기의 전형적인 묘비 형식으로 묘비의 윗부분이 둥글게 되어 있으며, 전면에는 사각 귀퉁이에 연화무늬가 있다. 또한 봉분에는 사각 호석을 둘렀으며, 묘비를 세운 시기에 함께 세운 듯한 문인석 2기가 있다. 비문은 풍화로 잘 보이지 않는다. 묘의 오른쪽에는 1848년(헌종 14) 14대 방손 학상(學相)이 짓고, 17대손 헌명(憲明)·익경(翼敬)이 세운 묘비가 있는데, 비문에는 ‘駙馬忠毅校尉左軍司直扶安林公諱叙之墓(부마충의교위좌군사직부안임공휘서지묘)’라고 쓰여 있다. 임서의 묘가 있는 구릉의 오른쪽으로 부인의 묘가 있다.

남면 고정리



조사대상 신천강씨 곡산파, 어서각, 강순음 묘소, 강혁 묘소와 묘갈, 순천박씨 교리공파, 청주곽씨 연기파, 괄희태·괄지흙 묘소와 묘비, 괄창징 묘소

고정리는 1914년에 연기군 남면의 고정리 중리 월성리 소야리 송옥리가 합쳐져 고정리가 되었다. 이 가운데 중리 中里는 『여지도서』 연기현 남면에 관문으로부터의 거리가 10리이고, 1759년(己卯帳籍)의 편호가 10호이며, 인구는 남자 18명, 여자 21명, 합계 39명이라고 하였다. 『호구총수』에는 중리와 함께 월성리 月城里도 보인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연기군 남면에서는 중리 中里 소야리 所也里 송옥리 松玉里 고정리 高亭里 월성리 月城里 등이 확인된다.

『한국지명총람』에서는 높은정이 남서쪽 산속에 있는 마을인 소야(소학동)는 본래 공주군 장기면의 지역이었는데, 1914년에 연기군 남면 고정리에 편입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소야리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의 연기군 남면에 보이는 점으로 보아 착오가 있는 듯 하다.

고정리도 세종시 건설공사장의 한 부분이 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 마을의 이야기는 이전의 자료를 참고로 정리하기로 한다. 물론 확인 가능한 것은 확인하고 가능한 한 가장 최근의 자료를 토대로 기록할 예정이다.



고정리 은하수공원 이곳에는 최첨단 장례문화센터인 은하수 공원이 1년 전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다.

고정리 신천강씨 곡산파 ●●●

남면 고정 2리의 신천강씨 信川康氏 곡산파 谷山派는 상산부원군 象山府院君 강윤성 康允成을 파조로 한다. 입향조는 강혁 康赫(1500년대 중반)으로 통훈대부 행 아산현감 겸 청주진관병마절제도위 通訓大夫行牙山縣監兼淸州鎭管兵馬節制都尉를 지냈다. 아버지는 진사를 지낸 강언정 康彦禎이고, 어머니는 참봉을 지낸 윤비 尹泌의 딸인 과평윤씨이다. 부인은 심서용 沈瑞龍의 딸인 청송심씨이다.

신천강씨가 연기에 처음 들어오게 된 것은 강진경 康晋卿이 금남면 발산리에 입향하면서 부터이다. 강진경은 예종 대에 남이 南怡 역모사건(1468년)에 영의정이었던 숙부 강순 康純이 연루되어 참형에 처해지자, 이를 피하

기 위해 금남면 발산리로 그 거처를 옮겨 세거하였다고 전해진다(금남면 발산리 신천강씨 발산파 참조). 이로 미루어 볼 때 강진경이 발산리에 들어와 세거해 오다가, 강혁 대에 이르러 고정리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 된다. 주요 후손으로는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를 지낸 강천의康天義가 있다.

고정리 어서각●●●

고정리 원고정 마을의 동편에 있는데, 낮은 구릉 야산의 남단부에 남향하고 있다. 이 어서각御書閣은 조선 태조·영조·정조·고종의 어필을 봉안했던 서각이다. 현재 어서 원본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건물은 정면 1칸, 측면 2칸으로 전퇴칸에 마루를 조성한 것으로 비교적 소규모이지만, 겹처마에 팔작지붕을 갖춘 화려한 건물이다. 화강암 석재를 이용한 원형 초석위에 원주를 올리고, 중앙의 상단부에는 각각 4개의 '어필각기'가 걸려 있다. 연기군 향토유적 제41호로 지정되어 있다.

고정리 어서각



고정리 강순용 묘소●●●

고정리 대비실 마을 동쪽 능선의 서향사면 중턱에 위치한다. 강순용(康舜龍)은 고려 공민왕 때의 무신으로 본관은 신천(信川), 호는 화곡(化谷), 아버지는 찬성사를 지낸 곡산군(谷山君) 윤성(允成)이다. 처음 원나라에 들어가서 승문감소감(崇文監少監)이 되고, 이름을 빠이안티무르(伯顏帖木兒)라 칭했다. 1354년(공민왕 3) 본국으로 돌아와 지밀직사사를 거쳐, 찬성사가 되었다. 1374년 오랑캐출신으로 고려에 귀화한 김의(金義)가 명나라 사신 채빈(蔡斌) 등을 살해하고 북원의 장수 나하추(納哈出)에게 달아났는데, 이때 김의를 원나라에 보냈다는 혐의로 유배되었다. 그의 누이동생은 이성계의 비인 신덕왕후(神德王后)이다. 그의 가문은 이성계의 정변과 집권과정에서 유력한 협력세력으로 작용하였다. 강순용은 조선개국 이후 재령백(載寧伯)의 작호를 받았으며, 제1차 왕자의 난에 일족이 참화를 당하였다. 강순용의 묘는 본래 경기도 광주 오금동에 있던 것을 1989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온 것이다. 강순용의 비는 호패형 비석으로 높이 120cm, 너비 44cm의 규모이다.

고정리 강혁 묘소와 묘갈●●●

고정리 뜰이 마을의 서쪽으로 남주한 능선의 남향사면 기슭에 위치한다. 비문에 의하면 강혁(康赫)은 조선전기의 문신으로 호는 일재(逸齋), 본관은 곡산(谷山)이고, 아버지는 성균진사 언정(彦禎)이다. 1480년(성종 11)에 문과에 급제하여 아산현감 겸청주진관병마절제도위를 지냈는데, 5년간 재직하면서 치적이 뛰어나 읍민들이 크게 교화되었다고 한다. 연산군의 정치가 문란해지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자연을 벗 삼아 일생을 마쳤다.

강혁의 묘역에는 상석과 문인석, 석주가 있으며, 오른쪽에 호패형의 구묘갈이, 왼쪽에는 1976년에 세운 신묘갈이 서 있다. 구묘갈 전면에는 ‘通訓大夫行牙山縣監 康公赫之墓 配淑夫人青松沈氏 附左통훈대부행아산현감 강공혁

지묘 배숙부인청송심씨부좌'라고 쓰여 있고, 비석의 규모는 비신 높이는 121cm, 너비 40cm, 폭 16cm이다. 뒷면에 무인년 4월에 세워졌다고 각서되어 있으나, 어느 무인년인지는 알 수 없다. 신묘갈은 1976년에 강혁의 공덕을 추모하여 후손이 세운 것으로 옥개형의 이수를 올렸는데, 전체높이는 240cm이며 비신은 높이 160cm, 너비 59cm이다. 오석의 비신에는 '通訓大夫 行牙山縣監 逸齋谷山康公赫之墓 西坐 配淑夫人青松沈氏 附左통훈대부행 아산현감 일재곡산강공혁지묘 유좌 배숙부인청송심씨부좌'라고 각서되어 있다.

고정리 순천박씨 교리공파 ●●●

남면 고정 2리의 순천박씨 교리공파는 조선 단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박중립의 다섯 아들[장남 팽년(彭年), 차남 인년(仁年), 3남 기년(耆年), 4남 대년(大年) 5남 영년(永年)] 가운데 둘째인 박인년을 파조로 한다. 박인년이 집현전 교리를 지냈기 때문에 교리공파校理公派라 불린다. 고정리 입향조는 파조의 13세손 영길(榮吉)로 알려져 있다. 박영길의 생년이 1659년(효종 10)이니 장년이 되어 이곳으로 왔다면, 입향시기는 지금으로부터 320여 년 전으로 추정된다.

박팽년이 1446년에 세종에게 올린 상서문에 의하면, 박팽년의 아버지 박중립이 1444년(세종 26)에 부친상을 당했을 때, 박중립은 전의현(전의면 관정리)에 본가가 있었으며, 전의현 남촌(현재의 전의군 전동면 송정리)에서 여묘살이를 했다. 즉 조선초기에 이미 전의지방에 순천박씨의 세거지가 있었다. 그러나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고 왕에 등극한 후 사육신을 중심으로 단종복위 운동이 있었을 때, 박중립·박팽년 부자도 이에 가담하면서 순천박씨는 6부자(父子) 3손(孫)이 화를 입어 순절하였다. 세조가 박팽년 집안의 재산을 몰수하여 공신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전의와 연기에도 순천박씨의 전지(田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 | |
|---|---|----------------------|
| 1 | 2 | 1 고정리 순천박씨 1765년 을유보 |
| | 3 | 2 박인년 복관 교지 |
| | | 3 순천박씨 교리공파 족보의 서 |



이후 자손들은 대역모반 죄를 피하여 호남에 숨어 살았다고 한다. 복위 운동에 가담한 자의 자손들은 도성 300리 밖에 살라는 세조의 어명으로 순천박씨도 상경치 못하고 청주 북대동(반송)에서 살았으며, 이후 청주에서 금강을 따라 남하하여 남면 고정리에도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고 한다.

순천박씨는 대역모반이라는 누명 아래 묘를 써도 남 몰래 밤에 쓰고 표시만 했다고 전하며, 이로 인해 선조의 묘가 많이 실전되었다고 한다. 박중림의 묘도 『전성지』에 현 치소의 북쪽 7리 박동(林洞)에 있다고 수록되어

있으나,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1995년의 교리공과보(을해보)에 박영길의 후손이 200여명 수록되어 있으나, 현재는 세종시 건설로 인해 조상의 묘를 서면 청라리로 이장하고, 후손들은 연기군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고정리 청주곽씨 연기파 ●●●

남면 고정리의 청주곽씨 연기파는 곽희태(1577~?)를 입향조로 한다. 곽희태 郭希泰(1577~1663)의 자는 종여 宗余, 호는 선주 仙舟이고, 아버지는 열설 열說, 어머니는 홍익성 洪翼聖의 딸이며, 부인은 이제남 李梯男의 딸이다. 1642년(인조 20) 명정전 明政殿에서 거행된 정시문과에 병과로 등제하였다. 과거 시험을 보기 전에는 교관 敎官으로 있었다. 등제 후 노직 老職으로 동지중추부사 同知中樞府事에까지 올랐으며, 문한 文翰으로 이름이 높았다. 곽희태는 원래 한양에서 거주하다가 만년에 이 일대를 사패지로 받아 지형이 명당인 국사봉 아래 궁골을 찾아 입향했다고 한다.

고정리 곽희태 · 곽지흠 묘소와 묘비 ●●●

고정리 궁골에 위치한다. 곽희태 郭希泰와 곽지흠 郭之欽은 청주곽씨로 부자 관계이며, 조선중기의 문신이다. 곽희태는 청주곽씨 연기파 입향조이다. 아들인 곽지흠 郭之欽(1601~?)의 자는 흠로 欽魯, 호는 지포 芝浦이다. 1646년(인조 24)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정언이 되었다. 이듬해 세자시강원문학 世子侍講院文學· 왜차접위관 倭差接慰官이 되어 대마도의 사신을 맞았으며, 이어 지평이 되었다. 1649년(효종 즉위년) 장령이 되었고, 1659년(현종 즉위년) 사간이 되었다. 1662년 정언 권격 權格과 더불어 윤선도 尹善道의 상소를 변호하는 조경 趙綱을 귀양 보낼 것을 간곡히 주장하였다. 벼슬은 집의에 이르렀다.

곽희태 · 곽지흠 부자 묘소는 고정리 마을 뒷산 국사봉 아래 궁골에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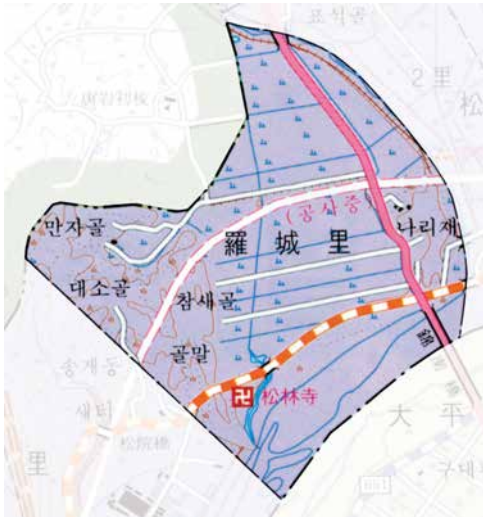
하로 나란히 조성되어 있으며, 각각 유좌묘향(西坐卯向)·신좌을향(辛坐乙向)이다. 이 묘소는 원래 목천에 있던 것을 1682년에 이곳으로 이장한 것이다. 광희태 묘소에는 배위 전주이씨가 왼쪽에 합장되어 있으며, 광지흠 묘소에는 전배(前配) 창녕성씨가 오른쪽에, 후배(後配) 안동김씨가 왼쪽에 합장되어 있다. 원형봉분으로 각각 묘비, 동자석, 망주석, 상석 등이 갖추어져 있다. 광희태의 묘비는 손자인 예산현감 광창징이 1687년(崇禎後丁卯)에 글을 짓고 썼으며, 광지흠의 묘비는 아들 광시징이 글을 짓고 썼다.

고정리 광창징 묘소 ●●●

광창징의 묘소는 연기군 남면 고정리 국사봉 아래에 위치한다. 묘소는 원형봉분으로 배위 함평이씨가 왼쪽에 합장되어 있다. 석물은 묘비 상석 석축 망주석 등이 있는데, 석비 모양의 구 망주석 2기도 남아 있다. 묘비는 1720년(崇禎紀元後再庚子)에 세웠는데, 자 광만적(郭萬績)이 글을 짓고, 손 광진기가 추서(追書)하였다.

광창징(1629~1706)은 군수, 돈령부 도정 등을 지냈다. 읍지의 사마조에 진사로 등재되어 있다. 사마방목에서도 1657년 식년시에서 진사 3등 33위(거주지는 兪)로 입격했음이 확인가능하다.

남면 나성리



조사대상 입씨가묘(기호서사 터), 독립정, 임난수 신도비

나성리는 1914년에 공주군 삼기면의 나성리 읍정리와 용암리(일부), 노은리(일부), 장척면의 만자동(일부), 송계리(일부)가 합쳐져 공주군 장기면 나성리가 되었다가, 1973년에 연기군 남면에 편입되었다. 『여지도서』에는 공주목 삼기면의 나성리羅城里에 대해 관문으로부터 북쪽으로 30리의 거리에 있으며, 1759년(己卯帳籍)의 편호가 23호, 남자 70명, 여자 82명이라고 하였고, 장척면의 만자동리滿子洞里에 대해서는 북쪽으로 30리의 거리에 있으

며, 1759년의 편호가 60호, 남자 81명, 여자 131명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호구총수』에는 공주목 삼기면에 나성리와 만자동滿子洞, 장척동면長尺洞面に 송계松溪가 보이고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서는 공주군 삼기면의 용암리龍岩里 읍정리栗亭里 나성리羅城里 노은리老隱里, 장척면의 만자동滿子洞과 송계리松溪里가 확인된다.



- | | |
|---|---|
| 1 | 2 |
| 3 | |
- 1 나성리 나리재 발굴조사
 - 2 나성리 석불
 - 3 나성리 나리재



나성리 표석



나성리 마을 머지않아 주민들 모두가 떠나야 하는 마을이다.

나성리라는 지명은 나리재에서 유래한다. 나리재는 나성리에 있는 토성이다. 큰 들을 지나 금강가에 있는 높이 45m 되는 외딴 산에 토성을 쌓았는데, 백제 때의 농성農城이라 한다. 이 성안에 임씨가묘가 있고, 기슭에 독락정이 있다. 임씨가묘는 원래 기호서사가 있던 곳이다. 기호서사는 서하 임춘, 전서 임난수, 부사 임목, 위의장군 임홍 등 삼대 4위를 배향하였는데, 1868년(고종 5)에 헐리고, 현재 임씨가묘가 되었다.

이곳은 세종시의 심장부에 위치한다. 나리재와 국도 1호선을 사이에 두고 길 건너편 논에서 백제시대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2010년 11월 8일자)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에 포함된 충남 연기군 나성리 금강변에서 백제시대 금동신발 한 쌍이 발굴됐습니다. 금강변 북안 나성리 유적 발굴대상지 중 C구역을 발굴 조사한 결과 초기삼국시대~백제시대 주거지 3기와 토광묘 6기, 가마 6기, 수혈유구(구덩이) 67기, 구상유구(도랑) 15기, 굴립주 건물지(기둥을 땅에 박은 건물) 12기 등 총

109기에 이르는 유구와 도로 흔적, 우물터, 목책터 등을 확인했다고 8일 말했습니다.

나성리에는 고려말 충신 임난수 장군과 관련된 유적들이 있고 백제 때 농성 나리재가 있어 개발의 물결로 쓸어버리기에는 아쉬운 곳이었다. 부안임씨의 문중에서는 독락정과 임씨가묘를 보존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바 있었지만, 계속 답을 미루어 오다가 마침 금동신발의 출현으로 나리재 주변과 금동신발의 출토지를 ‘역사문화 공원’으로 건설하기로 확정하였다.

나성리 임씨가묘(기호서사 터) ●●●

나성리 나리재에 위치한다. 임씨가묘林氏家廟는 전서공典書公 임난수林蘭秀의 절의를 기리는 부조묘不祧廟이다. 현재는 독락정獨樂亭 경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본래 양화리에 있었다. 임난수는 고려말 최영장군과 더불어 탐라(제주도)를 정벌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로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자 ‘충신은 불사이군’이라 하여 벼슬을 버리고 공주 삼기촌(현 연기군 남면 양화리)에 은거하여 일생을 마쳤다. 그러한 임난수의 충의를 기리기 위하여 1419년 세종이 사당에 ‘임씨가묘’라 선택宣額하고 불천지위不遷之位로 모시도록 명하고 사제문賜祭文도 내려주었다. 그런데 『전서공파문헌록』의 『행단구사우실기杏壇舊祠宇實記』(상량문)에 의하면, 임난수의 부조묘 창건이 1419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건당시의 상량문은 세종 12년으로 기록되어 있어 1430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때의 건물은 5칸 전후퇴로 되어 있었으며, 종손인 임중林重이 주도하였다.

공주와 연기 등 충청지역에 절의로 새롭게 부각된 부안임씨들은 1710년(숙종 36)에 임난수를 제향하는 부조묘를 확대 발전시켜 기호서사岐湖書社를 건립하였다. 『서원등록書院謄錄』에 의하면 기호서사가 원래 1710년에 ‘세덕



나성리 임씨가묘는 조선시대 기호서사터 이기도 하다.



임씨가묘

사世德祠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어 서하西河 임춘林椿, 전서공 임난수, 부사공 府使公 임목林穆을 병향한 사우로 출발하였다. 그 후 1805년(순조 5)에 임흥林興을 추배하였다. 그러나 1868년(고종 5)에 대원군의 서원 훼철령으로 인하여 위패를 철거하고 향사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때 기호서사의 전서공 위패는 세종조에 부조묘로 인정받았던 사실을 감안하여 유지가 가능했다고 한다. 현재의 임씨가묘는 당시 독락정 경내 기호서사의 옛터에 건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임씨가묘는 삼문과 사우로 구성되어 있다. 삼문은 솟을대문으로 문에는 태극문양이 그려져 있다. 사우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건물 중앙 상단에는 '林氏家廟임씨가묘'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는데, 현판은 신숙주의 아버지인 신장申穰이 썼다. 연기군 향토유적 제42호로 지정되어 있다.

나성리 독락정 ●●●

나성리 나리재에 위치한 누정이다. 부안임씨 연기 입향조인 임난수의 둘째 아들 임목林穆은 나성리에 독락정을 세움으로써 부안임씨의 세력기반을 보다 확고히 하였다. 임목(1372~1448)은 태종조에 생원 진사 양시에 급제하고 음사蔭仕로 벼슬길에 나아가 비인감무庇仁監務, 평양서윤平壤庶尹, 음죽현감陰竹縣監, 홍주판관洪州判官, 함주통판咸州通判 등 여러 고을 수령을 지내며 청렴 검소함을 스스로 지켰다. 후에 양양도호부사를 지내다가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공주 금강 상류에 정자를 지어 '독락獨樂'이라 하고 한가히 스스로 즐기며 여생을 보냈다. 독락정이 건립된 시기는 대략 1407년(태종 7)에서 1422년(세종 4) 사이로 추정되는데, 독락정기를 지은 남수문의 이력과 연령을 고려해 보면, 1439년(세종 21)에 건립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일리가 있다.



독락정에서 바라본 금강



독락정

남수문南秀文(1408~1443)이 『독락정기』를 짓게 된 사연은 기문에 잘 나타나 있다. 즉 그의 부친과 독락정의 건립자인 임목의 친분 때문으로 남수문의 부친이 함주목사로 있을 당시 임목이 함주의 관관으로 있으면서 서로 교분이 매우 두터웠으며, 이에 남수문은 임목을 아버지처럼 섬겼다고 전해진다. 임목이 정자의 이름을 독락이라 한 것은 송나라 정치가 사마광司馬光(1019~1086)이 은퇴하여 만든 정원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독락정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목이 남수문에게 한 이야기의 첫 부분에서 그의 집안이 여러 대를 거쳐 금강 상류에 살아왔다는 사실과 그곳의 땅 이름이 삼기라고 불리게 된 내력, 독락정을 건립하기 전 그곳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공주 금강 상류에서 살아왔는데, 경상·전라·충청의 강물이 이곳에서 합류하기 때문에 그 땅을 이름하여 삼기三岐라 한다. 내가 사는 곳에서 남쪽으로 5리쯤 되는 곳에 끊어진 산이 있는데,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뻗어 2리쯤 가서

재가 작은 봉우리를 이룬 바 긴 대와 무성한 소나무가 뻗뻗하게 우거져서 가히 사랑스럽고, 세 강물이 굽실거리며 동쪽으로부터 그 아래를 둥글게 감싸며 흐른다.

『동문선』 권81, 기, 독락정기

이어서 임목은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 이곳에서 바라보는 사방의 경관을 묘사했다.

내가 일찍이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기이하게 여겨, 시험삼아 한 번 올라가 북쪽을 바라보니 원수산이 성곽처럼 둘러져 있고, 남쪽을 바라보니 계룡산이 하늘에 드높이 솟아 있으며, 동서쪽의 여러 산들이 혹은 조회하는 듯, 혹은 읍하는 듯 하여 기이한 형상으로 보이는 것이 한두 가지만이 아니었으며, 마을과 논밭의 이랑들이 바둑판처럼 멀고 가까이 펼쳐 있었다. 이 때에 강의 평평한 모래밭과 유유히 흐르는 물결이 하늘과 물이 어울려 한 빛이었다. 바람이 불면 푸른 물결이요, 달이 뜨면 은빛 파도였다. 돛과 노, 물고기, 새들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나 잠졌다 떴다 하는 광경이 모두 다 발 밑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산의 층층한 봉우리나 겹겹이 겹친 봉우리들, 큰산의 기슭과 긴 수풀이 가까이는 들판의 푸르름에 이어져 있고, 멀리는 하늘의 푸름에 섞여있다. 더불어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구름과 연기까지도 모두 앉은 자리에서 마주할 수 있다. 또한 밭가는 자, 가축 기르는 자, 고기 잡는 자, 나무하는 자들의 노래하고 서로 화답하는 소리는 물론, 놀이하는 사람이나 길가는 나그네들이 사방 들판에서 구불거리며 끊이지 않는 것도 가히 앉아서 바라볼 수 있다.

『동문선』 권81, 기, 독락정기

그래서 결국은 이 절경을 버려두기가 아깝고, 이를 즐기려는 뜻에서 그 봉우리의 왼편에 터를 닦고 정자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연하면 임목이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자기가 지은 정자에 올라 대자연을 마음껏 즐기면서 흥가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

가하면 당시 사대부들이 명예와 벼슬의 고삐에 얽매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그 아름다움 속에 숨겨져 있는 덕성(德性)을 찾아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세태를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내가 가만히 요새 세상의 사대부들을 보건대 비록 전원이 있어 가히 스스로 즐길만함이 있는 자도 모두 명리(名利)의 고삐에 얽매어서 동서로 분주하여 쉴 때가 없고 심지어는 종신토록 그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자도 있으며, 간혹 돌아오는 자가 있다 해도 또한 산대를 잡고 전곡이나 계산하는데 불과하니 이는 그 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동문선』 권81, 기, 독락정기

남수문은 임목이 많지 않은 나이에 더 누릴 수 있는 벼슬을 과감히 버리고 전원으로 돌아온 결단과 용기, 그리고 대자연의 품속에서 유유히 살아가며 그를 즐기는 고매한 인품 등을 들어 그의 높은 덕망을 찬송하고 있다.

남수문의 독락정기는 서거정(徐居正)에 의해 편찬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공주목(公州牧)」 「고적조(古跡條)」에 전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목의 출처와 독락정에 대해 상찬한 서거정의 2편의 시(讚詩)가 신증(新增)으로 첨부됨으로써, 이제 부안임씨는 연기현 금강유역의 명실상부한 주인으로 행세하게 되었다.

정자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장대석으로 쌓은 기단 위에 8각 고주초석을 두고 그 위에 원주를 올렸다. 이 독락정(獨樂亭)은 주변 경관이 뛰어나 금강 8경중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유적은 현재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64호로 지정되어 있다.



나성리 임난수 장군 신도비

나성리 임난수 장군 신도비 ●●●

나성리 나리재 임씨 가묘 앞에 위치하고 있다. 이 신도비는 숙종 8년 즉 1682년 재실 옆에 건립한 신도비가 풍화로 인해 비문이 훼손되자 후손들이 비문을 그대로 탁본하여 세운 것이다. 비신 전면에는 ‘有明高麗林將軍神道碑유명고려임장군신도비’라고 각서되어 있다. 신도비는 오색으로 되어 있으며, 비신 상단부에는 옥개형의 이수를 올렸다. 비문은 송시열이 짓고 박태유가 썼다. 임씨가묘 앞에는 1992년에 세운 신도비가 한 기 더 있다.

놀왕리는 1914년에 연기군 남면의 청룡리 왕암리 놀왕리 신대리 하눌리가 합쳐져 연기군 남면 놀왕리(訥旺里)가 되었다. 『여지도서』 연기현 방리에는 남면에 놀왕리와 청룡리가 있다. 놀왕리는 연기현 고을의 관문으로부터 7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1759년(己卯帳籍)의 편호가 42호, 인구는 남자 108명, 여자 69명으로 합계 177명이다. 청룡리(靑龍里)는 관문으로부터 10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1759년의 편호가 16호, 인구가 남자 30명, 여자 45명으로 합계 75명이라고 하였다. 이 놀왕리와 청룡리는 『호구총수』 남면에서도 확인된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연기군 남면에 신대리(新垔里) 놀왕리(訥旺里) 하눌리(下訥里) 왕암리(旺岩里) 청룡리(靑龍里)가 수록되어 있다.



조사대상 강진이씨 종파, 죽산안씨 정양공파, 장수황씨 성구공파, 한산이씨 공무공파

『한국지명총람』에서는 느랑이 고개(의랑티)에 대해 느랑이 동쪽에 있는 고개로, 조치원에서 대전과 공주로 통하는데, 1291년(고려 충렬왕 17)에 한희유, 김흔 등이 원나라 장수 설도간, 나만알대왕과 함께 원수봉과 청주 경계에 있는 정좌산에 웅거하였다가, 크게 침입하는 몽고 군사들을 맞아 정좌산 아래에서 싸워 크게 이기고 이 고개에서 또 크게 이겨 공주 고마나루까지 추격하여 섬멸하였는데, 적의 시체가 30여리에 널려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

다. 아마 이 느랑이 고개에서 놀왕리의 지명이 유래한 듯 하다. 또한 월곶골(원곡)에 대해 놀왕리에 있는 마을로, 1428년(영조 4) 신천영 난리 때, 연기현감이 이곳에서 피난했다고 한다. 이 원곡(元谷)은 『호구총수』에도 보인다. 놀왕리는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아직은 예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놀왕리 강진이씨 종파 ●●●

남면 놀왕리 강진이씨의 입향조는 이진(李珍, 1300년대 인물)으로 자는 백고(伯古)이다. 고려 충렬왕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공민왕조에 평리찬성사(評理贊成事)가 되었다. 충선왕이 원에 소환되었을 당시 수행 보좌한 공으로 공신이 되었다. 후에 추사(秋使)로 원나라에 다녀왔다. 후손들의 전언에 의하면, 이진이 남면 놀왕리에 낙향하게 된 것은 고려조에 역적으로 몰려 은거했다고 한다. 강진이씨가 놀왕리에 거주하기 전에는 공산이씨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전해지며, 현재 고정리, 수산리, 갈운리 일대에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다.

강진이씨의 주요인물로는 세조 때 정난원종공신(靖難原從功臣)으로 길주목사(吉州牧使)를 지낸 이터(李摠), 홍문관 부제학 겸 경연참찬관(弘文館副提學兼經筵參贊官)·춘추관 수찬관(春秋館修撰官)을 지낸 이만균(李萬鈞), 학행이 있는 이사경(李思敬)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이만균은 사마방목과 문과방목을 통해 확인이 된다. 본관은 도강(道康), 거주지는 공주이며, 1507년(중종 2)의 식년시에 생원, 1522년(중종 17)의 식년시에 을과로 급제하여 군수까지 지냈다. 도강은 강진의 옛 이름으로, 고려 때의 지명이다. 1417년(태종 17) 도강현과 탐진현을 합쳐 강진군이 등장했다. 일제 강점기인 1935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조선의 성』에서는 놀왕리를 강진이씨가 53호 거주하는 강진이씨 동족마을로 보고하고 있다.



놀왕리 마을에 세워져 있는 공덕비



죽산안씨 납골묘역

놀왕리 죽산안씨 정양공파 ●●●

남면 놀왕리의 죽산안씨竹山安氏 정양공파正陽公派는 관서判書를 역임한 정양 안극창安克昌을 파조로 하고 있으며, 전체 35호 중 24호를 차지한다.

놀왕리의 죽산안씨 입향조는 안제세安濟世(1500년대 후반~1600년대 초)로 호는 놀계訥溪이다. 그의 아버지는 참봉을 지낸 안호문安好問이다. 안제세는 광해군 때에 이이첨의 아들 이대엽이 천거하여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안제세가 놀왕리에 정착하게 된 사유와 정확한 시기는 자세하지 않다. 그러나 그의 호가 '놀계'였다는 점은 놀왕리 입향조라는 사실에 신빙성을 높여준다.

안제세의 증손인 안수安洙는 명이 멸망(1644)하자 은둔하였다. 국사봉 아

래서 대명시大明詩와 채미가採薇歌를 불렀고, 벽 위에 ‘명명’자 두개를 써놓고 지냈으며, 사람들이 그를 숭정처사崇禎處士라고 불렀다고 한다. ‘숭정’은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의종의 연호이다.

놀왕리 장수황씨 성구공파●●●

남면 놀왕리 장수황씨長水黃氏 성구공파는 전체 34호 중 20호가 거주하고 있다. 놀왕리 문암마을의 입향조는 황윤黃玃(1600년대)의 부인 장수장씨이다. 장수장씨는 원래 거주하던 동면 명학리 일대에 전염병이 돌아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아들 황익청을 데리고 보통리 강을 넘어 놀왕리 문암에 피신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때 이 일대에 먼저 거주하고 있었던 강진이씨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놀왕리 한산이씨 공무공파●●●

남면 놀왕리 한산이씨韓山李氏 공무공파恭武公派는 전체 35호 중 16호가 거주하고 있다. 한산이씨의 입향조는 과조 이계린李季麟(1400~?)의 9세손인 이여출李汝植(1650년대)이며, 진사進士를 지냈다. 그의 아버지는 이첨李堧, 어머니는 청주한씨淸州韓氏이고, 부인은 의흥박씨義興朴氏이다. 이여출이 남면 놀왕리에 입향한 사유는 자세히 전해지지 않는다. 남면 놀왕리에는 이여출의 묘와 재실이 있다.



눌왕리 한산이씨 묘역



눌왕리 한산이씨 재실

남면 방축리



조사대상 옥천전씨, 열녀 성씨장씨 생정려, 덕성서원

방축리는 방축이 있었으므로 방축골, 또는 방축方丑이라 하였는데, 1914년에 연기군 남면 방축리 덕동 오산리 왕덕리 정문촌을 합하여 방축리라 하였다. 이 가운데 방축동리와 덕동리는 『여지도서』 방리조와 『호구총수』에 보인다. 방축동리는 연기현 고을 치소로부터 7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1759년(己卯帳

籍)에 편호 8호와 남자 12명 여자 8명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덕동리는 8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1759년의 편호가 11호, 인구는 남자 14명 여자 12명이라고 하였다. 『호구총수』 연기현 남면에도 방축동防築洞과 덕동리德洞里가 보인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연기군 남면에는 방축리方丑里 덕동리德洞里 오산리五山里 왕덕리旺德里 정문촌리旌門村里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방축리는 세종시의 행정중심타운이 자리잡는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각 기관들이 들어올 예정이며 고급 아파트가 건설될 것이다.



방축리 중심에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다.

방축리 옥천전씨 ●●●

연기의 옥천전씨는 1600년대 후반에 전세승^{全世承}이 처음으로 터를 잡은 것으로 알려지지만, 그 정확한 사유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는다. 방축리 정문말에는 1772년(영조 48)에 명정 받은 전오복^{全五福}(1714~1735) 처 창녕성씨 · 전오륜^{全五倫}(1717~1753) 처 결성장씨 쌍정려가 있다.

방축리 열녀 성씨 · 장씨 쌍정려 ●●●

방축리 정문말에는 성씨^{成氏} · 장씨^{長氏} 정문^{旌門}이 있다고 하여 ‘정문말’이라고도 불리었다. 정려는 마을의 북쪽 야산의 남향사면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방축리 성씨 · 장씨 쌍정려



성씨 · 장씨 쌍정려 세종시 건설 공사로 인해 정려가 망망대해에 떠 있는 듯 하다.

열녀 성씨의 장씨의 쌍정려는 1772년(영조 48)에 명정되어 건립되었다. 열녀 성씨威氏의 본관은 창령昌寧이고, 열녀 장씨張氏의 본관은 결성結城인데, 이들은 각각 옥천전씨 전오복全五福(1714~1735)·전오륜全五倫(1717~1753) 형제의 처로 동서시간이었다. 옥천전씨는 1600년대 후반에 전세승全世承이 처음으로 연기에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전오복 형제는 전세승의 5세손이다. 형인 전오복이 1735년(영조 11)에 죽자, 그의 부인 성씨는 따라서 죽었고, 18년 뒤인 1753년(영조 29)에 동생인 전오륜이 죽었는데, 남편을 정성껏 간호하던 부인 장씨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자, 남편이 죽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다는 뜻을 시부모에게 글로 남기고 독약을 먹고 자결하였다. 이 후 남편 전오륜은 약 한달 후에 병환으로 죽었다.

장씨가 죽고 나서 19년 만에 명정을 받게 되는 것은 장씨의 아들이 성장한 후 본격적인 추송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장씨의 두 아들 전현도全顯道와 전이도全以道가 일찍이 송환기宋煥箕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고 하며, 훗날 정려 기문을 송환기가 썼던 것에 비추어 보아 이들이 명정을 받도록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려는 사면에 철책으로 보호시설이 둘러져 있고, 정·측면 1칸에 맞배 지붕을 하고 있다. 겹처마에 정려의 4면에는 홍살이 둘러져 있다. 정려의 중앙 상단부에는 명정현액이 걸려있고, 후면 상단부에는 정려기 2개가 나란히 걸려 있다. 1793년(정조 17)에 송환기가 지은 「이열부정려문二烈婦旌閭文」과 1772년(영조 48) 이조판서 조명정趙明鼎이 짓고, 연기현감 황운조黃運祚가 두 열녀의 열행에 관한 내용을 쓴 「제성장양절부정려후題成張兩節婦旌閭後」가 있다. 연기군 향토유적 제 28호로 지정되어 있다.

방축리 덕성서원 ●●●

덕성서원德星書院은 숭덕사崇德祠를 개칭한 것이다. 1885년(고종 22) 관북지



덕성서원 삼문



덕성서원

방 유림의 발의로 함경도 홍원의 입안사와 경양사를 창건하고 전재 임헌회(任憲晦)를 배향하였다.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제향을 할 수 없자, 1978년 전국유림의 발기로 그의 유허지인 연기군 남면 방축리 성전지구 내덕동에 사우를 복축하고 전우(田愚) 이재구(李載九) 김준영(金駿榮) 이유흥(李裕興) 조홍순(趙弘淳) 임헌찬(任憲瓚) 임헌회(任憲晦) 7인을 추배하고 매년 음력 3월 8일에 향사하였다. 그 후 1990년 가을에 서원이 창건되어, 1996년(병오) 봄 향사에 임헌회의 유허지명을 취하여 덕성서원이라 하고, 사우는 송덕사(崇德祠)라 하였다.

임헌회(1811~1877)는 1871년 공주 삼기(三岐)현 연기군 남면 양화리로 이거하였고, 2년 뒤인 1873년에는 공주 명강동(明剛洞) 공주시 장기면 월송리로 옮겨 살았다. 1874년 조정에서 이조참판에 임명하고 승지를 보내어 나오기를 청하였으나 상소하여 사직하였고, 그 뒤 대사헌(大司憲)·좌주(祭酒) 등에 제수되었으나 역시 나가지 않았다. 그는 경학과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일찍이 이이와 송시열의 학통을 계승하여 주기론(主氣論)을 주장했는데, 이러한 그의 학설은 주리론(主理論)을 주장하는 이항로(李恒老) 문하의 김평묵(金平默)과 대립하게 되어 1862년 서신으로 성리설에 관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또한 임헌회는 천주학을 극력 배척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1902년 윤용선(尹容善)의 주청으로 정2품 자헌대부 내부대신에 추증되었다. 전우(1841~1922)는 한말의 성리학자로 21세에 당시의 거유 신응조(申應朝)의 권유로 서울에서 직접 아산의 신창으로 찾아가 임헌회와 사제의 의를 맺고, 임헌회가 죽을 때까지 아산·전의·연

송덕사 창건비 덕성서원 이전의 이름이 송덕사였다.



기·진천·상주·문천 등지에 따라가 살면서 학문을 연마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이재구는 1836년(헌종 2)에 연기에 서 태어나 전재 임헌회의 문하에서 수학한 뒤, 도학에 전력함과 동시에 14년간을 경적 탐구와 육영사업에 종사했다. 김준영은 1842년(헌종 8) 공주 현암에서 태어나 명도주의(明道主義)에 입각하여 간재 전우에게 사사하였다. 이유흥은 1859년(철종 10)에 천안 증자동에서 태어나 성경효우(誠敬孝友)를 신 조로 하여 병암 김준영에게서 배웠다. 조홍순의 호는 노암(魯庵)이고, 1860년(철종 11) 충북 진천 성암 유동에서 태어났으며, 문예에 능통하였는데 평생 간재 전우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임헌찬는 1876년(고종 13) 연기 맹곡에서 태어났다. 그는 문예에 조예가 깊었고 율곡전집을 탐독하였다. 간재 전우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우면서 예절과 청빈을 실천했다.

덕성서원은 솟을 외삼문 안쪽으로 위치하는데, 주변에 낮은 담장을 둘러 보호시설을 해 놓았다. 사우는 정면 3칸, 측면 2칸에 전퇴칸을 시설하였다. 화강석재의 원형 초석위에 원주를 올렸으며, 겹처마에 맞배지붕을 갖추고 있다. 서원의 양측면 박공 밑에는 방풍판을 설치하였다. 연기군 향토유적 제40호로 지정되어 있다.

보통리는 본래 연기군 군내면의 지역으로, 마을 앞에 연기리에서 오는 보가 통해 가므로 보통, 또는 보통리라 하였는데, 1914년 보통리, 율리와 봉암리鳳巖里 일부를 병합하여 다시 보통리라 하여 남면에 편입하였다. 그런데 보통리의 관련지명을 『여지도서』나 『호구총수』 등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군내면郡內面에는 율리月里와 보통리湫通里가 수록되어 있고, 봉암리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보통리의 제언堤堰은 동쪽으로는 청주 강내면江內面에서부터 동면 용호리龍湖里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청주 옥산면玉山面에서부터 서면 보통리까지 이르는데, 길이 30여 리에 달하며, 1930년 (소화 5)에 비로소 방죽을 쌓아 군내의 물 걱정을 없앴다고 한다. 이병연李秉延의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긴 방죽을 새로 축성築城하였으니,
 마치 이것은 진시황의 만리장성인듯 하네.
 자연히 물 걱정이 없어지니,



보통리



보통리 앞을 흐르는 미호천

연기백성 편안하게 농사 짓겠네.

보통리에는 조선시대 여행객을 접대하기 위해 각 요로要路에 설치한 원院의 하나인 동진원東津院이 있었다. 16세기 문헌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동진원의 위치가 연기현 고을 치소로부터 동쪽으로 5리에 위치한다고 했다.

남면 송담리



조사대상 호자 임명증 정려

송담리는 본래 공주군 삼기면 지역으로 마을 뒤에 소나무가 무성하고, 앞에 큰 연못이 있으므로, 그 뜻을 따서 송담리(松潭里)라 하였다. 1914년 노은리와 나성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다시 송담리라 하여 연기군 남면에 편입하였다.

송담리에 일부가 편입된 나성리(羅城里)는 『여지도서』의 공주목 삼기면 방리조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공주목 고을 치소로부터 북쪽으로 30리에 위치하며, 1759년(己卯帳籍)의 편호가 23호이고, 인구는 남자가 70명, 여자가 82명이라고

하였다. 『호구총수』에는 나성리로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와 호구총구에는 송담리와 노은리가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공주군 삼기면에 나성리 송담리 노은리(老隱里)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송담리는 세종시의 호수공원이 위치할 예정이다. 연못이 호수로 변하여 공원화 된다고 하니, 반가웠다.



송담리

송담리 효자 임명즙 정려●●●

송담리 큰갈피·작은갈피 마을 사이의 소로변에 동향으로 위치하고 있었다. 이 정려는 효자 임명즙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1871년(고종 8)에 세운 것이다.

임명즙(林命楫, 1774~1808)은 본관이 부안(扶安)이고, 자는 백섭(伯涉)이다. 1774년(영조 20)에 임종유(林宗儒)와 전주이씨 사이에서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남달리 효성이 지극하였다. 조부께서 병환으로 눕게 되자, 어린 명즙은 곁을 떠나지 않고 4년 동안이나 간호하였다고 한다.

그는 일찍이 아버지가 너무 늙으셨으므로 과거공부를 사양하고 오직 부모님 돌보기에만 마음을 다하였다. 두 아우와도 우애가 있어 집안 재산을 분간하지 않고 부모를 기쁘게 모셨으며, 부모님이 평소 집안의 노비에 이



임명준 정려

르기까지 모두 자애롭게 돌보았기 때문에, 그 역시 노부 가운데 근면 성실한 자가 있으면 의복 등을 후하게 주어 부모님의 뜻을 따랐다.

1783년(정조 7)에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출상을 하는데, 상여가 지나가는 길에 그의 효성으로 인하여 신이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수년 후 모친께서 단독舟毒이 팔꿈치에 생겨 백약이 무효였는데, 이때에도 하늘이 기도를 들어 주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약이 되는 소리개의 깃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모친이 거동을 할 수 없게 되자 항상 곁에서 시중을 들며 모친의 속옷을 직접 빨고, 변기를 비우는 일까지 몸소 하여 주변 사람들을 수고롭게 하지 않고자 했다.

1803년(순조 3)에 모친이 세상을 떠나니 그는 날마다 애통해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호곡하였으며, 매년 기일에는 마치 상을 당한 것처럼 슬퍼하여 갈수록 몸이 쇠약해져서 모친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뒤인 1808년(순조

8)에 향년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하직하였다. 부인 보성오씨 寶城吳氏와의 사이에 4남이 있어 모두 효자였다.

임명즙은 1808년(순조 8)에 죽었으나 명정 받은 것은 63년 후로, 사후에 어떤 포장작업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그의 묘갈명에 의하면 죽은 후 61년만인 1869년(고종 6)에 호서 선비들이 임명즙의 효행을 통관과 관찰사에게 상언하였다고 한다. 상언을 주도한 인물은 연기의 유림이 중심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안임씨는 연기군에서 가장 크게 번성한 집안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인 전주이씨를 비롯하여 배위 보성오씨 등 연기의 주요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이들 가문의 주도하에 주변의 군 단위 유림들이 참여했을 것이다.

특히 『효행장록후孝行狀錄後』에 의하면 부안임씨 임홍석林弘錫이 1865년에 금곡노옹 錦谷老翁(정려중수기의 '錦谷 宋先生'과 동일인으로 보임)을 찾아가 효행장록을 보여주고 글을 부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역시 후손인 부안임씨가 포장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다. 그리하여 1868년(고종 5) 7월에 『서림거사임공명즙효행장록통문書林居士林公命楫孝行狀錄通文』이 작성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진사 김용현金龍鉉이 상서를 올려 1871년(고종 8) 조정에서는 '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경연참찬관 通政大夫丞政院左丞旨經筵參贊官'을 증직하고 정문을 내렸다. 『부안임씨 전서공파 문헌록扶安林氏典書公派文獻錄』에 그의 효행 기록이 남아 있다.

증직과 명정을 받은 후에는 묘갈명도 지어졌다. 지금까지 임명즙의 묘소에는 표석을 세워놓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때에는 후손인 임동수林東洙와 임인수林仁洙가 비석을 준비하고 비서원승秘書院丞 김보한金寶漢에게 글을 부탁하여 묘비를 세울 수 있었다.

정려의 중수는 1906년 5세손인 임동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려각 내에 걸려 있는 중수기 현판에 의하면 중수직전 정려가 너무 오래되어 건물이 넘어갈 우려가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수리를 계획하였고, 토목

土木 및 와석瓦石을 준비해 수리를 마치니 예전에 추가였던 것이 새롭게 완비되었다고 한다. 그 후로도 몇 차례의 중수가 있었을 것이지만,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유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겹처마에 맞배지붕을 한 건물로, 화강석재를 가공한 방형 기단위에 정려를 축조하였다. 8각의 높은 주초석柱礎石 위에 둥근 나무기둥을 올렸으며, 정려의 아래 부분은 벽돌을 쌓아 막아 놓았다. 4면에 홍살을 돌렸으며, 양 측면의 박공 밑에는 방풍판을 설치하였다. 정려각의 내부 중앙에는 말각 장방형의 화강석 대좌 위에 호패형의 비석을 세웠다. 비석은 높이 약 135cm, 너비 40cm, 폭 14cm 이고 비신 정면에만 “有明朝鮮國孝子 / 贈通政大夫左丞旨林命楫之閭 / 崇禎紀元後五辛未 命旌”라고 음각되어 있다. 정려각의 후면 중앙 상단부에는 1906년에 5세손 임동수가 기록한 가로 60cm, 세로 29cm의 중수기 현판이 걸려 있다.

송원리는 1914년에 장척면의 행리
 촌리 신촌리新村里 원촌리院村里 죽동竹洞
 과 송계리松溪里의 일부, 만자동滿子洞
 의 일부, 원호동遠湖洞의 일부를 병합
 하여 송계와 원촌의 이름을 따서 송
 원리松遠里라 하여 장기면에 편입하였
 다, 1973년 7월 연기군 남면에 편
 입하였다. 『여지도서』 공주목 방리조
 에는 장척동면에 만자동리가 있다.
 이에 의하면, 만자동리는 공주목 고
 을 치소로부터 북쪽으로 30리에 위치
 하며, 1759년(己卯帳籍)의 편호가 60호,
 인구는 남자 81명, 여자 131명이라
 하였다. 『호구총수』 공주목 장척동면에서는 행정리杏亭里 송계松溪 신촌리新
 村里 등이 확인된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공주군 장척면에
 죽동竹洞 행리杏里 만자동滿子洞 송계리松溪里 신촌리 원호동遠湖洞 원촌리院村里
 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조사대상 진주유씨, 호자 이정환·이경실·이경익 정려, 열녀
 일개 열녀비, 입자의·임태선 쌍정려

송원리는 나성리 일부와 더불어 세종시의 문화 도시행정 지역으로 정해
 졌고, 현재 첫마을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12월 26일은 그 첫 입주가 시작
 된다.



세종시 첫마을 입구에 놓여진 한두리 다리



세종보에서 바라본 한두리 다리



세종보에서 바라본 현재 건설중인 금강 3교이다.



세종보에 설치된 수력발전소



송원리에 건설된 첫마을 아파트

송원리 진주유씨 ●●●

송원리 진주유씨의 입향조는 유충걸(柳忠傑, 1588~1665)이다. 그는 관찰사 유진동(柳辰叟)의 증손이며, 통제사 유형(柳珩)의 아들로, 자는 신백(靈伯), 호는 금사(鎡沙)이다. 호가 '금사'인 것은 그가 금강가 북쪽에 위치한 송원리의 입향조였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613년(광해군 5) 정조(鄭造)·윤인(尹訥) 등이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모론을 주장하자 그들의 죄를 강경히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처벌을 당했다. 1618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해 인목대비를 폐하여 서인으로 강등시켜 서궁(西宮)에 유폐하자 이에 분개하여 대과를 단념하고 공주에 은거하였다. 사마방목에는 식년진사 3등 26위로 입격한 유충걸의 거주지가 서울(蔚)로 기재되어 있다.

1623년 인조반정 후 비로소 벼슬에 나갔고,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에는 사재감 직장(司宰監直長)으로 있으면서 의병을 모집하여 남한산성으로

향했으나 화의 성립으로 의병을 해산했다. 그 뒤 세자익위사 익위世子翊衛司翊衛를 거쳐, 현감을 지냈다. 청나라와 화의가 성립된 뒤에 설육책을 상소하였는데, 세자사부로 있던 이유태李惟泰는 그의 상소문을 읽고 그의 충의 심에 감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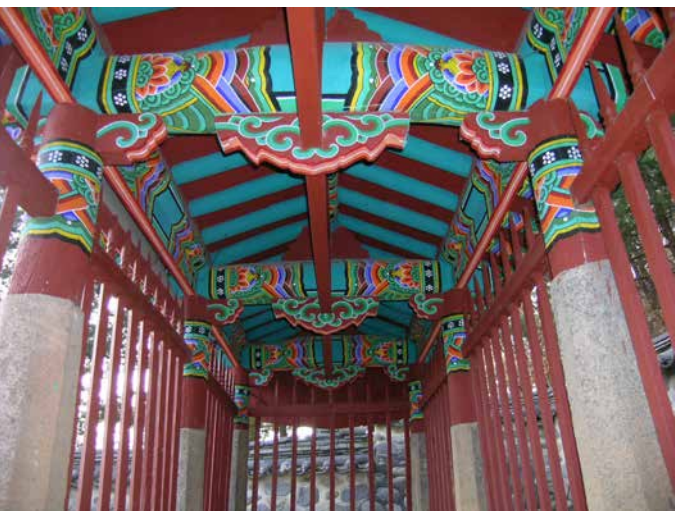
1827년(순조 27) 송원리에 있는 유충걸의 유지遺址에 유진동 유형 유충걸을 제향한 진주유씨 문중사우인 금호서사錦湖書社가 건립되었다가,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당했다. 이 외에도 유지걸 정려, 진주유씨 삼효열 정려 등의 관련유적들이 있었으나, 후손들에 의해 공주 장기면 하봉리, 의당면 송학리 등으로 옮겨졌다.

송원리 효자 이정환 · 이경설 · 이경익 정려 ●●●

송원 1리 만자동 마을 입구에 위치하던 정려이다. 이 정려는 전주이씨 집안의 이정환李廷煥과 그 손자인 이경설李景嵩 · 이경익李景益 형제의 효행으로 건립된 것이다.

이정환李廷煥(1604~1671)은 무오사화 때 화를 입은 한재寒齋 이목李穆의 5세 손으로, 자는 휘원輝遠이고, 호는 송암松岩이다. 1633년(인조 11)에 생원이 되었으나, 병자호란의 국치를 통분히 여겨 외출을 삼가하고 ‘비가悲歌’ 10수를 지었다. 효행 또한 남달라서 부모상을 당하자 6년간 시묘살이를 하면서 죽으로 끼니를 이으니, 그 소문이 퍼져 1666년(현종 7) 현종이 온양 온천에 거둥하던 도중에 이러한 효행사실을 듣고 특별히 백미를 보내어 포상하였다. 1681년(숙종 7)에 명정을 받았고, 1723년(경종 3)에 이세구李世龜가 행장行狀을 짓고 남구만南九萬이 묘표를 썼다.

이경설李景嵩(1650~1708)은 이정환의 장손으로 자는 상우相虞이며, 이경익李景益(1655~1708)은 이경설의 동생으로 자는 공거公擧이다. 두 형제는 효성이 지극하였고 형제가 함께 자라면서 형은 아우 위하기를 내 몸같이 하고,



1	2
3	4

- 1 삼쌍정려 정면
- 2 삼쌍정려 측면
- 3 삼쌍정려 내부
- 4 송원리 삼쌍 정려가 위치했던 마을을 만자동이라고 불렀다.

아우 또한 형의 말이라면 아버지와 같이 받들어 섬기니 보는 이들이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경설이 18세, 경익이 13세 되던 해에 뜻밖에 모친상을 당하자 산소 옆에 초막^{草幕}을 짓고 형제가 조식으로 상식^{上食}을 올리는데 마치 살아계신 분을 모시는 듯 하였고, 스스로 죄인이라 자처하며 죽으로 끼니를 이으면서 3년간 시묘하니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쌍효자라고 일컬었다. 그 뒤 부친에게 더욱 효도하였는데, 비록 가세가 빈약하였으나 부친에게는 항상 하얀 쌀밥과 고기 반찬으로 봉양을 하였으며, 아무리 눈보라가 쳐도 부친의 온돌방에는 훈훈한 열기가 감돌았다고 한다. 형제가 한 울타리 안에서 살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조식으로 문안을 드리니, 이러한 두 아들의 효성으로 부친은 75세까지 편안한 여생을 마치고 눈을 감았다. 이들 형제의 두터운 효행과 뜨거운 우애는 이웃 고을까지 알려졌으며, 1708년(숙종 34) 두 형제가 함께 세상을 떠났으니, 이때 경설의 나이 58세요, 경익은 53세였다.

이정환 정려는 이정환이 1671년(현종 12)에 죽은 후 10년만인 1681년(숙종 7)에 어사의 계략에 의하여 명정을 받았다. 손자인 이경설^{李景設}과 이경익^{李景益}의 효행은 그들이 1708년에 죽기 전인 1699년(숙종 25)에 함께 명정을 받았다. 두세대에 걸친 3인의 효행에 대한 포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경설 형제가 죽은지 15년이 지난 1723년(경종 3)에 조부인 이정환과 함께 사헌부 지평에 증직되었고, 이해 3월에 현존하는 3효자의 정려가 건립되었다. 이러한 추송작업이 대체로 인물의 생전에 이루어지면서 체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공주지역에 거주하던 한재^{寒齋} 후손인 전주이씨들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이경익의 아들 이동명^{李東明}이 1728년(영조 4)에 이인좌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워 원종공신이 되었던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경익은 아들의 공에 의해 1728년에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되기도 했다.

정려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겹처마에 맞배지붕을 하고 있다. 화강암

석재를 가공한 8각의 높은 주초석 위에 둥근 나무기둥을 올렸으며, 정려의 4면은 홍살을 돌렸고, 주변에는 낮은 담장을 돌려 보호시설을 해 놓았다. 정려내부에는 ‘孝子贈通德郎司憲府持平成均生員李廷煥之閭효자증통덕랑 사헌부지평성균생원이정환지려’, ‘孝子贈通善郎司憲府持平李景嵩之閭효자증통선랑사헌부지평이경설지려’, ‘孝子贈通善郎司憲府持平李景益之閭효자증통선랑사헌부지평이경의 지려’라는 명정 현판이 차례로 걸려 있으며, 정려의 정면 중앙에는 성구용 成九鏞이 1969년(己酉年)에 지은 가로 135cm, 세로 41cm 크기의 ‘全州李氏兩世三孝旌閭記전주이씨양세삼효정려기’가 걸려 있다. 연기군 향토유적 제11호로 지정되어 있었다.

일개열려비



송원리 열녀 일개 열녀비 ●●●

송원 1리 새터마을에 있던 열녀비이다. 이 열녀비는 사비私婢 일개一介의 열행을 기리기 위해 1725년(영조 1)에 세워진 것이다. 일개는 예조에서 편찬한 『효행등제등록孝行等第謄錄』의 1729년(영조 5)~1736년(영조 12)까지의 정려질旌閭秩에 공주의 사비로 정려를 받았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명단만을 적은 것이므로 자세한 행적은 알 수 없다. 또한 지역민들도 이 열녀비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알려져 있지 못한 정려비이다.

비는 화강석재를 가공한 가로 58cm, 세로 45cm 크기의 장방형 대좌위에 호

패형의 비신을 세웠는데, 비신은 너비 44cm, 높이 84.5cm, 두께 19cm의 크기이다. 비신의 전면에는 ‘열녀일개지려烈女一介之闈’, 후면에는 ‘崇貞紀元後九十八年十一月 命旌 孫宣守長暨송정기원후구십팔년십일월 명정 손선수장수’라고 각서되어 있다. 열녀비의 후면에는 1725년(영조, 崇禎紀元後九十八年)에 명정되었다고 하여 효행등제등록의 연대와는 차이가 보이지만,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또한 열녀비 후면에는 건립연대와 함께 “孫宣守長暨”라고 쓰여져 있어, 손선수장이 이 열녀비를 세웠음(豎)을 알 수 있는데, 손선수장이 일개의 손자 선수장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다. 열녀비는 현재 연기향토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송원리 임자의 · 임태선 쌍정려 ●●●

송원 2리 마을 입구에 서남서향으로 위치하고 있었다. 이 정려는 임자의(林自儀) · 임태선(林太先) 형제의 효성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임자의(1672~1717) · 임태선(1675~1720) 형제의 본관은 부안이다. 동생 태선은 본명이 태의(太儀)이고 태선은 어렸을 때의 이름이다. 그런데 정려를 청하는 계를 올릴 때 어린 시절의 이름을 사용하여 정려가 내려졌으므로, 명정 현판에는 그대로 태선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이다. 이들 형제는 임난수(林蘭秀)의 후손으로, 아버지 임상담(林尙談)은 형제가 어렸을 때에 돌아가셨으므로, 홀어머니(경주 최씨) 슬하에서 성장하였는데, 모두 어린나이에 효성이 지극하였고, 형제간에도 우애가 깊었다. 어느 날 모친이 병에 걸리게 되자, 형제는 서로 번갈아 가며 병간호를 하였고, 어머니의 똥을 맛보며 병구완을 위해 애를 썼으나,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자, 죽으로 연명하면서 3년간 묘 아래에 초막(草幕)을 짓고 여묘살이를 했다.

임헌회(任憲晦)가 1875년(고종 12)에 지은 『임효자형제정려기(林孝子兄弟旌闈記)』에 의하면, 임자의 · 임태선 형제는 죽은지 30여년이 지난 1752년(영조 13)



송원리 임자의·임태선 쌍정려

에 고을의 선비들이 형제의 효행사실을 수령인 공주목사(송원리가 지금은 연기군 남면에 속해 있으나, 1973년 까지는 공주에 속해 있었다.)에게 호소하였고, 수령이 감영에 보고하였으며, 감영에서는 조정에 아뢰어, 조정으로부터 명정을 받았다

고려 정려 안에 걸려있는 명정 현판에는 임자의·임태선 형제가 모두 '통정대부 정3품 비서감승'에 증직되었으며, 명정시기도 '영종대왕 29년 임신 8월'이라고 적혀 있어서 기문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 명정 현판에서 영조 29년을 임신년이라고 표기한 것은 즉위년 칭원법에 의한 연대표기로 생각된다. 유년 칭원법에 의하면, 영조 29년은 계유년(1753)이고, 임신년은 영조 28년(1752)에 해당한다. 아마 1752년에 정표를 청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15년이 지나 명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먼저 명정을 받았다가 후에 추가로 증직을 받은 것이 아닐까 추측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정려 앞 안내판에는 '선조께서 통정대부비서 通政大夫秘書를 증직 贈職하고 명정 命旌으로 정문 旌門을 건립'하였다고 적혀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정려가 세워진 후 몇 차례의 중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정려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건물로 겹처마에 맞배지붕 양식을 하고, 4면은 홍살을 돌렸으며, 정면의 상단부에는 ‘쌍효자정각 雙孝子旌閣’이라는 현판을 걸어 놓았는데, 최근에 새롭게 정비를 마친 상태이다. 정려의 내부 중앙 상단에는 붉게 칠한 명정현판을 걸어 놓았고, 후면 상단에는 정려기가 걸려 있다. 명정현판에는 ‘孝子 贈通政大夫正三品 秘書監丞林自儀 贈通政大夫正三品 秘書監丞林太先 兄弟之間 효자 증통정대부정삼품비서감승임자의 증통정대부정삼품비서감승임태선 형제지려’라고 새겨져 있으며, 가로 188cm, 세로 46cm의 크기이다. 그 후면에 걸려 있는 ‘林孝子兄弟旌閣記 임효자형제정려기’는 1875년(고종 12)에 임헌회(任憲晦)가 술술한 것으로, 가로 154cm, 세로 38cm 크기이다. 연기군 향토유적 제12호로 지정되어 있었다.

남면 수산리



수산리水山里는 1914년 연기군 남면의 수산리 국사리國士里 대천리臺川里를 병합하여 수산리라 하였다. 수산리와 국사(동)리는 『여지도서』와 『호구총수』에도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 연기현 방리조에는 남면 수산리秀山里가 관문으로부터 15리에 위치하며, 1759년(己卯帳籍)의 편호가 12호, 인구는 남자 18명, 여자 22명이라 하였고, 국사동리國士洞里는 관문으로부터 15리에 위치하며, 1759년의 편호가 10호, 인구는 남자 14명, 여자 34명이라고 하였다. 『구한국지방행정구

역명칭일람』 연기군 남면에는 수산리水山里, 국사리, 대천리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수산리 입구



수산리 마을회관

남면 양화리



조사대상 부안임씨 전서공파, 송모각, 임상협 처 한산 이씨 정려비, 임준 묘소

양화리는 1914년에 연기군 남면 원암리 元岩里 학천리鶴川里 월룡리月龍里 내산리內山里 양화리陽化里 평촌리平村里와 공주군 삼기면 평촌리坪村里 서근소리西斤所里 기양동岐陽洞 행단동杏壇洞 봉산동鳳山洞이 합쳐져서 연기군 남면 양화리가 되었다.

그런데, 양화리를 이룬 여러 촌락명을 『여지도서』 충청도 연기현 남면과 공주목 삼기현에서는 찾을 수 없고, 『호구총수』에서는 충청도 연기현 남면에 양화동陽化洞, 공주목 삼기면에 기양리岐陽里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서는 연기군 남면의 월룡리 학천리 원암리 내산리 평촌리坪村里 양화리, 공주군 삼기면의 행단리 봉산동 평촌리 기양동 서근소리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양화리는 마을 뒤쪽으로 전월산이 있고 앞으로 보이는 넓은 들판이 장남평야이고 장남 평야와 나란히 흐르고 있는 강이 금

강이다. 이곳은 세종시의 녹지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양화리마을



장남평야의 거울



양화리 가학마을 유래비

양화리 부안임씨 전서공파 ●●●

연기군에는 여말부터 이곳에 정착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부안임씨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로 편입되는 연기군 금남면, 남면, 동면 지역에는 부안임씨扶安林氏가 절대 다수 거주해 왔다. 부안임씨의 연기 입향조는 전서공典書公 임난수林蘭秀(1342~1407)로 알려져 있으며, 입향한 곳은 양화리이다. 부안임씨扶安林氏는 고려 초 평장사平章事를 역임하고 평원부원군平原府院君에 봉해진 임수미林季美를 시조로 한다. 임난수는 부안임씨 전서공파典書公派의 파조이다.

임난수는 전라도 보안현保安縣(현 전북 부안)에서 아버지 임숙林淑과 어머니 유씨劉氏사이에서 태어났다. 32세의 나이로 공민왕 23년에 최영 장군과 함께 탐라를 정벌하여 큰공을 세웠는데, 당시 오른쪽 팔을 적에게 잘리자

잘린 팔을 화살 통에 꽂고 계속 싸워 전승으로 이끌었다는 일화가 전해 온다. 흥복도감興福都監 녹사錄事, 낭장郎將·호군護軍 등 11관官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공조전서에 올랐으나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자 한 하늘에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관직을 버리고 충청도 공주목 삼기촌(현 연기군 남면 양화리)에 낙향하여 생활하다가 1407년(태종 7)에 생애를 마감했다고 한다.

임난수가 죽은 뒤, 십여 년이 지난 1419년에 고려의 유신으로 조선조에 벼슬하지 않은 임난수의 사당에 ‘林氏家廟임씨가묘’라 선택하고, 불천지위不遷之位로 모시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사패지賜牌地로 ‘나성일구강산羅城一丘江山’을 하사하였다. 아마 이 때에 하사받은 사패지가 고려시대 절터가 있던 나성리 일대와 현재의 양화리 부근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제 이 지역이 조선조 이후에는 부안임씨의 500년 가전지家傳之地가 되었고, 임목의 독락정도 이러한 사정 가운데서 조영된 것이었다. 당시 내려준 사제문賜祭文에는 전서공의 품격을 말하되 ‘시기를 도울만한 기락을 운영하고 세상을 덮을만한 공훈을 세웠다’라 하였다. 아울러 이때에 치제문을 지어 청양현감 김미金敎에게 제사토록 하였다.

1682년(숙종 8) 송시열이 찬하여 건립한 고려임장군신도비高麗林將軍神道碑에서 ‘전서공의 몸을 지킴이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와 같다’라고 평하고 있듯이, 임난수의 행적과 의식은 불사이군의 충절을 실행한 인물로 기록된다. 이러한 임난수가 조선 건국기에 불사이군의 충정을 가슴에 품고 공주 금강변의 삼기촌에 은거하게 된 동기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연기 지역의 부안임씨들은 전서공 임난수를 그들의 입향조로 인정하고 있으나, 남수문의 독락정기에 의하면, 임난수의 둘째 아들이며 독락정을 세운 임목이 ‘우리집안은 대대로 공주 금강 상류에서 살아왔다’고 술회한 것으로 보아, 부안임씨는 임난수 이전에 이미 금강 유역에 일정한 터전을 마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말 충청지역 은거 성씨들의 입향조가 회덕황씨 호부전서공파, 안동김씨 전서공파, 순천박씨 전서공파 등 전서



여름의 양화리 은행나무

공 임난수와 같이 대부분 전서공이라는 사실도 흥미롭다.

삼기촌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의미에서 ‘삼기_{三岐}’ 또는 세 거리라 불리기도 하고, 또는 대를 이어 산다는 의미로 ‘세거리_{世居里}’라 불리우고 있는데, 현재의 양화리 진의리 월산리 송담리 나성리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지역적 범위를 지니며, 금강변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서 육로와 수운의 이로움을 모두 갖춘 곳으로 선사시대부터 문화가 발달했던 곳이다. 이와 같은 입지적 요인이 전서공 임난수가 이곳에 자리를 잡도록 했고, 나아가 600여 년간 그 후손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고 대대로 지키도록 했을 것이다.

현재 연기지역 내의 부안임씨는 남면 양화리를 중심으로 고정리 월산리



겨울의 양화리 은행나무

송담 1·2리 등으로 분과되어 거주하고 있다. 양화리 일원에는 전서공 임난수의 입향과 은거 생활에 관련되는 전설과 일화들이 적지 않게 남아 전하고 있다. 그 진위나 사실의 근거는 정확하지 않지만, 후손들에 의하여 구전되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나성리 석불과 관련된 임장군 설화가 있다. 나성리의 부처는 옛날 임장군이란 분이 멀리 서역국에서 가지고 와서 겨드랑이에 끼고 금강을 뛰어 건너 나성리에 세웠다는 것이다. 강을 뛰어 건널 때에 임장군은 쇠나무개를 한 짝 물속에 빠뜨렸으며, 원래 이 부처는 상당히 신장이 큰데 기운이 센 임장군이 땅속에 힘껏 꽂았기 때문에 흙 속에 묻힌 길이가 지상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임난수 장군이 고려를 생각하며

시간만 나면 올라가 고려수도인 개경을 향하여 무릎 꿇고 목상에 잠기곤 했다하는 전월산 정상에 상려암(想麗巖)이라는 바위가 있으며, 조석으로 개성을 향해 왕에게 예를 올렸다는 부왕봉(俯王峰)도 전월산에 있다. 전월산 정상 부에 있는 용천(龍泉) 또는 영천(靈泉)이라 부르는 우물도 전서공이 고려 임금의 안녕을 기원하였다고 전해지는 전설이 담겨있다. 이 외에 양화리 정자동의 구 행단 자리에 서 있는 은행나무는 압각수(鴨脚樹)라고 불리는데, 이 고목은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전서공 임난수가 이 마을에 은거하면서 집 주변에 심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제 강점기인 1935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조선의 성』에서는 양화리를 부안임씨 가 176호나 거주하는 부안임씨 동족마을로 보고하고 있다.

양화리 송모각 ●●●

양화리 골말 마을 가운데 위치한다. 마을 뒤쪽의 ‘전월산’의 서향사면 하단부에 남서향한 상태로 축조되어 있다. 송모각은 임난수의 부조묘가 있던 곳으로, 1407년(태종 7년) 6월 21일 임난수가 세상을 떠나자 자손들은 연기군 동면 불파미에 묘를 쓰고 가묘를 세웠다. 1419년 세종이 고려의 유신으로 조선에 벼슬하지 않은 임난수의 충절을 가상히 여겨 임난수의 사당을 ‘임씨가묘(林氏家廟)’라 선택하고 불천지위로 모시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사패지로 일구장산을 하사하고 세금을 면제하였다고 한다.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독락정 경내의 기호서사를 지키기 위해 신주 일부를 그 곳으로 옮겼으며 1923년 이곳에 유지의 비를 건립하였다. 1957년 서울 시공관에서 전국 임씨 총회를 거쳐 향단예다 건물을 중수하고 송모각 복원을 추진하였는데, 임지수 임교승 임헌빈 임봉수 등이 주관이 되어 1958년 삼문이 건립되고, 5년 후인 1964년 3월에 본전이 복원되었다. 송모각에는 부안임씨 시조 임팔급(林八及)을 비롯해 임몽



양화리 승모각

주林夢周 임자미林自美 임희林曦 임견미林見美 임기미林箕美 임계미林季美 임비林庇
 임춘林椿 임난수林蘭秀 임목林穆 임숙林淑 임흥林興 임완林完 임윤덕林允德 등 14
 인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매년 음력 10월 3일 전국의 부안임씨들이 모
 여 제향을 지낸다.

건물은 삼문과 사우로 구성되어 있는데, 삼문은 솟을대문형식으로 겹처
 마에 초익공 양식을 하고 있다. 내부 중앙에 서 있는 사우는 정면 5칸, 측
 면 3칸의 정남향 건물이다. 사우의 중앙과 좌우 양측에 계단이 있는 화강
 암 기단 위에 낮은 원형의 초석을 깔고 둥근 기둥을 세웠는데, 기둥은 약
 간의 배흘림 양식을 보인다. 각 칸의 정면에는 4합문을 달았으며, 창방 위
 에는 창살을 둘렀다. 지붕은 다포 양식의 화려한 익공과 겹처마에 맞배지
 붓을 올렸고, 지붕의 양 측면 박공 밑에는 방풍판을 설치하였다. 건물 중
 앙에는 ‘숭모각崇慕閣’이라고 음각된 현관이 걸려 있다. 사우의 서쪽 측면에
 는 1923년에 세운 ‘임씨가묘유지林氏家廟遺址’라고 음각된 화강암석재의 호
 패형 비석이 서 있다. 연기군 향토유적 제35호로 지정되어 있다.

양화리 임상협 처 한산이씨 정려비●●●

양화리 양화천 도로변에 동향으로 열녀 한산이씨 정려비가 있었다.

이 비석은 남편을 여의고 과부였던 임상협林尙謙의 처 한산이씨가 병자
 호란 때 정절을 지키고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열행을 기리기 위해 1666년
 (현종 7) 명정 받아 세워진 것이다. 명정 직후에 정려가 세워졌는지의 여부
 는 확인되지 않고, 열녀비의 기록에 의하면 1749년(영조 25) 현감 이희기李羲
 耆가 비문을 지었다고 되어 있다. 비석은 이수를 올린 형태로 비신과 이수
 가 일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수는 단정한 구름 문양이 조각되어 있다.
 비석의 크기는 109×50×18cm이다. 비신에는 전면에만 글씨가 새겨져 있
 는데, 중앙에 ‘열녀생원임상협처한산이씨지비烈女生員林尙謙妻韓山李氏之碑’라고



양화리 한산이씨 열녀비 현재는 이곳에 없다.



양화리 한산이씨가 순절한 연못이 있던 자리

음각되어 있고, 좌우에 열행 사실과 비석을 세운 연월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열녀비 위치에서 북쪽으로 약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열녀배미가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열녀 이씨가 몸을 던졌던 연못이 있던 곳이라고 한다. 전에는 열녀못 이라고 불리었으나, 후에 논으로 바뀌어 이 일대가 열녀배미라고 불리웠었다. 그 위치를 알리는 표석을 놓아 양화리를 지날때는 열녀못의 위치를 볼 수 있으나 정려비는 후손들에 의해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로 옮겨져 이곳에서는 볼 수 없다.

양화리 임준 묘소 ●●●

양화 2리의 끝 마을인 상촌의 부안임씨 선산인 묘지 내에서 가장 끝에 위치한다. 임준(林俊)은 본관이 부안으로 양양부사로서 관직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와 독락정을 지은 목(穆)의 손자이며, 첨사 지(趾)의 아들이다. 어려서 부터 경전과 사서(史書)를 널리 통달하였으며, 문음으로 벼슬길에 나가 선공



- | | |
|---|-------------|
| 1 | 1 양화리 임준 묘 |
| 2 | 2 양화리 임준 묘비 |

감과 전생서의 주부를 지냈다. 얼마 안 되어 영진(榮進)에 뜻이 없어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여 산수를 소요하며 지냈다. 부귀를 멀리하여 주위에서는 세상에 드문 일사(逸士)라며 칭찬이 자자하였다는 내용이 읍지에도 보인다. 부인은 영산신씨로 목사 신복유(辛復儒)의 딸이며, 5남 2녀를 두었다. 묘소에는 문인석 2기, 망주 2기와 상석, 묘비가 있다. 묘비는 전형적인 조선전기 양식이며, 묘비 전면에는 '典牲署主簿扶安林公俊之墓 恭人靈山辛氏祔 壬左 庚辰十月 日立'이라고 쓰여 있다. 풍화로 인하여 묘비의 건립연대를 알 수 없다. 크기는 21×57×81cm이다.

남면 연기리



조사대상 진양하씨 군사공파, 진주정씨 연일파, 평택임씨 현감공파, 창원황씨 부사공파, 영양천씨 통덕랑공파

연기리는 1914년에 연기군 군내면 서부리西部里 중부리中部里 북부리北部里 신촌리新村里 교촌리校村里 암천리岩川里를 합하여 교촌리라 하여 남면에 속하게 하고, 남면 면사무소를 이곳에 두었다. 교촌리는 1917년 10월 1일에 연기리로 개칭되었다.

이들 지명은 『여지도서』와 『호구총수』의 연기현 읍내면 방리에 모두 보인다. 『호구총수』의 경우에는 방리명이 암천리巖川里 교촌 중부 북부 서부 신촌 등으로 수록되어 있다. 『여지도서』를 토대로 연기현 관문으로부터의 거리, 1759년(己卯帳籍)의 편호와 인구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연기리



연기향교

〈표 7〉 여지도서 방리 중 연기리 지역

방리명	관문으로부터의 거리	편호	인구		
			남자	여자	계
암천리	5리	10호	22명	28명	50명
교촌리	3리	21호	32명	29명	61명
중부리	2리	43호	83명	81명	164명
북부리	2리	12호	24명	23명	47명
서부리	1리	6호	11명	11명	22명
신촌리	5리	18호	28명	35명	63명
계	1리~5리	110호	200명	207명	407명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연기군 군내면에는 암천리 교촌리 신촌리 서부리 중부리 북부리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연기군 남면 연기리는 조선시대 연기현의 관아가 있던 마을이었지만, 현재는 많이 축소되어 일

개 면의 소재지로 남아있다.

이곳은 조선시대 까지도 경기도와 경상도 전라도로 가기 위해서는 지나야 하는 삼기촌이 있던 마을이었고 금강을 통해 물자의 교환이 이루어지던 교통의 중심지였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으니 큰 마을이 형성되기에는 좋은 조건이었던 것 같다.

연기리 진양하씨 군사공파 ●●●

연기 1리 진양하씨晉陽河氏 군사공파郡事公派는 전체 320호 중에서 15호가 거주하고 있다. 남면 연기 1리 진양하씨 군사공파 입향조는 하왕河瀆(?~1425)으로 아버지는 청주목사淸州牧使를 지낸 하자종河自宗(1350~1433)이며, 어머니는 진주정씨(1347~1431)이다. 부인은 안동권씨安東權氏이며 3남 3녀를 두었다.

하왕은 아버지인 하여종이 1385년 청주목사淸州牧使에 임명되어 부임하자, 아들인 하왕이 풍치 좋은 연기리에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이며, 근방인 청원군 강외면 석화리에도 진양하씨 군사공파가 거주하고 있다. 하왕은 병조판서南平文譜作 兵曹判書를 지냈으며, 하왕의 아들 하정수河程秀는 목천현감木川縣監을 지냈고, 하정발河程拔은 봉산군수鳳山郡守를 지냈다. 하옥河沃은 홍문관 교리弘文館 校理를 지냈다.

연기리 진주정씨 연일파 ●●●

연기 1리의 진주정씨 연일파 입향조는 정업중(1480~1541)으로 자는 경지敬之이다. 아버지는 정지중鄭知宗이며 어머니는 부여서씨, 부인은 죽산안씨이다. 가선대부로 동지중추부사를 지냈다. 정업중은 원래 충북 청원군 현도면 일대에 거주하다가 500여 년 전 연기 남면 연기리 고자동으로 이거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입향 유래에 대해서는 자세히 전해지는 바가 없다. 정업중의 묘는 원래 고자동에 있었으나 최근 서면 와촌리 매봉 아래에 이장하였다.

연기리 평택임씨 현감공파 ●●●

연기 1리의 평택임씨平澤林氏 현감공파縣監公派의 입향조는 임승렬林承烈(1500년대 후반)이다.

후손들의 전언에 의하면 임승렬이 형인 임승번林承蕃과 함께 임진왜란을 피해 전라도 옥구에서 이거, 서면 기룡리에 입향하여 세거지를 이루었고, 임승렬은 남면 연기리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주요 관련 인물로는 1900년대 초 연기군수로서 연기리에 배달학교를 세운 임동훈林東勳이 있다. 그는 3.1독립운동 당시 사재를 털어 지원한 것으로 유명하다.

연기리 창원황씨 부사공파 ●●●

연기 2리의 창원황씨昌原黃氏 부사공파는 전체 56호 중 10호가 거주하고 있다. 연기 2리의 창원황씨 입향조는 황귀하黃龜河(1700~1772)로 파조의 13세 손이다. 그의 아버지는 황현黃鉉(1685~1747)이고, 어머니는 경주이씨慶州李氏(1685~1744)이며, 부인은 보성오씨寶城吳氏(1710~1773)이다.

황귀하는 원래 충북 청원군 현도면 중촌리 보성오씨 집성촌에 살았으나, 보성오씨와 혼인한 뒤 장인 장모 처제 2명과 함께 보통리 강을 건너 든지미(월산공단)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교촌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고 한다. 창원황씨는 연기 2리 외에 남면 방축리에도 거주하고 있다.

연기리 영양천씨 통덕랑공파 ●●●

영양천씨 穎陽千氏의 시조 천암千巖은 명나라초에 조신을 지냈고 그 후손이 영양에서 살았다고 하며 원래 중국 성씨이다. 영양 穎陽은 중국 노릇나라의 지명으로 지금의 하남성 등봉현 영양진이다.

중시조 천만리千萬里(시호는 충장)는 명나라 말기에 문과에 장원하고 태청진 수위사 겸 총독 오군수를 역임하고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조병영양사 調兵領糧使 겸 총독장總督將으로 두 아들 천상千祥 천희千禧를 데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군량수송을 담당 하였고, 평양 곡산 동래 등지에서 전공을 세웠다. 그 후 정유재란 때에도 직산, 울산 등지에서 전공을 세우고 우리나라에 귀화 하자 조정에서 가상히 여겨 자헌대부에 봉하고 화산군에 봉했다.

연기리의 영양천씨는 1900년을 전후해서 입향한 것으로 후손은 말한다. 제보자의 증조부 가 처음 이곳에 왔다는데, 근거로는 증조부의 묘소가 보통리에 있고 할머니가 말했던 내용으로 그렇게 확인한다 하였다. 증조부와 함께 금강에서 소금배일을 하던 할아버지는 당시 봉기리에 살던 파평 윤씨 가문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가까운 이곳 연기리로 정착을 했다고 한다. 연기리 이전의 거주지는 부여 은산이었다고 한다. 서해에서 소금배가 금강을 따라 부강까지 올라오던 시기가 1920년경까지였고 당시 강의 물길은 봉기리 마을 앞을 흐르고 있었다. 증조부를 따라 뱃일을 하던 할아버지는 후에 소작농으로 연자 방아간을 운영했다고 한다. 아마 도로의 발달로 인해 수로의 이용이 쇠퇴하는 1920년 이후에는 직업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남면 월산리



조사대상 호자 임수준 정려, 제산정

월산리는 1914년 연기군 남면의 개동(介洞) 대동(大洞) 화연리(花硯里)를 병합하여 전월산의 이름을 따서 남면 월산리라 하였다. 갯골(개동, 제동)은 전월산 북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介’자 모형으로 되었다 한다. 효종 때 이 마을에 황씨 학자가 있었는데, 우암 송시열이 방문하고 제동으로 고쳤다고 한다.

『여지도서』 연기현 방리조에는 남면에 개동리와 대동리가 있다. 개동리(蓋洞

里)는 연기현 관문으로부터 8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1759년(己卯帳籍)의 편호가 22호, 인구는 남자 48명, 여자 33명이며, 대동리(大洞里)는 10리의 거리에 위치하고, 1759년(己卯帳籍)의 편호가 21호, 인구는 남자 45명, 여자 65명이라고 하였다. 『호구총수』에는 개동 대동 화연리 등은 없고, 석연리(石硯里)가 수록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에는 석연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지명이 곧 화연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연기군 남면에도 화연리(花硯里) 대동리(大洞里) 개동리(介洞里) 등이 있다.

월산리는 세종시로 편입되기 전에도 산업기반의 시설들이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세종시 건설 계획에도 월산리를 첨단산업 단지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제산정과 황골

월산리 효자 임수준 정려●●●

월산리 마을 입구의 동남쪽 도로변에 북동향으로 위치하고 있었으며, 정려 주변으로는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다. 부안임씨 임수준의 효자 정려는 1904년에 명정을 받아 건립된 것이다.

임수준(林秀俊, 1810~1875)은 본관이 부안(扶安)이고, 자는 사민(士民)이며, 호는 소재(素齋)이다. 1810년(순조 10)에 남면 월산리에서 태어났는데, 타고난 성품이 온화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부친이 돌아가시자 나이 6세에 3년간 상복을 입고 죽으로 연명하였으며, 머리도 깎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그는 학문에도 뛰어나 벼슬에 오르기도 하였다. 그 후 그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와 후배양성에 전력하던 중 병인양요(1866년)가 일어났는데, 때마침 극심한 가뭄이 겹쳐 난민이 발생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쌀 100가마를 이웃에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송병선(宋秉璿)이 쓴 묘비명에 의하면, 1870년(고종 7) 임수준이 사망한 후,



- | | | |
|---|---|----------------|
| 1 | 2 | 1 임수준 효자 정려 현판 |
| | | 2 임수준 효자 정려 |
| 3 | | 3 임수준 효자 정려비 |



본도本道 유학幼學 이봉선李鳳善 등이 임수준의 효행 사실을 상신한 것은 1884년(고종 21)이었다. 이때 조정에서 통훈대부 사헌부 감찰通訓大夫司憲府監察로 증직하였다. 그리고 1904년(광무 8)에는 또 한번 고을의 선비가 장예원掌禮院에 청하여 정려를 받기에 이르렀다.

정려주변은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으나, 정려 중수 사적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알 수 없다. 연기군 향토유적 제14호로 지정되어 있었다.

월산리 제산정 ●●●

제산정霽山亭은 월산리 황골 입구의 도로변에 남동향하여 위치하고 있다.



1 2 1 제산정 현판
2 월산리 제산정

이 정자는 같은 마을에 있는 임수준 정려(1904년 명정)와 비슷한 시기에 건립을 추진하였고 1919년경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효자 임수준의 둘째 아들인 임영휴(林永休)가 1905년 이후에 정자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죽자, 그 아들인 임헌두(林憲斗)가 이어서 완성을 보았다. 임영휴는 성품이 곱고 학덕(學德)이 출중하여 비서승(秘書丞)까지 오른 인물로, 물려받은 천석지기를 줄이면서 이웃을 도왔으며, 후덕한 성품을 근동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정자를 완성한 임헌두는 아버지인 임영휴의 호를 따서 정자 이름을 '제산정(臺山亭)'이라 하였다.

정면 4칸, 측면 2칸의 건물로 화강석재를 이용한 8각 초석 위에 원형 기둥을 올렸다. 가구 양식은 이익공이며, 겹처마를 한 팔작지붕을 하고 있다. 창방과 평방 사이에는 각각 2개씩의 화반 대공을 올리고 있으며, 어칸 상단부에 '제산정'이라고 각서된 현판이 걸려 있다. 정자 내부 중앙에는 김녕한(金甯漢)이 지은 정자기가 걸려 있고, 좌측에는 임장우(林章佑)가 지은 정자기가 걸려 있다.

남면 종촌리



조사대상 이유태 묘소와 신도비

종촌리는 1914년에 공주군 삼기면의 종촌리 진의동(일부) 송담동(일부) 도산동 유계리 이산동 화옥리 도잠리와 연기군 남면 도잠리가 합쳐져 연기군 남면 종촌리가 되었다. 『여지도서』 공주목 방리조에는 삼기면에 화옥동 리禾玉洞里가 있다. 공주목 관문으로부터 동북방향으로 35리의 거리에 위치하며, 1759년(己卯帳籍)의 편호가 14호,

인구는 남자가 67명, 여자가 70명이라고 하였다. 『호구총수』 공주목 삼기면에는 유계 도잠리 이산소 소진의 종촌리宗村里 화옥동 등이 실려 있다. 그러나 연기현 남면에는 도잠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공주군 삼기면에는 종촌리 이산동 봉산동 도산동 도잠리道峯里 화옥리 진의동 송담리 유계리가 모두 보이며, 연기군 남면에도 도잠리道峯里가 있다.

종촌리(밀마루, 종촌, 장터, 장대)는 낮은 산등성이 있으므로 밀마루 또는 종촌이라 하며, 또 시장이 있으므로 장터 또는 장대라 하였다고 한다. 종촌리는 일제 강점기인 1935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조선의 성』에서 창원황씨가 48호 거주하는 창원황씨 동족마을로 보고하고 있다.



밀마루 전망대



중촌리 건설의 현장

이곳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 건설 현장을 한눈에 살필 수 있다. 아파트 9층 높이의 밀마루 타워가 세워졌기 때문이다.

종촌리 이유태 묘소와 신도비 ●●●

이유태 묘소는 종촌리 도림이 마을에서 남쪽으로 약 100m 정도 떨어진 낮은 구릉에 위치하고, 신도비는 논과 구릉과의 경계지점이 되는 길가에 위치하고 있다.

이유태는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으로 김집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권시와 함께 충청오현으로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산림학자이다.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는 태지泰之, 호는 초려草廬이며, 1607년(선조 40)에 금산 노동리에서 유학 이서李耬의 셋째아들로 태어났다. 18세부터는 연산에 거주하던 김장생·김집 부자에게 사사하면서 그 문인들과 친교를 맺었는데, 특히 1년 연상인 동춘 송준길과 같은 나이인 우암 송시열과는 우의가 남달랐다. 이유태는 송시열과 절친한 친우이자 동학으로서 그의 정치적인 입장도 송시열과 비슷하였다. 그리하여 1660년(현종 1)에 발생한 1차 예송에서는 송시열·송준길과 함께 기년설年說을 주장하여 남인과의 예송을 승리로 이끌기도 하였다. 그러나 1674년(현종 15)에 시작된 2차 예송에서 패배하면서 윤휴尹鑄 등 남인의 탄핵을 받아 영변에서 5년 반 동안 유배생활을 해야 했고, 이 기간 동안에 절친하던 송시열과의 관계마저도 예론 논쟁과 연관된 알력으로 소원해지게 되었다. 이에 이유태는 1680년(숙종 6) 경신환국으로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 더 이상의 정치활동은 하지 않고, 공주의 중동에서 독서로 여생을 보내다가 1684년(숙종 10)에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881년(고종 18) ‘문헌文憲’의 시호를 받았으며, 문집인 『초려집草廬集』이 전해지고 있다. 공주의 용문서원에 제향되어 있다.



초려 이유태 선생 묘역



초려 이유태 선생 묘역의 성역화를 요구하는 현수막



초려 이유태 선생 신도비

이유태의 묘소에는 ‘草廬先生之墓 貞夫人平山申氏附左초려선생의 묘이며, 정부인 평산신씨는 왼쪽에 합장되어 있다’라고 쓴 상석과 좌우의 석주가 있을 뿐 별다른 석물은 세워져 있지 않다. 신도비는 1883년(고종 20)에 건립한 것으로, 화강 석재를 가공한 너비 80cm, 높이 120cm, 두께 30cm의 방형대좌 위에 오석의 비신을 올렸다. 비신은 너비 81cm, 높이 208cm, 두께 38cm의 크기이며, 비신 상단부에는 옥개형의 이수를 올렸는데 너비 127cm, 높이 70cm, 두께 87cm이다. 비문은 김상현金尙鉉이 짓고, 김영목金永穆이 글씨를 쓰고, 김병시金炳始가 전篆하였으며, 1883년 10월에 7세손인 이경소李鏡所가 비석을 세웠다.

이곳은 세종시 중심지역에 해당한다. 문중에서는 이유태 선생의 묘역과 신도비가 현 위치에 그대로 보존되기를 희망하지만, 건설청에서는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문중과 건설청과의 협의가 잘 안되는 것인지 이전도 안되고 보호조치도 안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웠다.

진의리(긴여울, 진여울, 진탄, 진의)는 공주군 삼기면에 속해 있었다. 앞 금강의 여울이 길므로 긴여울, 또는 진탄, 진의라 했는데, 1914년 공주군 삼기면의 창동 덕암동 가정리 성전리 송현리와 연기군 남면 북룡리를 병합하여 진의리라 하여 연기군 남면에 편입되었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공주군 삼기면에서 진의동眞儀洞 창동倉洞 덕암리德岩里 가정리柯亭里 성전동星田洞 송현리松峴里를, 연기군 남면에서 북룡리伏龍里를 찾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정柯亭 덕암리德巖里 진의眞儀 등은 『호구총수』 공주목 삼기현에서도 확인되며, 북룡리는 연기현 남면에서 확인된다.

성전星田은 진여울 동쪽에 있는 마을로, 철종 때 학자 전재 임헌회가 꿈에 갈매기 떼가 별밭에서 있는 것을 보고, 이 마을 이름을 성전이라 하였다 한다. 창말(창동, 모창골)은 진여울 옆에 있는 마을로 전에 창고가 있었다고 한다.

진의리는 송담리 양화리와 더불어 세종시 녹지광장으로 지정되었으며, 호수공원이 위치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임계현 묘소



진의리 유래비



진의리 뒷산에서 바라본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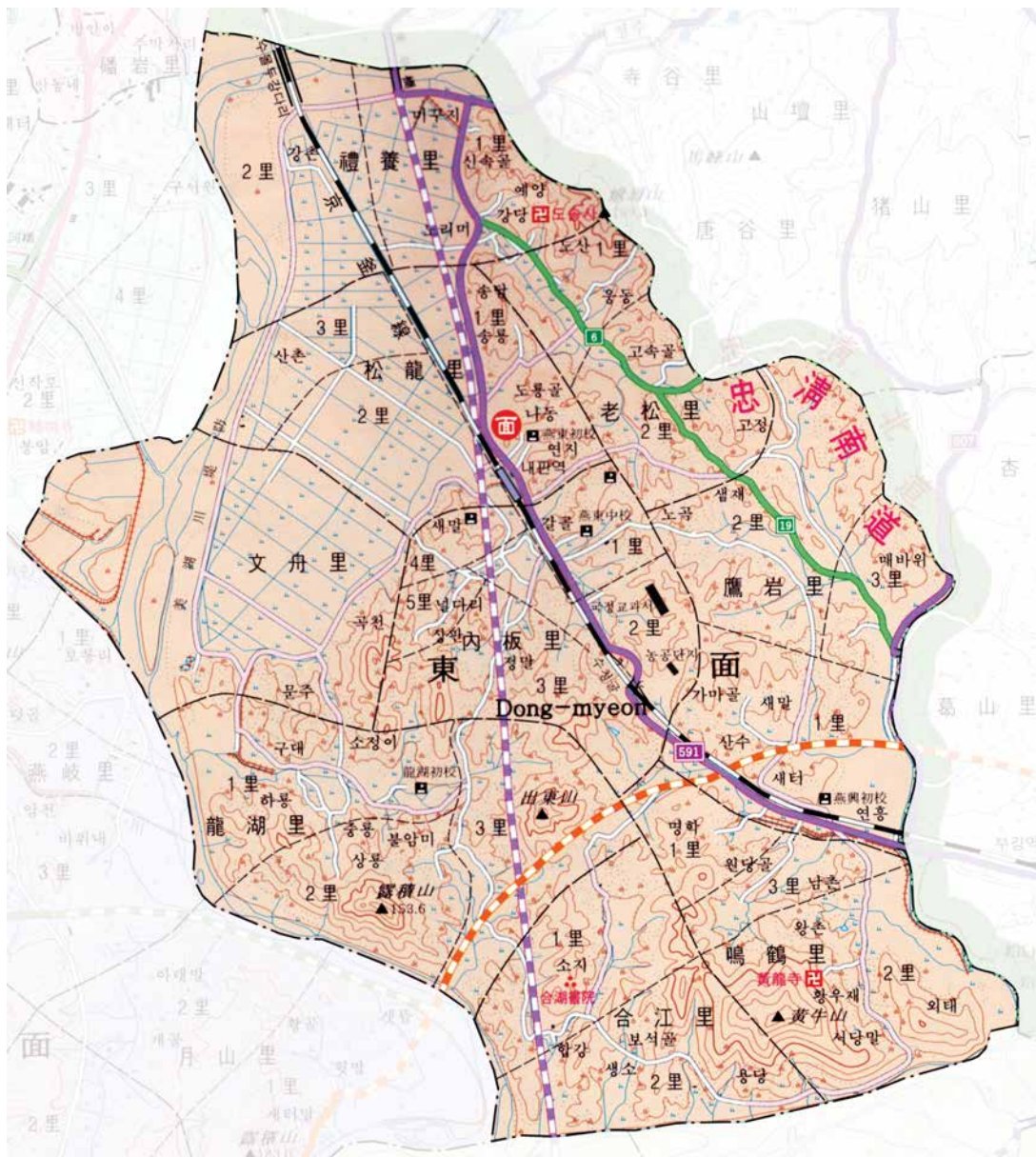
진의리 임계현 묘소 ●●●

진의리 마을의 좌측 야산의 남향사면에 부안임씨 집안의 묘소가 조성되어 있는데, 임계현의 묘비는 이 묘역 안에 위치한다.

임계현(林桂鉉)의 본관은 부안이고, 전서공 임난수의 8세손이다. 어려서부터 사리분별이 뛰어나고, 효행이 지극했다고 한다. 묘비는 성노동(成老童)이 짓고 글씨를 쓴 것으로 1684년(숙종 10)에 건립하였다. 화강석재를 가공하여 제작한 말각장방형의 대좌 위에 오석의 비신을 세우고 옥개형 이수를 올렸다. 비신은 너비 50cm, 높이 125cm, 두께 18cm이고, 묘소의 양쪽에는 문인상과 동자상이 서 있다.

제4장 동면의 터전과 뿌리





동면의 터전과 뿌리



동면은 연기군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치원읍과 남면 사이에는 미호천을 중심으로, 금남면과는 금강을 중심으로, 충북과는 아미산을 중심으로 경계를 이룬다.

이 지역은 조선후기에 연기현 동일면과 동이면 지역이다. 『여지도서』에는 동일면이 용산리, 전암리, 합강리, 용당리, 대산리, 명학리, 부동리, 갈산리, 백정촌, 신원리 등 10개의 동리, 동이면이 문주리, 판교리, 상송동리, 내송동리, 외송동리, 산촌리, 장산리, 산소동리, 양인동리 등 9개의 동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구총수』에는 동일면이 전암리, 용산리, 신대리, 합강리, 생지리, 용당리, 외대리, 내대리, 명학리, 부동리, 신동리, 갈산리, 백정촌, 신원리 등 14개 동리, 동이면이 문주리, 문산진리, 상판리, 내판교리, 외판교리, 노곡리, 상송리, 내송리, 송산동리, 외송동, 노노산, 노산소리, 양인동 등 13개 동리로 구성되어 있다. 한말의 『구한국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에는 동일면이 18개 동리, 동이면이 16개 동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1914년에 동일면과 동이면 외에 청주군 서강내이상면의 인천동 일부를 포함하여 10개리로 폐합하고, 사무소는 내판리에 두었다. 그 후 1995년 3월 1일에 갈산리를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으로 이속시키고, 현재는 9개리로 구성되어 있다.

동면 9개리의 마을명과 조선후기 이후의 면리변천, 각 마을별 조사대상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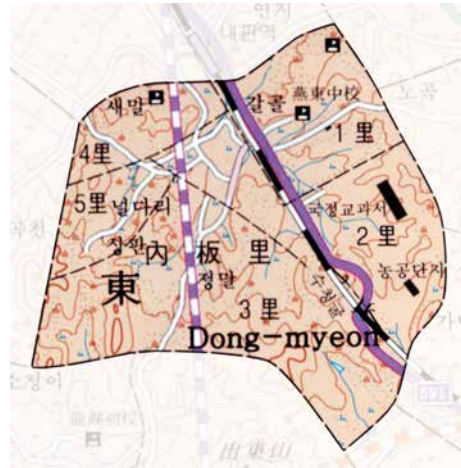
〈표 8〉 동면 마을의 면리 변천

	마을명	조선후기		한말『구한국지방행정 구역명칭일람』	1914년	1973년
		『여지도서』	『호구총수』			
1	내판리	연기현 동이면 판교리·외송동리	동이면 상판리·내판교리·외판교리·외송동	연기군 동이면 내판리·외판리·상판리·외송리(일부)	연기군 동면 내판리	-
2	노송리	연기현 동이면 상송동리	동이면 상송리·노산	연기군 동이면 상송리·신대리·노산리·송리(일부)·용동리·송담리(일부)	연기군 동면 노송리	-
3	명학리	연기현 동일면 명학리	동일면 신대리·내대리·명학리	연기군 동일면 내대리·명학리·신촌리	연기군 동면 명학리	-
4	문주리	연기현 동이면 문주리	동이면 문주리	연기군 동이면 문주리	연기군 동면 문주리	-
5	송룡리	연기현 동이면 상송동리·내송동리·외송동리	동이면 상송리·내송리·송산동리·외송동	연기군 동이면 송산리·용곡리·외송리(일부)	연기군 동면 송룡리	-
6	예양리	연기현 동이면 양인동리	동이면 양인동	연기군 동이면 양인리·인동리·송리(일부)·송담리(일부), 청주군 서강내이상면 인천동(일부)	연기군 동면 예양리	-
7	용호리	연기현 동일면 합강리	동일면 합강리	연기군 동일면 용연리·용호리·용계리·니현리·합강리(일부)	연기군 동면 용호리	-
8	응암리	연기현 동일면 부동리	동이면 노곡리	연기군 동일면 부동리·성동리·고정리·응암리·봉무동리(일부), 동이면 노곡리(일부)	연기군 동면 응암리	-
9	합강리	연기현 동일면에 합강리·용당리	동일면 합강리·생지리·용당리	연기군 동일면 합강리(일부)·소지리·생지리·용당리	연기군 동면 합강리	-

내판리는 1914년에 연기군 동이면의 상판리上板里 외판리外板里 내판리內板里와 외송리外松里 일부가 합쳐져 동면 내판리가 되었으며, 이곳에 동면 면사무소가 위치하였다.

『여지도서』에는 상·중·하 구분없이 판교리板橋里가 수록되어 있다. 판교리는 관문으로부터 10리에 위치하며, 1759년(己卯帳籍)의 편호가 133호, 인구는 남자 309명, 여자 299명이라고 하였으며, 외송동리外松洞里는 관문으로부터 13리에 위치하고, 1759년의 편호가 50호, 인구는 남자 95명 여자 76명이라고 하였다. 『호구총수』에는 상판리 내판교리 외판교리 외송동이 실려 있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연기군 동이면에는 내판리 외판리 상판리 외송리가 모두 실려 있다.

내판리(안너더리, 내판, 판교)는 너더리 안쪽이 되므로 안너더리, 또는 나무로 만든 다리가 있는 곳이라 하여 내판 또는 판교라 하였다. 내판리에서 으뜸되는 마을인 너더리는 앞에 널로 놓은 다리가 있었다. 내판에는 경부선 기차역인 내판역이 있다. 1922년 면민의 진정에 의해 내판 간이역으로 되



조사대상 청주사씨 연기파, 안동김씨 안렴사공파, 효자 김백열 정려, 열녀 김기철 처 밀양손씨·김성흠 처 창녕성씨 양세정려, 독립운동가 김재황, 안동김씨 의원공파, 안양김씨 통정공파, 경주김씨 판도판서공파, 창녕성씨 삼곡공파



1	2	1 내판마을
		2 내판역
3		3 내판역 주변



수청굴

었다가 해방 후에 내판역이 되었다. 내판리와 명학리 사이에 있는 기차의 굴인 수청굴(내판수도)은 1908년 경부선 철도를 놓을 때 완성하였는데 굴에서 맑은 물이 나와 부르게 된 이름이다.

내판리는 요즈음도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이지만, 조선시대에도 교통의 요지였다. 그리하여 이곳에는 여행객을 접대하기 위해 각 요로要路에 설치한 원院의 하나인 신원新院이 있었다. 16세기 문헌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신원의 위치가 연기현 고을 치소로부터 동쪽으로 14리에 위치한다고 했다. 내판리에는 청주사씨 연기파, 안동김씨 안렴사공파, 안동김씨 익원공파, 창녕성씨 삼곡공파의 후손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 문중과 관련된 유적이 남아 있다.

내판리 청주사씨 연기파 ●●●

동면 내판리에 청주사씨靑州史氏가 거주하게 된 것은 가선대부嘉善大夫로 호조좌랑戶曹佐郎을 지낸 사응헌史應憲(1600년대 후반)에 의해서다. 청주사씨는 원래 사응헌의 조부인 사흥위史興燁대에 병자호란을 피해 대전 금탄에 처음 입향하여 2대를 살아오다가, 사응헌이 살기 좋은 강변을 따라 상판으로 이주하여 자리를 잡았다고 하며, 청주사씨가 내판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거주하고 있던 성씨는 없었다고 한다. 청주사씨는 내판리 외에도 금남면 영대리, 충북 강내면 저산리에 거주하고 있다.

사응헌의 묘소는 동면 내판리 수청골에 있다. 후손으로는 통훈대부를 지낸 사원옥, 가선대부를 지낸 사원령과 사원세, 절충장군을 지낸 사명경이 있으며, 통정대부를 지낸 사상중과 사언환 등이 있다고 한다.

내판리 안동김씨 안렴사공파 ●●●

동면 내판리의 안동김씨 안렴사공파按廉使公派는 충열공忠烈公 김방경金方慶(1212~1300)의 5세손인 안렴사공按廉使公 김사렴金士廉(1335~1405)을 파조로 하는데, 후에 여러 파로 갈라지게 된다. 현재 동면 내판리에 거주하는 안동김씨는 안렴사공파 중 안렴사의 6세손인 진사공進士公 김함(1490~1538)의 계열로 후에 둔대파, 봉기파, 내판파로 나뉘었다.

동면 내판리 안동김씨 안렴사공파의 입향조는 내판파의 중시조 김구조金球祖의 8세손인 김유복金有復(1740~1815)으로 호는 하포霞浦이다. 아버지는 가선대부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낸 김후세金厚世이고, 어머니는 파평윤씨坡平尹氏이다. 부인은 서산유씨이다. 김구조는 영조 조에 충훈부충의위忠勳府忠義衛를 지냈다.

김유복이 동면 내판리에 들어온 이유는 처가인 내판에 동진평야東津平野가 있어, 부촌富村이었으므로 이거했다고 하나, 내판 덕현에 있는 김유복의

묘비에는 아버지인 김후세 때에 입향한 것으로 적혀 있어서 입향 연대가 정확치 않다. 일제 강점기인 1935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조선의 성』에서는 내판리를 안동김씨 74호가 거주하는 안동김씨 동족마을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내판에 안동김씨가 입향하기 전에는 청주사씨靑州史氏가 오래 전부터 살았는데, 이들과의 혼인관계가 빈번했다고 한다.

안동김씨와 관련 있는 유적으로는 1890년(고종 27)에 명정받은 김백열金百悅 효행 정려와 효열로 명정 받은 김기철金基喆 처 밀양손씨密陽孫氏 정려, 김영성金榮聖 처 창녕성씨昌寧成氏 정려 등이 있다.

내판리 효자 김백열 정려 ●●

효자 김백열金百悅 정려는 내판 2리 큰동네 하리 마을에서 외판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길가에 남향으로 위치해 있다. 김백열은 안동김씨로, 김방경의 후손이며, 고려말 공양왕대에 삼사의 우사를 지내고 이성계를 적극적으로 도와 개국 1등 공신으로 태종대에 좌정승을 지내고 익원공의 시호를 받은 김사형金士衡의 17세손이다. 1816년(순조 16) 김희중金熙仲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5세의 어린 나이에 부친이 병이 들어 자리에 눕자 매일 같이 병환을 지켜보고 지성으로 간호하여 주변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신선이 나타나 콧감이 아버지의 병에 특효라고 알려주었다. 다음날 김백열이 이를 구하여 드시게 하니 과연 며칠 만에 차도가 있어 병이 완쾌되었다고 한다. 이 사실은 『조선환여승람』에 기록되어 있다. 묘소는 충북 강내면 당곡리에 있다.

김백열 사후인 1890년(고종 27)에 동몽교관 조봉대부童蒙敎官朝奉大夫를 증직 받고, 효자로 명정되었다. 그러나 정려 건립은 명정 당시에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1913년에 후손인 김조묵 등이 중심이 되어 연기군 동면 내판 하리에 건립하였다. 1982년에 군비 80만원을 보조받아 기와전부를 교체하



1	1 내판 호자 안동김씨 김백열 정려
2	2 내판 호자 안동김씨 김백열 정려 현판

고 단청과 방풍시설, 기둥, 기단 등 일체를 보수하였다.

1982년에 중수된 현재의 정려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처마는 겹처마를 하고 있다. 현재 시멘트 기단을 돌려 주변을 보수 정화해 놓았는데, 8각 고주 초석 위에 둥근 기둥을 올리고 있다. 사면에 홍살을 돌렸으며, 양측면의 박공 밑에는 방풍관 시설을 해 놓았다. 정려의 내부 중앙에는 ‘孝子金百悅贈童蒙教官朝奉大夫之間호자김백열증동몽교관조봉대부지러’라는 명정현판(128cm×36cm, 대정 2년 8월 일 面長 崔龍植 主唱 建築)이 걸려 있다. 연기군 향토유적 제4호이다.

내판리 열녀 김기철 처 밀양손씨 · 김성흠 처 창녕성씨 양세정려●●●

내판리 상리 마을 건너편의 얇은 언덕아래 선조 대대로 살아온 본가 집과 마주보이는 위치에 서북향으로 서 있다. 이 정려는 안동김씨 가문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인 밀양손씨와 창녕성씨의 열행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것이다.

『양세정려기』와 『열녀정려기』에 의하면 밀양손씨는 어려서부터 부덕을 익혀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고 동기간에 우애가 돈독하여 가히 여자 선비의 기풍이 있다는 칭송을 들었다고 한다. 16세에 안동김씨 가문의 김기철(金基喆, 1838~1854)에게 출가하였으나 임신 4개월 되던 때에 남편과 사별하게 되었다. 이때 손씨는 겨우 17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유복자를 안고 절도 있는 상장제의와 3년 상을 모두 마쳤다고 한다.

며느리인 창녕성씨는 성재현(成載鉉)의 딸로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인근에서 칭송이 자자하였는데, 18세에 김기철의 아들인 김성흠(金聖欽, 1854~1891)에게 출가하여 20세에 아들을 낳았으나, 4개월 후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성씨는 남편의 제사 때에는 반드시 생시에 좋아하던 잉어를 구해 올리는 등 예절과 정성을 다하였으며, 재물을 아끼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 또한 아들 광묵의 교육에 온 정성을 기울였다고 한다. 이들의 묘소는 동면 내판리 상곡에 있다.

정려를 건립하기 위해 1904년 가을 장태섭(張台燮)의 발론으로 유림들이 본 군에 천거하고 군수는 이를 감영에 보고하니 감영에서는 창녕성씨의 아들 광묵의 3종숙인 영준을 시켜 장례원에 고하게 하였다. 마침내 1904년 명정을 받아 이듬해인 1905년에 정려를 건립하게 되었다. 1979년에 중수하고 1995년 군의 지원으로 석축과 담장을 고쳐 보존하였다.

현재의 정려는 정면 2칸, 측면 2칸의 건물로 정려의 주변은 낮은 담장을 둘러서 잘 정비되어 있다. 화강석재를 가공하여 제작한 8각 고주 초석 위에 둥근 기둥을 세웠는데, 겹처마에 팔작지붕을 갖추고 있는 다포식 건물



- | | |
|---|---------------------|
| 1 | 1 내판 밀양손씨 창녕성씨 양세정려 |
| 2 | 3 2 내판 밀양손씨 정려 현판 |
| 3 | 3 내판 창녕성씨 정려 현판 |

로 상당히 화려하다. 정리의 사면에는 홍살을 돌리고 바닥은 시멘트로 정리하였다. 정리는 내부 중앙을 홍살로 막아서 2칸으로 나누었는데, 왼쪽 칸 중앙 상단부에는 밀양손씨의 명정현판(174cm×36cm, 烈女 學生安東金基喆妻 孀人密陽孫氏之閨(열녀 학생안동김기철처 유인밀양손씨지러) 聖上卽祚四十一年甲辰十一月 日 命旌)과 그 아래에 「양세정려기」가 걸려 있고, 오른쪽 칸 중앙 상단부에는 창녕성씨의 명정현판(174cm×36cm, 烈女 士人金聖欽妻 孀人昌寧成氏之閨(열녀 사인김성흠처 유인창녕성씨지러) 聖上卽祚四十一年甲辰十一月 日 命旌)과 「열녀정려기」가 걸려 있다. 연기군 향토유적 제24호이다.

내판리 독립운동가 김재황 ●●

김재황金在璜(1917~2004)은 본관이 안동이고, 호는 향성香星이다. 동면 내판상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향리 서당에서 한학과 서예를 익혔다. 연동공립보통학교를 거쳐 보성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하여 특별히 민족주의 사학자로 이름이 높았던 황의돈 선생의 애국애족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보성학교 5학년 졸업반 때 3차례에 걸쳐 동맹휴학을 주도하여 평소 조선 학생에 대해 편견을 갖고 하시한 일본인 교사 요시다를 축출하였다.

1939년 4월 보성학교를 졸업하고 연희전문대학 상과에 진학, 학창동지로서 서영원(서재필의 종손), 김상흠(김성수의 차남), 윤주연, 이동원, 민영노, 이영춘이 민족사상으로 규합되어 매일같이 학교 후림에서 회합, 망국의 서러움을 달래며 창자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비밀결사 조직을 가질 것을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기로 하였다.

1939년 12월 윤주연의 숙소였던 사직동의 동정궁에서 앞에 언급한 국내학생 대표들과 일본 유학생 박재호, 고재욱, 김용운이 회합하여 <조선학생동지회>를 결성하고 5대 행동강령(김재흠 기초)을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3·1운동과 같이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조직

확대를 위하여 남한산성에서 회합하고, 냉천약수터에서 회합하고, 연전 후림에서 회합하고, 벽제관에서 회합하여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가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갔다. 그러나 1941년 8월 <조선학생동지회>의 함경남도책 이근갑이 체포되므로 조직이 들어나 본인은 물론 서울, 북부 대표, 동경 유학생 대표 전원이 함흥의 함경남도경 특고에 의하여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되었다. 그리하여 함흥감옥에서 미결로 1년 7개월 동안 갖은 고문 악형을 당한 끝에 1943년 3월 함흥지방방법원 재판에서 1년 6개월의 언도를 받고 함흥감옥에서 복역 1944년 8월 만기 출옥하였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출옥한 직후 1944년 9월에 연희전문학교 동문으로 민족사상이 투철한 문택용을 만나 그의 소개로 홍기철과 이만종을 만나 구국동지회를 조직하여 강령을 채택하고 지하활동을 전개하면서 일본이 패망하고 민족의 해방과 자주독립을 쟁취하는 날까지 목숨을 바쳐 광복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조직을 확대하던 중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80년 대통령 표창이 있었고, 1990년에는 국가유공자 훈장 애족상을 주어 서훈하였다. 한국독립유공자연맹 부회장 및 고문을 거쳤으며, 2004년 타계하였다.

내판리 안동김씨 익원공파 ●●

안동김씨 익원공파는 안렴사공파와 비슷한 시기에 이 마을에 입향한 것으로 여겨진다. 가선대부 행용양위부호군을 지낸 14세손 김원의 묘가 강내면 당곡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김원을 입향조로 볼 수 있겠으나, 후손의 증언은 김원의 부친인 13세손 김덕신이 입향조라고 말한다. 후손의 증언대로라면 익원공파의 입향시기는 240년 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입향한 사유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당시 이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와서 터를 잡았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후손은 해방 이후에 작성된 세보를 소장하고 있었다. 현재 내판리 거주가구는 20호 정도가 된다.

내판리 언양김씨 통정공파 ●●●

내판 4리에는 언양김씨彦陽金氏 통정공파通政公派가 살고 있다. 통정공은 언양김씨의 19세손인 김천만金天萬이다. 언양김씨 통정공파의 선대 묘소 위치를 추적해 보면, 청주 서강외일면 개야치(18세손, 19세손), 산양동(20세손, 21세손, 23세손), 연기 도릉동(22세손, 24세손), 연기 동일면 명학리 수청동(25세손, 26세손, 27세손), 동면 노곡(26세손), 내판리 갈곡(28세손, 29세손, 30세손, 31세손) 등지에 있다. 아마 인근의 청주에 살다가 점차 이곳 내판리로 이주해 온 것으로 추정되며, 그 시기는 1세기가 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내판리 경주김씨 판도판서공파 ●●●

경주김씨慶州金氏 판도판서공파判圖判書公派는 경순왕의 후손 김장유金將有를 파조로 한다. 파조인 김장유는 충북 보은에 은거하여 생을 마쳤다고 하며, 그 후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조선 중종 때의 학자이며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36세로 사사되어 기묘명현己卯名賢으로 일컬어지는 판서·제학 김정金淨을 들 수 있다. 묘소의 위치를 통해 추정해 보면, 내판리의 경주김씨 판도판서공파는 인근의 청원군 현도면 시동리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온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일제 강점기인 1935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조선의 성』에는 내판리를 경주김씨가 27호 거주하는 동족마을로 보고하고 있다.

내판리 창녕성씨 삼곡공파 ●●●

내판리에는 달전리 창녕성씨 계열과는 다른 파인 창녕성씨들이 살고 있었다. 고려 중윤호장을 지낸 성인보의 6세손인 독곡獨谷 석린石璘, 회곡檜谷 석용石瑢, 상곡桑谷 석연石琰, 덕곡 석번石璠의 4형제는 각각 독곡(문경공)파, 회곡(문숙공)파, 상곡(정평공)파, 덕곡(중낭장공)파로 갈라진다. 달전리의 창녕성씨는 회곡파이고, 이곳 내판리의 창녕성씨는 셋째 석연의 후손인 상곡파이다. 족보에는 상곡 석연의 손자이며, 세조 당시에 통훈대부를 지낸 최균현翠筠軒 중성重性의 묘가 청원군 문의면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연기군으로 오기 전에 이미 연기군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연기군과 연고를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성은 해남현감, 목천현감, 창평현감을 거쳤는데, 창평현감 재직 당시에 족보(기축보)를 처음 만들었다고 한다. 현전 족보에는 창평현감 재직 당시에 치적이 있어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묘소를 통해 추정한다면, 이곳 연기군 내판리로 오기전에는 구즉면 금탄리에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으며, 내판리 창녕성씨 입향조는 17세손 성한취威漢就(1724~1776)라고 할 수 있고, 입향시기는 18세기 중엽쯤으로 비정할 수 있다. 현재 입향조의 7세손부터 10세손까지 이 마을에 살고 있는데 그 수가 많지는 않다. 내판리 전체 400가구 중 10가구 정도만 살고 있다고 한다.

노송리는 1914년에 연기군 동이면의 신대리新垓里 노산리老山里 상송리上松里 웅동雄洞와 송담리松潭里 일부, 송리松里 일부를 병합하여 노산리와 송담리의 이름을 따서 노송리라 하여 동면에 편입하였다. 『여지도서』 연기현 동이면에서는 상송동리가 관문으로부터의 거리가 15리에 위치하며, 1759년(己卯帳籍)의 편호 33호, 인구는 남자 45명, 여자 71명이라고 하였다. 『호구총수』 동이면에는 상송리 노산 등이 보인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연기군 동이면에는 상송리 신대리 노산리 송리 웅동리雄洞里 송담리 등이 수록되어 있다.



조사대상 경주김씨 상촌공파, 결성장씨 연기파, 성산배씨 녹야당공파, 독립운동가 배상철, 광산김씨 평양서운공파, 효열부 장이상처 한양조씨 정문, 흥성장씨, 청주경씨

노송리 마근터는 마을 앞에 못을 파고 소나무를 심어서 마을 밖에서 마을이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고 한다. 즉 숲말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곳을 소나무 연못이라는 뜻의 송담 이라고도 부른다. 노리미(노산) 마을 뒤쪽으로는 눈썹처럼 아름다운 산 아미산이 있다.



아미산 아래 노송리

노송리 경주김씨 상촌공파 ●●

동면 노송리 경주김씨慶州金氏 상촌공파桑村公派는 고려 공민왕 때 충청도 관찰사忠清道觀察使를 지낸 김자수金自粹를 파조로 하며, 입향조는 파조로부터 11세손인 김언신金彦信(1500년대 후반)이다. 그의 아버지는 김우金瑀, 어머니는 교하노씨交河盧氏이며, 부인은 성산배씨星山裴氏로 배언량裴彦良의 딸이며, 배천의裴天義의 누이이다.

김언신은 아버지 김우金瑀가 임진왜란 때 조헌선생이 이끄는 의병에 가담하여 금산 연곶평 싸움에서 순절하자, 어머니 교하노씨와 함께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연기 동면 노송리 아미산 아래 노리미로 피난하였다. 이곳으로 피난해 온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때부터 아미산 남쪽 기슭을 피난골이라 부르기 시작했으며, 이 후 노송리는 후손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다. 언신의 부친 김우는 금산에서 돌아가신 후,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전사한 많은 분들과 함께 묻혀 있었다. 1647년(인조 25)에 사당을 짓고 '칠백의충'이라 하였으나, 700명 모두의 위패를 모신 것이 아니어서 김우의 위패 역시 모시지 못했다. 후손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였다.

김언신은 무과에 합격하여 벼슬이 만호萬戶에 이르렀다. 이괄의 난(1624)이 일어나자, 학성군鶴城君 김완金完의 종사관이 되어 서울 아현동阿峴洞에서 싸워 그 공으로 진무원종일등공신振武原從一等功臣에 올랐다. 또한 병자호란(1636)이 일어난 후, 아들 김응추金應秋·김응춘金應春 형제와 함께 남한산성에 인조를 호위하러 출전했다가 적군을 만나 싸우다 순절하였다. 이에 인조는 김언신을 충의지사忠義之士라 칭하고 가선대부嘉善大夫로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추증하였으며 남한산성 진외陣外에 비를 세워주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유적이 남아있지 않다.

김언신의 묘는 동면 응암리 고정에 있으며, 후손으로는 김언신과 함께 남한산성에서 순절한 두 아들 김응추金應秋·김응춘金應春 형제와 효열로 이름 난 김언신 처 성산배씨, 김응추 처 밀양박씨密陽朴氏가 있다. 김응추는 군자감 주부軍資監主簿를 지냈으며, 진무원종삼등공신振武原從三等功臣에 녹훈되었고, 김응춘은 진무원종이등공신振武原從二等功臣에 녹훈되었다. 현재 노송리 경주김씨 상촌공파는 다섯 가구만 살고 있다.

노송리 결성장씨 연기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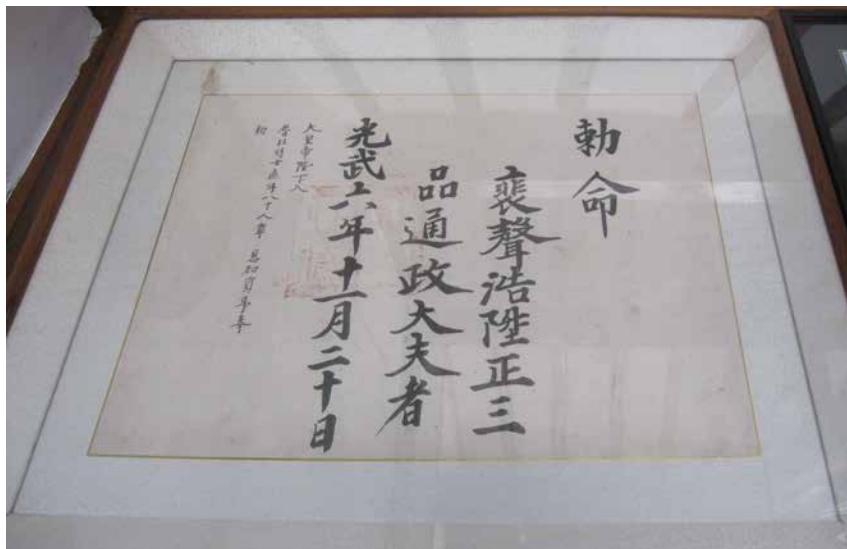
동면 노송 2리의 결성장씨結城張氏 입향조는 장진張諡(선조~인조)으로 지는 국균國均이고 호는 독락獨樂이다. 그의 아버지는 조봉대부朝奉大夫 사용자 주부司囊署主簿를 지낸 장한준張漢俊이며, 어머니는 현감을 지낸 고정손固敬孫의 딸인 고성신씨固城申氏이다. 부인은 김순원金順元의 딸인 남해김씨南海金氏이다. 장진은 가의대부嘉義大夫로써 한성판윤漢城判尹을 지냈다.

장전의 증조부인 장효충이 처음 전동면 노장리로 낙향하여 세거하였는데, 임진왜란 이후 장효충의 증손들이 분산하여 이주를 하게 되었다. 그중 장전張詮이 가까운 노송리에 터전을 잡게 됨으로써, 동면 노송리에 결성장씨가 처음 세거하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인 1935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조선의 성』에서는 노송리를 결성장씨가 52호 거주하는 결성장씨 동족마을로 보고하고 있다.

노송리 성산배씨 녹야당공파 ●●

동면 노송리의 성산배씨星山裒氏 녹야당공파綠野堂公派는 전체 85호 중 25호가 거주하고 있다. 녹야당공파는 집현전에서 활동한 녹야당 배유裒裕(1403~1472)를 파조로 하며, 입향조는 배유의 7세손 배천의裒天義(1584~1654)로, 자는 홍덕弘德, 호는 농포農圃이다.

노송리 성산배씨 배성호의 수직 칙명



배천의는 임진왜란 때 중봉 조헌(趙憲)의 종사관으로 들어가 청주성 전투에서 많은 적병을 무찔러 공을 세운 배경걸(裵敬傑)의 손자이고, 아버지는 건릉참봉을 지낸 배언량(裵彦良(1565~1628)), 어머니는 박도원(朴道源(1500년대)의 딸인 순천박씨(順川朴氏)이다. 그의 부인은 부장(部將)을 지낸 문희(文希)의 딸 공주문씨(公州文氏)와 진사(進士)를 지낸 이득규(李得圭)의 딸 전의이씨(全義李氏)이다.

배천의는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원수 장만(張晩)의 휘하에 들어가 안현(鞍峴)에서 적병을 공격하는데 앞장선 공로로 진무일등공신(振武一等功臣)에 기록되고 녹권(錄券)을 받았다. 또 그는, 선전관으로 북도(北道)의 우후(虞候)를 거쳐 사천현감(泗川縣監)이 되었고, 공명정대한 정치를 펼쳐 주민들이 선정비를 세웠다.

배천의의 입향 유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는 배천의의 6대조인 배유가 생육신(生六臣)과 사궐에, 세조가 대노하여 청주로 귀양을 보내 자손들이 노송리에서 살기 시작했다는 설이다. 두 번째로 원래 배천의는 아버지와 청원군 남이면 척산과 노천(蘆川)에서 살았으나, 누이의 남편인 김언신(金彦信(동면 노송리 경주김씨 입향조)과의 연고로 이미 노송리에 정착한 경주 김씨 일가를 따라 정착했다는 설이 있다. 김언신의 아버지 김우(金瑀)와 배천의의 조부인 배경걸이 조헌의 휘하에서 의병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배천의의 묘는 동면 노송리 고정에 있으며, 후손으로는 배천의의 아들로 창릉령(昌陵令)에 제수되고 통훈대부(通訓大夫)를 증직 받은 배경성(裵慶星), 돈녕부도정공(敦寧府都正公)을 지내고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증직 받은 배윤저(裵允著), 효자로 동몽교관(童蒙敎官) 조봉대부(朝奉大夫)를 증직받은 배덕형(裵德衡), 노인직으로 정삼품(正三品)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른 배성호(裵聲浩) 등이 있다.

노송리 독립운동가 배상철 ●●

배상철裨相哲은 성산배씨로 호는 춘강春岡이며, 동면 노송리에서 태어났다. 간재良齋 전우田愚선생의 문하생으로, 특히 역학에 능통하여 일본의 참패를 예언하기도 했다고 한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인근 주민들에 앞장서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본경찰의 지명 수배를 받아, 상복차림으로 서울에 숨어 들어가 대동단 주모자 전협全協 최익환崔益煥 등과 뜻을 같이 하고, 의친왕義親王과도 관계를 맺었다. 의친왕이 그의 숙소에 찾아와 ‘春岡義巢춘강의소’ 네 글자를 직접 써주기도 했다.

그 후 시효가 지나 지명수배가 해제되자 일시 귀향하였으나, 다시 상경하여 ‘춘강비결’을 저작 발간하며 집을 처준다는 명목으로 많은 동지들을 규합하여 배일사상을 고취하였다. 일제가 머지않아 패망할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조국의 해방을 기다려 왔으나 해방을 2년 앞둔 1943년 8월에 사망하였다.

노송리 광산김씨 평양서윤공파 ●●

동면 노송리 광산김씨光山金氏 평양서윤공파平壤庶尹公派는 전체 86호 중 12호가 거주하고 있다. 평양서윤공파는 평양서윤을 지낸 김광주金光壽를 파조로 하며, 입향조는 훈장訓長을 지낸 김종발金鐘發(1643~1712)로 자는 만보萬甫이다. 그의 아버지는 통덕랑通德郎을 지낸 김준金俊이며, 어머니는 김성원金聲遠의 딸인 용궁김씨龍宮金氏이다. 첫째 부인 밀양박씨는 목천에서 잃었고, 둘째 부인은 노송리에서 세거하고 있던 김승인金承仁의 딸인 경주김씨慶州金氏이다. 밀양박씨에게서는 후손이 없었고 경주김씨에게서 이어진 후손들이 현재 노송리를 비롯한 곳곳에 200호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한다.

목천에서 거주하던 김종발이 입향하기 전의 노송리에는 경주김씨와 성

산배씨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김종발이 경주김씨 집안의 사위로 오면서 노송리에는 경주김씨, 성산배씨, 광산김씨의 3성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김종발의 묘는 노송리 망향동에 있으며, 후손으로 김종발의 7세손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낸 김재신金在新一 있다.

노송리 효열부 장이상처 한양조씨 정문

노송리 송룡 마을에 효열부孝烈婦 장이상張鼻相 처 한양조씨漢陽趙氏 정문旌門이 있다. 효부이자 열녀인 한양조씨(1812~1884)는 조우규趙禹圭의 딸로 결성장씨 가문의 장이상(1816~1884)에게 출가하였다. 장이상은 관윤 전諱의 10세손으로 1816년 장강제張綱濟와 순천박씨 사이에서 태어나, 1882년 21세의 나이로 증광시에서 증광진사 3등에 오른 인물이다.

1955년 성기운이 지은 『효열부유인조씨정려각중건기』에 의하면 조씨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정숙하여 7~8세의 나이에도 거동이 침착하고 조용하였으며, 언어가 화순하였다. 자라서 결성장씨 가문의 장이상에 출가하였는데, 효로써 시부모를 섬기고 예로써 남편을 대하였다. 시할머니 정씨가 팔순이 넘어 이가 없어 음식을 씹을 수 없게 되자 선반의 그릇에 항상 자신의 젓을 짜서 담아 두어 마실 수 있게 하여 마침내 천수를 누리게 하였다. 또 시어머니 박씨가 일찍이 전염병에 걸렸는데, 의원이 말하기를 땀을 먹어야만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조씨는 땀을 구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매 한 마리가 땀을 몰아 집안으로 들어왔다. 조씨는 그 땀을 잡아 익혀서 시어머니께 드리니 효험이 있어 병이 나았다고 한다. 후에 또 시어머니가 다시 병이 나자 우황牛黃을 먹어야만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구하지 못한 채 눈물을 머금고 일을 나가는 길에 소 한 마리가 노란색 물건을 토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주워 의원에게 물어보니 우황이라고 하였다. 조씨가 즉시



노송리 한양조씨 정려

그것을 시어머니에게 복용시키니 병이 차도가 있었다고 한다. 남편이 노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조씨 또한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약과 식음을 폐하고 6일 만에 남편을 따라 세상을 떠나니 가족들이 ‘효부’라 하고, 향당이 ‘어진 미인(賢嫺)’이라 칭송하였다고 한다.

한양조씨의 효열에 감동한 가까운 고을의 사족들이 현감과 관찰사에게 고하고, 다시 동부승지 조병익(趙秉翊)이 왕에게 상달하여 1888년(고종 25)에 명정을 받았다. 이때 명정을 내리면서 나라에서 목재와 공장들을 내어 정문을 세우도록 하고 그 자손들의 연호(烟戶), 환자(還上), 복호(復戶) 등의 제반 잡역을 면제하도록 하는 예조입안이 내려졌다.

처음 정문의 형태로 세워졌던 것을 후에 후손들이 정려의 형태로 고쳐 세우고자 1955년 성기운(成機運)으로부터 중건기문을 받았으나 정려를 세우지 못하였고, 증손인 장좌진의 집 문루에 임시로 현판을 걸어 놓고 있다. 현판에는 효열부 한양조씨의 정문으로 1888년에 명정을 받은 사실(160cm×38cm, 孝烈婦成均館進士張彝相妻 孺人漢陽趙氏之門 光緒十四年戊子十月 日 命旌)이 기록되어 있다. 현판의 왼쪽으로는 1955년 성기운이 찬한 ‘효열부유인조씨정려각중건기(孝烈婦孺人趙氏旌閣重建記(95cm×45cm))’가 걸려 있고 오른쪽에는 1992년 현재의 위치에 현판을 걸면서 증손인 장좌진이 짓고 장제식(張齊植)이 쓴 ‘정려중건개현사유기(旌閣重建改懸事由記(95cm×45cm))’가 있다.

노송리 흥성장씨 ●●●

노송리에 거주하는 흥성장씨는 연기군 서면에 15세기 초에 입향한 흥성장씨 감사공파의 후손이다. 서면으로 입향한 흥성장씨의 19세손 장진순이 동면으로 옮겨온 것으로 장진순의 배위가 성산배씨임을 미루어 볼 때, 당시 이 마을에 세거하던 성산배씨와 인연을 맺으면서 처가를 따라 이거한 것으로 보인다. 동면 입향시기는 130여 년 전인 19세기 중엽이다. 흥성장

씨의 자세한 이야기는 서면편에서 다루기로 한다.

노송리 청주경씨 ●●

노송리 청주경씨는 고려 때의 무신 경대승의 후손이다. 연기군에서 가까운 문의에서 살아오던 청주경씨는 100여 년 전에 성산배씨와 인연을 맺으면서 연기군 동면으로 이주해 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송리 거주는 3가구이다.

명학리는 1914년에 연기군 동일면의 명학리鳴鶴里 신촌리新村里 내대리內臺里가 합쳐져 동면 명학리가 되었다. 『여지도서』에는 동일면 명학리가 실려 있는데, 관문으로부터의 거리가 15리이고, 1759년(己卯帳籍)의 편호가 24호, 인구는 남자 41명, 여자 56명이라고 하였다. 『호구총수』에는 동일면에 신대리新垈里 내대리 명학리가 실려 있는데, 아마 신대리는 신촌리와 같은 마을일 것으로 여겨진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연기군 동일면에는 내대리 명학리 신촌리가 모두 보인다. 명학은 뒷산에 소나무가 무성하고 황새가 새끼를 쳤으므로 불린 이름이라 한다.



조사대상 장수황씨 호안공파, 녹문 임성주 묘소, 풍산부원군 흥보의 묘소와 신도비

명학리에는 연기팔경 중의 하나인 용당이 있었다. 『한국지명총람』에는 용당龍塘에 대해서 집동바위 밑에 있는 소로, 전에는 이곳의 금강물 깊이가 수십 길 이 되었는데, 한내의 모래가 점점 많이 밀려들어서 당시에는 모두 메워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바로 명학리 용당의 기암(龍塘奇巖)은 연기팔경 가운데 제3경으로 선정되어 있었다. 또한 명학 남쪽에 있는 마을인 원장골(원당곡)에는 옛날에 당집이 있었다고 한다.



명학2리



명학리 원당골 입구

명학리 장수황씨 호안공파 ●●●

동면 명학리의 장수황씨 長水黃氏 호안공파 胡安公派는 호안공 황치신이 파조이다. 연기군 입향조는 황치신의 4세손, 황희 黃喜의 5세손인 황첩 黃堧(1500년대 초)이다. 황첩의 아버지는 대사헌을 지낸 황사효 黃事孝(?~1495)이며, 부인은 부안임씨이다. 황첩은 음사 蔭仕로 사직 司直을 지냈으며, 중종반정에 참가하여 공을 세워 원종훈 原從勳에 기록되었고 병조참관에 증직되었다.

황첩은 연산군 말기의 어지러운 정세를 피해 은거할 곳을 찾아 전라도로 가기 위해 동면 황우산 黃牛山을 지나던 중, 산세에 호감을 느끼고 지나가던 사람에게 산 이름을 물었다. 마침 산의 이름도 누런 황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 하여 황우산이라 불리는 것을 들은 황첩은 황씨가 황우산에 사는 것이 적격이라 생각하여 황우재 黃牛峙에 터를 잡았다. 황첩이 처음 이곳에 입향 할 당시 동면 명학리에는 부안임씨가 세거하고 있었는데, 이후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 일대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황첩의 묘는 문의와 연기의 경계인 탁석 啄石의 곤좌에 있다. 이곳은 오늘날의 부용면 전돌 마을로 연기군이 아니지만, 부강과 황우재 아래 명학리는 직선거리 5리 정도이니 한마을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5세손 황연과 황일의 묘는 동면 황우재에 위치한다. 후손으로는 황첩의 아들로 승지 承旨를 지낸 황윤정 黃允禎, 효행으로 영릉 英陵 참봉을 지내고 이조 참의를 증직 받은 증손 황정협 黃廷協을 비롯하여 효행으로 이름난 황재복 黃再復, 황직 黃稷, 황석원 黃碩原 등이 있다.

명학리 녹문 임성주 묘소 ●●

명학리에는 비석은 서 있지 않고 상석만 갖추어져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묘소가 있다. 그 주인공은 풍천임씨 豐川任氏 죽애공파 竹崖公派인 녹문공 綠門公 임성주 任聖周(1711~1788)이다.



1	1 명학리 풍천임씨 임성주의 묘
2	2 명학리 풍천임씨 임성주의 묘

임성주는 기일원론氣一元論을 주장한 성리학의 대가로, 자는 중사仲思이며, 호는 녹문鹿門이다. 아버지는 함흥판관을 지낸 적適이다. 동생 정주靖周·경주敬周와 함께 낙론洛論의 대표자인 이재李穡

에게 배웠다. 송명흠宋明欽·송문흠宋文欽·김원행金元行·송능상宋能相 등과 교류했다. 1733년(영조 9) 사마시에 합격했다. 1750년 세자익위사 세마世子翊衛司洗馬가 되고 시직侍直에 올랐으나 연달아 형제가 죽자 사직하고, 1758년 공주의 녹문에 은거했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한 뒤 조정의 부름을 받아 동궁東宮을 보도輔導하고 그 뒤 지방관을 지내다가 다시 녹문에 은거하며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으로 여생을 보냈다.

말년에 공주 녹문에서 기거했던 임성주의 묘가 처음에는 문의 덕지리에 있었다고 한다. 그 후 이곳 명학리로 이장했는데, 언제 어떤 연유로 이장된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묘지에 있는 상석의 기록에는 병자년에 이장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살고 있는 후손은 54년 전인 27세 때 병천에서 이주해 왔으며, 처음부터 주위에 적지 않은 농토가 있었다고 하는 말에 비추어 볼 때, 이곳에 녹문의 전장이 있어서 묘소가 이장되어 온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임성주에게는 임윤지당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다. 윤지당은 조선시대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성리학을 탐구하여 유교경전과 성리학 분야에 많은 업적을 이루고 『윤지당유고』라는 저서를 남겼다.

명학리 풍산부원군 홍보의 묘소와 신도비 ●●●

명학(鳴鶴) 1리 원당골 입구에서 안쪽으로 300m 쯤 떨어진 고갯마루의 중단부에 인조 때 원주목사(原州牧使)로 있으면서 이인거(李仁居)의 난을 진압하여 풍령부원군(豊寧府院君)에 봉해진 홍보의 묘소와 신도비가 위치하고 있다.

홍보(洪寶)(1585~1643)의 본관은 풍산이고, 자는 여시(汝時), 호는 월봉(月峰)이다. 형조좌랑 홍난상(洪鸞祥)과 어머니 능성구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1609년(광해군 1) 진사시에 합격하여 한성부 참군 등을 지낸 후, 1615년(광해군 7)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사직했다가 계속되는 광해군의 실정을 보고는 벼슬을 단념하고 면천(沔川)으로 내려가 후배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 광해군이 폐위되자, 그 해에 다시 과거를 보아 알성문과에 장원급제한 뒤, 전적·수찬·장령 등을 역임했다. 1627년(인조 5) 원주목사로 있을 때 이인거가 광해군의 복위를 꾀하면서 난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한 공으로 소무공신 1등(昭武功臣一等)으로 책록받고 풍령군(豊寧君)에 봉해졌다. 1638년에는 진주사(陳奏使)로 청에 다녀오기도 했다. 그 후 형조판서로 있을



- | | |
|---|-------------------|
| 1 | 1 풍산부원군 흥보 묘소와 묘비 |
| 2 | 2 풍산부원군 흥보 신도비 |

때, 자제를 청에 인질로 보내는 일로 탄핵을 받아 유배되기도 했으나, 곧 복직되어 관직이 의정부 좌참찬 겸 오위도총부 도총관에까지 이르렀다.

1642년(인조 20) 병석에 눕게 되자 왕이 의원과 약을 내렸으며, 1643년(인조 21) 10월에 59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왕이 조회를 철회하는 한편, 부의를 내리고 영의정 풍산부원군에 증직하였다. 1809년(순조 9)에 경헌景憲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저서로는 『월봉집月峰集』이 있다.

홍보 묘소의 묘비는 여이징呂爾徵이 찬하고 전纂했으며, 조비趙備가 비문의 글씨를 썼다. 석물로는 상석과 문인석이 배치되어 있다. 1654년(효종 5)에 건립된 신도비는 좌의정 김상헌金尙憲이 짓고,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던 좌참찬 오준吳駿이 글씨를 썼다. 신도비를 세우기 위한 석재를 경기도 강화 쪽에서 서해안과 금강을 거쳐 운반하였는데, 비의 규모가 워낙 커서 많은 양민이 동원되어 부역을 해야 했고, 이로 인해 죽은 사람까지 있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동면 문주리



조사대상 아산이씨 한림공파



문주리 마을 표지석

문주리는 1914년에 종전의 연기군 동이면 문주리가 동면 문주리가 되었다. 『여지도서』 연기현 동이면의 문주리(問舟里)는 관문으로부터의 거리가 8리이고, 1759년(己卯帳籍)의 편호가 65호, 인구는 남자 125명, 여자 128명이었다. '問舟里'는 『호구총수』 동이면에도 그대로 보인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출판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명칭일람』과 『한국지명총람』 등에는 모두 '文舟里'로 표기되어 있다. 문주리의 지명유래를 보면 내관들의 온 물이 이 마을 앞을 지나가는데, 마을 뒷산이 문설주처럼 되어 있으므로 문주라 하였다고 한다.

현재의 문주리는 마을 앞으로 흐르는 작은 개울이 들판과 마을과의 경계이다. 재미있게도 산 아래로 형성된 마을로 들어가려면, 어느 집이든지 개울 위에 놓인 작은 다리를 건너야만 한다. 마치 집집마다 전용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문주리 마을

문주리 아산이씨 한림공파 ●●●

동면 문주리의 아산이씨(牙山李氏)는 아성군파에서 갈라져 나온 한림공파이다. 아성군파는 중종반정(1506) 때 공신으로 아산군(牙山君)에 봉해진 이석번(李碩蕃)을 파조로 한다. 이석번은 광주에서 사패지를 받았는데 그때 받은 땅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 후손들 간 갈등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곳 문주리 입향조는 이석번의 손자인 이명홍(李溟鴻, 1500년대 중반)인데, 한림학사(翰林學士)로서 양성현감(陽城縣監)을 지냈다. 아산이씨가 입향할 때 이미 인천채씨가 살고 있었지만, 현재 인천채씨는 이 마을에는 한집도 없고, 합강리에 많이 거주하며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이명홍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년 전 경기도 파주에서 동면 문주리 당산 아래 산주촌(山柱村)으로 입향한 것으로 후손은 전한다. 정확한 입향 사유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사패지를 받은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음에도 멀리 이곳까지 내려온 것과 형님 곤, 아우 잠 등의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 무슨 사연이 있었을지 궁금하지만, 후손들도 알 수 없다 하니 더 이상 밝히기는 어려웠다. 이전 조사에는 이명홍이 입향한 이후 '선조의 묘' 아래에 '관수정(觀水亭)'을 지었다고 하였는데, 족보에서 발견된 기록으로는 관수정을 짓고 후학을 양성한 것은 명홍의 고손자 성춘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지금은 아산이씨 제단을 만들어 시제를 지내는 터만 남아있다. 입향조 이명홍의 묘는 서면 월하리에 있다.

후손으로는 선조 조에 음직으로 주부가 되어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녹훈된 이성춘(李成春), 부장(部長)을 지낸 이응춘(李應春), 수문장(守門將)을 지낸 이양춘(李陽春) 형제가 있다.

송룡리는 1914년에 연기군 동이면 송산리松山里, 용곡리龍谷里와 외송리外松里의 일부를 병합하여 송산리와 용곡리의 이름을 따서 송룡리라 하여 동면에 편입되었다. 『여지도서』 연기현 동이면에는 송산리와 용곡리는 없고, 상송동리, 내송동리, 외송동리 등이 보인다. 『호구총수』에도 상송리 내송리 송산동리 외송동이 보이며, 용곡리는 없다. 조선후기 송룡리의 자연촌락은 이와 같은 지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동이면에 송산리 용곡리 외송리가 모두 보인다. 아마 송룡리는 하천이 개간되는 근대에 이르러 발전한 마을인 듯 하다.



조사대상 결성장씨 연기파, 열녀 장응현처 언양김씨 정려, 결성장씨 문중서당 옥영재, 결성장씨 독립운동가, 이주신씨 직장공파, 청주양씨 연기파

송룡리 결성장씨 연기파 ●●

동면 송룡리 결성장씨結城張氏 연기파燕岐派의 입향조는 장훈張訓(1568~1609)으로 호는 노초老樵, 통훈대부 헌릉직장通訓大夫 獻陵直長을 지냈다. 장훈은 장효충張孝忠(1470~1521)의 증손으로 아버지는 조봉대부 사옹서 주부司饗署主簿를



송용리마을

지낸 장한준張漢俊, 어머니는 현감을 지낸 신경손申敬孫의 딸 고령신씨高靈申氏이고, 부인은 풍천임씨豐川任氏이다.

연기군에 결성장씨 연기과가 처음 들어온 곳은 전동면 노장리로 결성군 結城君 장하張夏의 7세손인 장효충張孝忠에 의해서였다. 장효충은 사화 때 화를 당하게 될 위험에 처하자 그의 처 전의이씨의 고향인 전의 상노정(현 전의면 노곡리)으로 낙향한 것을 계기로 연기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전동면에서 3~4대를 살던 장효충의 후손들은 증손 대에 이웃 동면 지역으로 분가한다. 장효충의 증손자인 장훈이 그의 동생 장설張說 장진張詮, 사촌 장담張談 등과 함께 송룡리松龍里, 노송리老松里, 예양리禮養里 등지로 이거하였는데, 그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다. 그 후 결성장씨는 동면 3대 대성의 하나로 지목될 만큼 번창하였다.

장훈의 동생인 장전張詮이 한성판윤漢城判尹을 지냈고, 효행으로 호조 좌

량을 증직 받은 장응헌(張應軒, 열행으로 정려를 받은 장응헌 처 언양김씨(陽金氏(1638년, 인조 16년에 명정)가 있다. 일제 강점기인 1935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조선의 성』에서는 송룡리를 결성장씨가 55호 거주하는 결성장씨 동쪽마을로 보고하고 있다. 결성장씨 연기파는 동면 노송리 예양리 용호리, 서면 고북리 등에도 거주하고 있다.

송룡리 열녀 장응헌 처 언양김씨 정려 ●●●

송룡리 송룡마을 혹은 나븐마루마을이라고 불리는 마을의 아미산 남쪽 기슭인 불가령의 낮은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이 정려는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적에게 끌려가기보다는 자결을 택함으로써 절개를 지킨 열녀 언양김씨의 열행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것이다.

열부 언양김씨의 남편 장응헌(張應軒(1609~?))은 동면으로 이주한 훈의 증손자로 『연기향안』에 이름이 올라 있고, 『조선환여승람』에 효자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다.

언양김씨는 첨정(僉正) 김정(金澄)의 딸로 16세에 장응헌에게 출가하여 시아버지와 남편을 정성껏 섬겼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아이들을 거느리고 산속으로 피난하여 암혈에 숨어 있었는데, 적병이 들이닥쳐 두 아이를 죽이고 김씨를 붙잡아 말에 태웠다. 이에 김씨는 말에서 떨어지면서 은장도로 자결했다고 한다.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호서읍지』 『연기현읍지』에 이와 같은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조선환여승람』에는 김씨가 달아나다 물에 빠져 죽었으며, 이를 본 청나라 장수가 그녀의 정절을 의롭게 생각하여 표목을 세워 주었다고 하여 기록상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설과 「언양김씨의 묘표」, 「장응헌의 묘갈명」에 의하면, 내용이 윤색되어 더욱 자세하다. 언양김씨는 정성으로 시부모를 봉양하였고 남편에게



1 송유리 언양김씨 정려 전면
2 송유리 언양김씨 정려 현판

공대하며 대소 모든 절차에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다. 우연히 시아버지가 병을 얻었는데, 며느리가 지성으로 달여 드리는 시탕에도 불구하고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끝내는 기력을 잃고 자리에 누운 채 거동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상투 속의 머리는 오랫동안 빗질을 못하여 보리알 만한 이가 득실거리 병석의 노인을 더욱 괴롭혔다. 이때 김씨는 자기의 머리에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80세 고령의 시아버님 옆에서 머리를 맞대고 밤낮을 보내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맡은 이들이 김씨의 머리로 옮겨 오게 하여 시아버지의 머리에 있는 이들을 없앴다고 한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김씨는 83세 된 늙은 시아버지와 어린 아이들을 거느리고 피난을 가려고 했으나 갑자기 오랑캐들이 들이 닥쳤다. 이때 김씨는 ‘늙고 병든 시아버님과 두 자식들을 무사하고 안전하게 피난시키되 만약에 온 가족이 모두 무사하지 못하게 되면 두 자식은 버리더라도 꼭 시아버님만을 편안하게 모셔야 합니다.’라고 남편에게 신신당부하면서 가족들을 뒷문으로 피신하게 하고 자신은 앞문으로 나갔다. 이에 오랑캐들은 젊은 김씨의 미모에 매혹되어 다른 가족을 쫓지 않고 김씨만을 따르니 다른 가족들은

무사히 난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씨는 계속 강가로 달아나다가 드디어 오랑캐에게 잡히자 두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로 오랑캐들을 꾸짖고는 황단이 나루(진목나루, 주목나루라고도 불림. 지금의 연기군 동면 예양리 북쪽 미호천 중류)의 푸르고 깊은 강물로 뛰어들어 자결하니, 강산이 모두 김씨의 열행에 감동하여 울었다고 한다. 이를 본 청나라 장수가 그녀의 정절을 의롭게 생각하여 시신을 거두어 묘를 쓰고 표목을 세워 주고 돌아갔고, 이후에 다시 쳐들어온 청의 군사들도 그 표목의 글씨를 보고 그 마을에는 침입하지 않아 온 마을 사람들이 화를 면할 수 있었다 한다. 전란이 끝나자 남편 장응헌은 의식을 갖추어 부인의 장례를 다시 잘 지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638년(인조 16)에 관찰사가 조정에 보고하여 명정을 받았으나, 명정 후 바로 정려가 건립되지 못하고 150여년이 지난 1793년(정조 17)에 현감의 건의로 나라에서 건립자재를 지원받아 송룡리 나븐말에 세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1844년(현종 10)에 유관승(柳觀升)이 기록하고 7대손인 준상(駿相)이 글씨를 쓴 중수기에 보인다. 이후 1965년에 후손 세진, 경순 등이 중심이 되어 정려를 중수하였고, 1971년에 도로를 넓히면서 도로 위쪽인 현재 위치로 이관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기와를 새로 올리고 단청을 새롭게 하였다. 연기군 향토유적 제21호로 지정되어 있다.

송룡리 결성장씨 문중서당 육영재 ●●

송룡마을 북쪽 송담마을로 넘어가는 길목에 결성장씨의 문중서당인 육영재(毓英齋)가 위치한다. ‘송동서숙’, ‘송남서당’ 등으로도 불린다.

『결성장씨족보』에 의하면, 서당이 처음 건립된 것은 약 400여 년 전인 조선 14대 선조 대의 일이며, 처음 서당을 세운 인물은 자헌대부 한성판윤 장세인(張世仁)의 부친인 27세 장훈(張訓)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자신의 세



송음리 결성장씨 육영재

동생 열說 전說 申詢 등과 함께 연기 동쪽 송곡리松谷里에 정착한 후 서숙을 세워 자손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러나 이 서당과 관련된 기록은 1876년(고종 13)에 현재의 위치로 이진한 이후의 기록들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진 이전의 사실은 확인하기 어렵다. 1879년에 김철진金哲鎭이 지은 ‘송남서당이건기松南書堂移建記’에 의하면, 1876년 현재의 위치로 서당을 옮겨 짓기 이전에 이미 3차례나 서당의 이진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기나 이진 장소 등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없다. 다만 후손인 장래열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렵잡아 짐작해볼 수 있다.

육영재는 직장공 할아버지 ‘훈’자 되시는 분이 세웠는데 처음에는 송용리 방앗간 옆에 있었지. 그런데 주변에서 개 울음소리 닭울음소리가 들려서 공부하는데 별로 안 좋으니까 지금의 자리로 옮겨왔어. 그게 200년 전 쯤의 일이라고 해. 처음 육영재를 지은 후에 봉서재를 지었다는 기록을 보면, 봉서재는 1680~1690년 사이에 봉용공 장원주 말년에 세웠다고 하니까, 육영재는 1680년 이전에 세워졌다고 할 수 있지.

육영재 이전의 결성장씨의 문중서당은 무오사화[1498년(연산군 4)] 이후 사헌부 집의를 지낸 24세손 노은공 장효충孝忠이 연기군 전동면 노장리에 ‘노은재’를 지어 후진들을 양성했고, 육영재 건립 이후에는 서면으로 이주한 31세손 봉용공 장원주元晄가 서면에 ‘봉서재’를 짓고 후손과 후진양성에 힘썼다는 것이다.

육영재는 조선 말 개화기에 신식학문을 교육하는 기성학교期成學校를 개설하여 초중고 과정을 교육하다가, 1925년에 연동공립 보통학교가 세워지자 폐교되었다. 한편, 『연기지』에서는 육영의숙이 기성학교로 변경된 것이 1920년이라고 했다.

문중에서는 해방 직후까지 이곳을 후손들에게 한문을 교육하는 한문서당으로 이용하였으며, 서당으로서의 교육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오늘날까지도 문중에서 서당계를 유지하여 육영재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당 건물은 ‘ㄱ’자형의 건물로 팔작지붕을 하고 있는데, 한쪽 정면에는 툇마루를 만들었다. 수년전까지 개축하여 민가로 이용하였다. 연기군 향토유적 제39호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서당에 보관되던 서책과 현판은 서당에 이웃한 송용리 5번지에 거주하는 장래철씨 집에 보관되어 있다.

송룡리 결성장씨 독립운동가 장재규, 장기민, 장흥진, 장계순 ●●

장재규張在奎: 지산 장재학의 아우이다. 한일합방이 된 후 호적신고를 거절하여 형과 함께 구금되었다가 석방되고 나서도 일본 제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차 자동차조차 타지 않을 정도의 철저한 항일 정신으로 일관하였다. 그가 형 재학이 수감되어 있는 경성형무소로 10여 차례 면회를 갔으나, 번번히 면회를 거절당했다. 그는 크게 통곡하고 시를 지어 옥중의 형에게 부쳤다. 1920년에 형이 죽자 형의 묘 앞에서 일제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을 맹세하였다. 그 후 청주형무소에 수감되었고, 마지막에는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어 오랫동안 단식투쟁을 감행하여 인사불성의 상태가 되자, 비로소 가족들에게 넘겨졌으니 이때가 바로 8.15해방 10일전이었다.

장기민張基民: 호는 송곡松谷이며, 동면 송강리에서 태어났다. 3·1운동이 일어나자 평소 애국심에 불타는 청년이었던 그는 동면 면사무소에 연기군수가 찾아와 관내의 민심을 무마하려고 강연하는데 초청되었는데, 군수에게 “대한의 민족으로서 독립을 갈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고 반박하다가 가까스로 면장의 만류로 돌아왔다. 그 후 3월 28일에 송룡리 주민 10여명과 함께 마을 뒷산에 올라가 햇불을 올리고 앞장서서 “대

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절규하였다. 이로 인하여 같이 주동한 장홍진(張弘鎭)과 함께 일제의 경찰에 체포되어 4월 7일에 공주 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형을 마치고 출옥한 후에 형독으로 신음하다가 향년 24세의 짧은 생애를 마쳤다. 1995년 가을에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상을 추서받았다.

장홍진(張弘鎭): 동면 송룡리에서 태어났다. 3·1운동 당시 장기민과 더불어 3월 28일 면민의 횃불시위를 주동하다가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4월 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1992년에 대통령 표창이 있었다.

장계순(張鷄淳): 동면 송룡리에서 한학자 우송 장응철(張應喆)의 맏아들로 1922년 태어났다. 연동공립보통학교와 공주공립농업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1940년 여름에 동경 유학생들과 결탁하여 거국적인 민중봉기를 계획하다 사전에 발각되어, 1943년 2월 19일에 공주읍 산성동 자택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최동원, 이모, 주윤환 등과 일본 경찰에 넘겨져 동경 경시청을 거쳐 동경지방검찰청에 구치되었다. 그러나 부친 등의 끈질긴 석방운동과 잔약한 체질로 인한 극도의 건강 악화로 구금 6개월만인 8월 27일에 석방되었다고 한다.

송용리 아주신씨 직장공파 ●●

송용리의 아주신씨는 120여 년간 이곳에서 살아왔다. 도암리의 평산신씨와 함께 신승겸을 시조로 하고 있으나, 아주를 관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평산신씨 시조 신승겸의 12세손에 익보(益保) 익휴(益休)가 있는데, 서로 관향을 달리하여 익보는 평산(平山), 익휴는 아주(鵝洲)를 관향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신익휴가 아주신씨(鵝洲申氏) 1세 시조가 된다. 그 익휴의 23세손 경환(京煥)(1853~1898)이 이 마을에 입향한 아주신씨 입향조이다. 충북 청원군 낭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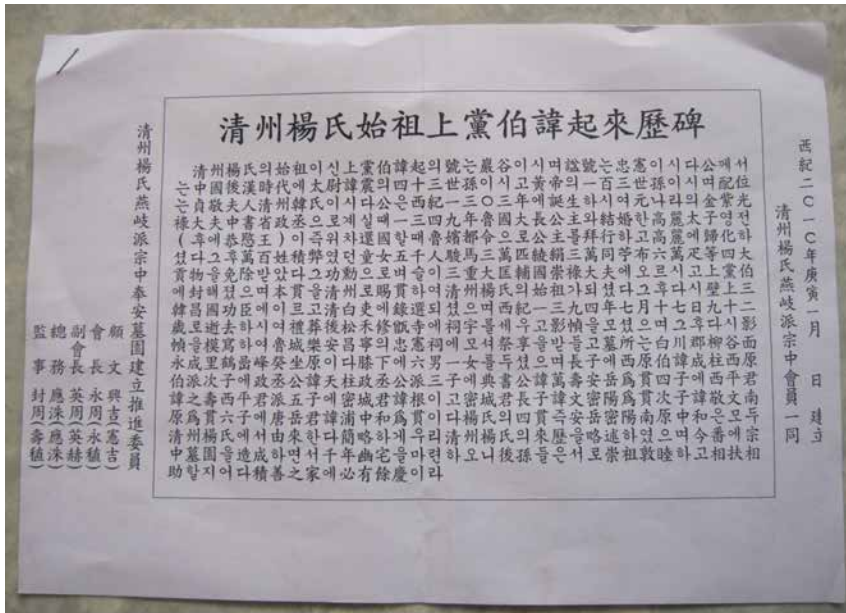
리에 살던 경환은 1891년 이전에 번졌던 장질부사로 인하여 부인 의령남씨와 두 형제를 잃고 혼자서 가방하나 들고 이곳으로 왔다고 한다. 학식이 많고 의술이 있어서 이곳에 세거하고 있던 중화양씨中和楊氏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여 아들 재록在祿을 얻는다.

족보상으로는 재록이 후손없이 돌아간 큰아버지 정환에게 입후되어 있다. 장질부사를 피해 송용리에 오게 된 입향조 경환은 석곡리에서 한의원을 하면서 가세를 일으키고 살다가, 아들 재록이 12세 때인 45세의 나이로 타계하자 선산이 있던 고향 청원군 낭성면 문방리에 묻혔다. 그 후 아들 재록은 외가가 있던 송용리로 다시 와서 터를 잡고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신씨는 배씨, 복씨와는 한 어머니의 후손이라 하여 서로 혼인하지 않는다 한다. 현재 송용리에 살고 있는 후손은 입향조의 손자부터 고손자까지이니, 아주신씨 시조의 25세손부터 27세손까지이다.

송용리 청주양씨 연기파 ●● 청주양씨 연기파는 임진왜란 때 피난 와서 살기 시작했다고 하니, 오랜 세월동안 뿌리를 내려온 성씨인 셈이다.

청주양씨淸州楊氏는 중국에서 시작된 성씨로 시조는 후한後漢 양진楊震의 43세손인 양기楊起이다. 양기는 원나라 사람으로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중서성정승中書省政丞의 자리에 있을 때, 고려 공민왕비인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를 따라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정착하였다. 양기는 다시 원나라에 들어가 많은 외교적 공헌을 하여 삼한창국공신三韓昌國功臣으로 상당백上黨伯에 봉해졌다. 또한 청주淸州를 관적으로 하사받았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청주로 삼았다.

이곳의 청주양씨 족보는 청주보와 중화보의 두 가지가 있었다. 시조 양기의 6남 양포楊浦가 고려 고종 때 정승으로 당악군唐岳君(당악은 중화의 옛 이름) 임에 봉해져 관향을 당악으로 하는 당악(중화)양씨가 생겨나게 되었다. 즉



송용리 청주양씨 문중 내력

청주양씨라고 하면 시조가 양기가 되고, 중화양씨라고 하면 시조가 양기의 아들인 양포가 된다. 따라서 해방이후 통합하여 간행한 청주양씨의 족보와 그 이전에 제작된 중화양씨의 족보와는 서로 1세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청주양씨 시조 양기의 12세손 의홍(義弘)은 금산에 살면서 임진왜란을 당한다. 이후 이곳 노송리로 오게 되어서 청주양씨 연기파의 중시조가 되었다 한다. 족보에서는 의홍의 부인은 경주이씨였고, 의홍의 할아버지인 처선(處善, 10세손)의 묘는 금산, 아버지인 한(漢, 11세손)의 묘는 청주 오룡동, 의홍의 묘는 연기 동면 가장곡(嘉壯谷)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홍의 자(子) 壽福(13세손, 가장곡)와 손(孫) 源世(14세손, 고소동) 이후의 묘소도 동면에 위치한다.

동면 예양리



조사대상 해평윤씨 남원공파, 밀양박씨 오충정려, 독립운동가 장재학, 결성장씨 연기파

예양리는 1914년에 연기군 동이면 양인동 인동리 송리(일부) 송담리(일부)와 청주군 서강내이상면의 인천동(일부)을 병합하여 예양리라 하여 동면에 편입하였다. 『여지도서』 연기현 동이면의 양인동리養仁洞里는 연기현 고을 관문으로부터 20리에 위치하고, 1759년(己卯帳籍)의 편호가 52호, 인구는 남자 75명, 여자 83명이었다. 양인동은 『호구총수』에도 실

려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지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동이면에 양인리養仁里 인동리仁洞里 송리松里 송담리松潭里가 모두 보인다.

예양리禮養里 마을은 덕을 기르고 배우는 곳이라 하여 양곡養谷, 인동, 양골이라고도 하며, 미꾸지라고도 불린다. 예부터 충신忠臣이 많이 배출되고, 오부자五父子가 충신이었던 박천봉朴天鵬과 그 아들들의 충신문忠臣門이 있는 곳이다. 예禮를 기르고 배우는 곳이라 하여 예양리라 하였다 한다. 예양리는 오래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사람들이 살아왔던 예양 1리와 일제시대 제방을 쌓으면서 형성되어 100년 남짓한 역사를 지닌 예양 2리로 나뉜다.



예양1리(1970년)



예양1리



예양2리 강촌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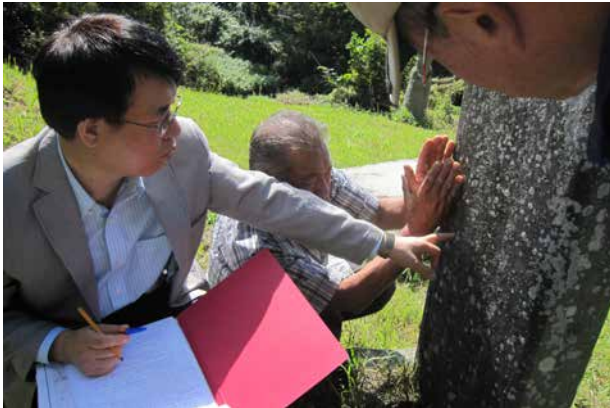
1 2 1 예양리 정자
2 삼성전기에서 건립하여 연기군에 기증하였다는 글귀가 적혀있다.

예양리 해평윤씨 남원공파 ●●●

예양리 해평윤씨海平尹氏는 남원공파南原公派로 입향조는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윤승임尹承任(1564~1624)으로 알려져 있다. 윤승임이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기의 인물이니, 해평윤씨는 10대 이상을 예양리에서 살아온 셈이다.

자세한 입향사유는 전해지지 않는다. 윤승임의 5대조인 직장공直長公 윤제尹濟가 150여 년 전 쫓에 벼슬을 사양하고 토지가 비옥하고 민심이 좋은 가까운 이웃마을 옥산玉山으로 들어와 살고 있었고, 그 후 후손이 번성하여 차츰 차츰 좋은 땅을 찾아 옮겨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곳까지 들어오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곳은 연기 땅이 아니었고 옥산과 같이 청주에서 관할하던 땅이었다. 그렇다면 윤승임을 입향조로 보기보다는 그의 5대조 윤제를 입향조로 보고 입향지를 옥산으로 보는 것이 마땅할지도 모르겠다.

윤승임의 묘는 동면 예양리 산소동에 있는데, 묘 앞에는 오래된 상석과 비석 및 문인석이 있다. 산소위쪽으로 3기의 묘가 있는데 그중 한기는 윤승임 손자의 묘이고 두기는 현재 살아있는 후손 중 장손이 그의 부모님을



- | | | |
|---|---|--------------------------|
| 1 | 2 | 1 예양리 해평윤씨 묘역 |
| 3 | | 2 예양리 해평윤씨 입향조 묘비 |
| | | 3 예양리 해평윤씨 입향조 묘비
판독중 |

모신 것이라 한다. 현재 해평윤씨 남원공파는 옥산을 중심으로 청주 송원동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

예양리 밀양박씨 오충정려 ●●●

밀양박씨密陽朴氏 오충정려五忠旌閭는 예양리 미꾸지 마을의 북쪽에 있는 구룡의 남향사면 말단부에 위치한다.

이 정려는 연기군 북이면 두옥동斗玉洞(혹은 斗權洞, 현재 서면 월하리) 출신으로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활약하다가 상당산성에서 전사한 박천봉朴天鵬과 병자호란 때 죽산산성에서 순절한 그의 네 아들 원겸元謙, 인겸仁謙, 예겸禮謙, 의겸義謙의 충정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중봉 조현은 5월 3일 열읍에 격문을 띄워



예양리 밀양박씨 오충각

의병을 모집하였다. 이에 박천봉은 스승의 격문에 응하여 출전하기를 결심하고 떠나기 전에 사당에 고하고 아들들을 불러 “오늘날 신하된 지는 적을 토벌하여 나라에 보답하되, 싸움터에서 죽어서 돌아오미 절의를 떼 떼이 지키는 것이니, 너희들은 내가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가정을 보호하여 추하고 더러운 적의 무리로 하여금 가정을 범하지 못하게 힘을 쓰라.”라고 훈계하였다. 그러나 전장에 있으면서도 당시 충청도 순찰사 안세헌^{安世獻}이 무도한 말만 믿고 각 고을에서 의병으로 응모한 사람들의 부모와 처자를 끌어다가 옥에 가둔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가족들을 걱정하면서 급히 행장을 꾸려 계룡산 깊은 산중으로 몸을 피하도록 하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실제로 그의 네 아들들이 편지를 받고 밤에 몰래 금강을 건너다가 병영의 장교에게 붙잡히기도 하였다고 한다. 조헌이 거느린 의병은 그해 7월 4일 공주에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

고 왜적 토벌을 맹세한 후, 8월 1일 드디어 청주성 탈환을 위해 진군하였다. 이때 의병의 숫자는 대략 1600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박천봉은 조헌의 종사관으로서 영규대사와 협력하여 왜적을 쳐부술 것을 맹세하였다. 『상당견문上黨見聞』에 따르면, ‘땅거미가 들어 어둑어둑하고 비바람이 불어 쓸쓸한데 적의 세력은 왕성하여 칼끝이 삼엄하매 박천봉이 몸을 돌보지 않고 분기하여 단신으로 말을 몰아 화살과 돌이 비 오듯 날아오는 곳으로 돌진하여 좌충우돌로 적의 머리를 수십급 베어 한때 왜적의 진영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형세가 궁색해지고 힘은 다해 마침내 적의 화살을 맞아 적진에서 운명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 박천봉의 장렬한 최후를 잘 묘사하고 있다. 다음날 의병들이 마침내 청주성을 탈환하여 임진왜란 이후 왜적의 승승장구하던 기세를 꺾은 첫 승리를 거두고 역사에 한 획을 그어 놓게 되었는데, 이때에 노응탁·민옥·곽송인 등 함께 출전한 의사들은 박천봉의 죽음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박천봉의 네 아들 원겸(1582~1637), 인겸(1584~1537), 예겸(1586~1637), 의겸(1591~1637)은 어머니 황씨의 훌륭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라나 모두 무예와 계략이 뛰어났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충청도병사 이의배의 종사관이 되어 활약하였다. 1637년(인조 15) 1월 9일 검천 죽산산성 싸움에 출전하면서 “우리 부친께서 왜적들과 싸우다 돌아가셨는데, 남쪽 왜적이거나 북쪽 오랑캐가 비록 종지는 다르다 하지만 우리 나라를 침범한 원수임은 한 가지다. 우리가 부친의 원수를 갚고 나라의 수치를 씻는데 왜적, 오랑캐를 가릴 것 있느냐?” 하고는 선봉이 되어 돌과 화살을 무릅쓰고 적을 베었으나, 병사가 적고 형세가 약한지라 적병에게 포위되어 전사하고 말았다. 이들의 순국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연기현감이었던 백대기白大璣는 『제오충유허문祭五忠遺墟文』을 지어 그들을 애도하였다. 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군들이 가신 길을 듣자오니, 칼머리에 혼백을 날리셨네. 세상이 비록 거칠고 험해도 높고 귀한 어른들의 모습이며, 한 집안에 다섯 충신 나시

기는 만고를 돌아봐도 드문 일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를 물려 지킨 충절, 여기 한 잔의 맑은 술 부어 가신 님들의 넋을 위로하노라.’

이와같이 당시 연기현감 백대기가 오충신이 살던 곳에 와서 ‘제오충유 허문’을 지었을 정도로 이들의 충절은 뛰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박천봉이 전사한 임진왜란 때의 중봉 조헌(趙憲)이나, 네 아들이 순절한 호란 때의 충청병사 이의배(李義培)가 모두 전쟁에서 순절함으로써 그들의 충정을 조정에 보고할 만한 사람이 없었고, 자손들 역시 모두 어렸으며, 곧이어 호서와 호남지방으로 흩어져 조상들의 실적을 거론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오랫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였다.

1711년(숙종 37) 연기지역의 사족들이 연명으로 5부자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순무사에게 상소를 올렸으나 포장받지 못하고 지연되었다. 그리하여 몇 년 뒤에 다시 연기현감에게 포장을 청하는 상서를 올렸다. 이 상서에서 연기 사족들은 향중의 공론을 감안하여 감영에 보고하도록 청하고 있다. 당시 연기현감은 데깁(결재문)에서 박천봉 5부자의 충의행적이 인멸됨을 아쉽게 생각하며, 이 내용을 순영에 건의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오충실기』가 편찬된 1746년(영조 22)까지도 아직 포장을 받지 못했고, 1747년(영조 23)에 이르러서야 명정을 받았다. 정려는 1747년 명정을 받아 연기군 북이면 두옥동(현 서면 월하리)에 세워졌고, 마을의 이름도 이들을 기리기 위하여 ‘충효동’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 후 1920년에 두옥동의 정려를 후손들이 모여 사는 동면 예양리로 옮겼고, 1988년 군의 보조를 받아 중수하였다. 연기군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되어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이들 5충신의 유적은 호남지방으로 이거한 후손들에 의하여 전남 보성과 담양에도 오충정려가 세워지는데, 담양의 오충정려는 1975년 12월 31일에는 도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었다.

예양리 독립운동가 장재학 ●●

장재학張在學(1861~1920)은 본관이 결성이며, 자는 도삼道三이고, 호는 지산止山으로 동면 예양리에서 태어났다. 간재 전우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910년 한일합방이후 그는 아우인 재규在奎와 함께 호적신고를 거절하며 하지 않았고, 면서기가 대신 신고를 하자 신고서를 찾아내어 찢어 버렸다. 이에 격노한 일본 경찰이 그들 형제를 구속하였으나 그는 오히려 “나는 대한제국의 유민이거늘 어찌 일본호적에 입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힐책하므로 일본경찰은 아우인 재규는 석방하고 형인 재학은 경성재판소로 압송하여 1년간의 금고형을 선고하였다. 그는 감옥에서 일본인이 주는 식사를 일체 거부하고 집을 떠날 때 가지고간 솔잎가루만 먹었으며, 일본인이 그의 머리를 깎으려고 하자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목을 매어 죽으려 하므로 끝내 깎지 못하였다. 한번은 사기그릇을 거만 불손한 일본인 옥리의 얼굴을 향해 후려쳐서 깨진 사기그릇의 조각을 삼켜 자결을 시도하였지만, 옥의가 목에 걸린 파편을 꺼내어 소생시켰다. 그 후 솔잎가루가 떨어지자 입을 다물고 먹지 않아 억지로 입을 벌리고 음식을 떠 넣었다. 이 소문이 장안에 삼시간에 퍼지자 장안인사들이 다투어 사식을 넣어주었다.

이와 같이 그가 감옥에서도 전연 규율을 지키지 않자 구실을 달아서 5개월의 형기를 연장시켰다. 1916년 겨울에 만기 출감한 그를 집으로 돌려 보내지 않고 보안법을 구실로 하여 그들 형제를 전라남도 고흥군의 거금도와 완도군 소안도로 각각 3년간 유배시켰다. 유배생활이 끝나 1년간 형독刑毒으로 고생하다가 1920년 한 많은 일생을 마쳤다.

예양리 결성장씨 연기파 ●●

동면에는 각 마을마다 결성장씨가 많이 산다. 결성장씨 연기파라고 별도로 표기할 만큼 오래전부터 연기지역에서 가세를 일으켰던 문중이다.



예양리 결성장씨 세계도

결성장씨 연기파의 연기지역 입향시기는 15세기 후반 성종연간의 인물 장효충을 입향조로 보고 있다. 임실군수를 지낸 장효충은 배위가 전의이씨로 연산군 시기에 일어난 두 차례의 사화를 보고 안전한 곳을 찾아 낙향 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처가가 있는 전의현의 노곡이었다고 한다. 그 노곡은 현재 전동면 노장리가 되었다. 이렇게 처음 연기지역에 터를 잡은 결성장씨는 16세기 후반 17세기 초 선조~인조연간에 장효충의 증손자 장전이 두 형님과 더불어 사촌 한명과 함께 동면 노송리로 들어왔다. 이곳으로 온 이유는 노곡의 산골생활을 피해 넓은 들판이 있는 땅을 찾아 온 것이라고 한다. 그 후 동면 곳곳과 서면 등에 결성장씨의 뿌리가 내려져 현재는 예양리 노송리 송용리와 서면 고북리 등에 결성장씨 연기파가 살고 있다. 해방직전까지는 마을인구 90%를 차지하였었지만, 6·25이후 점차 객지로 나가 현재는 한마을에 5~6집밖에 남아있지 않다.

결성장씨 연기파가 세보별로 모여살고 있는 마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직장공파: 송용리

참봉공파: 노송 2리, 서면 고복리

판윤공파: 노송 2리, 용호리

익위공파: 예양 1리

입향조 장전張詮(선조-인조)은 자는 국균國均이고 호는 독락獨樂이다. 그의 아버지는 조봉대부 사옹서주부朝奉大夫 司饔署主簿를 지낸 장한준張漢俊이며, 어머니는 현감을 지낸 고경손固敬孫의 딸인 고성신씨固城申氏이다. 부인은 김순원金順元の 딸인 남해김씨南海金氏이다. 장전은 가의대부嘉義大夫로써 한성판윤漢城判尹을 지냈다.

현지조사에서 참고한 결성장씨 족보는 영조연간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입향조 장효충의 4대조 장유검의 기록에서 연기파라는 글귀를 발견할 수 있었다. 후손들이 자신들을 연기파 결성장씨라 부르고 있음에도 언제부터 누가 연기파라 했는지 모르던 상황에서 족보의 기록은 여러 가지를 추측하게 한다. 족보가 제작되던 시기인 영조 연간에 결성장씨를 ‘연기파’라 기록했다는 것은 당시에 연가지역 결성장씨들은 입향마을인 전의 현 노곡보다 연기에서 그 세력이 더 번성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지 않았다면 ‘결성장씨 전의파’나 ‘결성장씨 노곡파’로 불리어졌을 것이다.

용호리는 1914년에 연기군 동일면 니현리泥峴里 용호리龍湖里 용계리龍溪里 용연리龍淵里와 합강리合江里의 일부가 합쳐져서 동면 용호리가 되었다. 용호리는 미리재와 미호천이 있어서 용호라 하였다.

『여지도서』와 『호구총수』에서는 다른 마을 이름은 보이지 않고 동일면 합강리만 확인 가능하다.

『여지도서』에 의하면, 합강리는 관문으로부터의 거리가 15리이고, 1759년(己卯帳籍)의 편호가 55호, 인구는 남자 108명, 여자 87명이라고 하였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서는 용연리 용호리 용계리 니현리 합강리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용호리는 일제 강점기인 1935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조선의 성』에서 결성장씨가 22호 거주하는 결성장씨 동족마을로 보고하고 있다.

용호리는 1·2·3리로 이루어져 있으나, 2011년 10월 현재 많은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가고 마을은 거의 비어 있었다.



조사대상 진주강씨 현령공파, 부안임씨 용산파, 부안임씨 사직공파, 일부 임식처 진주강씨 비, 효자 임양문 정려



- | | | |
|---|---|----------|
| 1 | 2 | 1 용호리 1리 |
| | | 2 용호리 2리 |
| 3 | | 3 용호리 3리 |

용호리 진주강씨 현령공파 ●●●

용호리 진주강씨 晉州姜氏 현령공파 縣令公派는 강민첨을 시조로 하며, 10세손 강은재를 파조로 하고 있다. 입향조 강은재 姜隱宰(?~1438)는 15세기 초, 세종연간에 낙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족보에 의하면, 강은재를 비롯한 12세손까지의 묘가 실전되어 설단으로 모셨다고 한다. 그런데 왜 강은재를 입향조로 보는지 질문하자, 후손은 읍지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그리 생각한다고 할 뿐 정확한 근거는 없었다. 족보에서는 13세손 강눌(1536~1561)의 묘가 연기에 있다고 적혀 있어 기록상 강눌을 입향조로 볼 수도 있으나, 후손들에게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야기도 버릴 수가 없다.



용호리 진주강씨 세보

강은재는 만년에 현령 縣令의 직분을 수행한 뒤 1402년(세종 2)에 용호리로 낙향했다. 강은재가 용호리에 들어오기 전에는 부안임씨 扶安林氏와 결성장씨 結城張氏가 세거하였다고 하는데, 뚜렷하게 알려지는 입향의 유래는 찾기 어렵다. 현재 남면 양화리, 조치원을 서창리 등에도 후손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동면 용호리 덕현에 강은재의 묘와 재실이 있으며, 후손으로는 예조참판 禮曹參判을 지낸 강일재 姜一載, 공조참판 工曹參判을 지낸 강위재 姜渭載, 부호군 副護軍을 지낸 강수주 姜洙周, 연기향교 燕岐鄉校 장의를 지낸 강태만 姜泰萬, 효행이 있는 강필복 姜必復, 강희열 姜希說 등이 있다.



- | | | |
|---|---|---|
| 1 | 2 | 1 용호리 부안임씨 후손이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문중 자료를 보여 주고 있다. |
| | | 2 용호리 부안임씨 문중계 자료 |

용호리 부안임씨 용산파 ●●

용호리는 부안임씨扶安林氏 용산파龍山派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마을인데, 특히 2리에 부안임씨가 많이 모여 살았다. 전체 162호 중 50호가 거주하고 있다. 용호리에는 상룡, 중룡, 하룡이 있어서 은연중에 상룡파, 중룡파로 불리기도 한다. 부안임씨 용산파의 파조는 임유배林有培이고, 용호리 입향조는 임유배의 5세손 임석분林碩芬(1609~1680)이다. 그의 자는 사화士華이고,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지냈다. 아버지는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절충장군折衝將軍을 지낸 임원林輅이고, 어머니는 생원生員을 지낸 김천우金天佑의 딸인 안동김씨安東金氏이다. 17세기 중후반쯤에 입향한 것으로 보이는데, 입향한 사유는 정확하지 않다. 부인이 당시 이 마을에 세거 중이던 진주강씨이고 또 숙모가 진주강씨인 점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혼인관계로 인한 입향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후손으로는 열행으로 이름난 임식(林軾) 처 진주강씨, 임석분의 증손으로 효행으로 이름난 임양조(林養祚)·임양문(林養文) 형제,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을 지낸 임노선(林老善) 등이 있다. 진주강씨는 1666년(현종 7)에 명정 받아 1731년(명종 27)에 건립한 정려가 있으며, 1904년(광무 5)에 건립된 임양문 정려가 있다.

후손들은 서면 기룡리와 남면 양화리 일대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세종시 건설로 인하여 용호리와 양화리의 후손들은 대부분 이주한 상태이다.

용호리 부안임씨 사직공파 ●●●

용호리는 1·2·3리 모두 부안임씨 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용산과가 용호 1리를 중심으로 살고 있었다면, 사직공파는 용호 2리를 중심으로 살았다. 3리에는 부안임씨도 많이 살고 있지만 진주강씨들이 더 많이 살고 있었다.

연기군의 부안임씨는 고려말 전서공 임난수장군 으로부터 시작되어 크게 양양공, 우유공, 사직공으로 뿌리를 내려오는데, 양양공파와 우유공파는 남면에 뿌리를 내렸고 사직공파는 동면 합강리에 뿌리를 내렸다.

사직공파의 파조 임서는 부안임씨의 시조 임난수 장군의 3남 이다. 임서의 묘는 연기군 남면에 있었다가 세종시 건설로 인하여 청원군 남일면 고은으로 이장했다. 이미 연기군에 최초로 임난수 장군이 입향하여 후손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파조 임서의 후손들도 남면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11세손 임응원이 용호 2리로 들어온 것이다. 용호 1리의 용산과와는 응원의 형제 계열이다. 한원에서 이어진 용산과는 사직공파를 쓰는 응원보다 용호 1리로 들어온 시기가 늦다. 족보상으로는 파조의 10세손인 임은우의 묘가 용호리 하룡에 있다고 하니, 후손의 전언으로는 18세기 중

엽이 되지만, 족보기록으로 추정하면 18세기 후반이 된다. 파조 임서의 손자 임정의 사위로 우의정을 지낸 광산김씨 김국성이 있다.

용호리 열부 임식 처 진주강씨 비 ●●●

열부烈婦 임식林軾 처 진주강씨 비석은 용호리 남서쪽 세칭 중룡마을 입구의 작은 공터에 위치하고 있다. 정려 형태가 아닌 열부비로 조선전기에는 일반적이었던 형태로서 연기지역에서는 드물게 보이는 자료이다.

진주강씨는 강석姜碩의 딸로 부안임씨의 연기 입향조인 임난수의 7세손 임식에게 출가하였으나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스스로 목을 매어 자결한 열부이다.

이에 지역의 선비들이 본도에 알리고 관찰사가 나라에 보고하여 1666년(현종 7)에 정문의 특전을 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이 열부 행적도 실은 종가집 대문에 걸어두는 정문의 형태로 만들어졌던 것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현판이 낡아 퇴락하게 되자 1731년(영조 7)에 후손인 임광후가 마을 앞에 열부비를 세웠다.

1731년에 세워진 열부비(82cm×33×15cm)는 앞면에는 ‘열부인 사인 임식의 처 강씨의 마을(烈婦 士人林軾妻姜氏 里)’이라고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1666년에 정문을 명받고 1731년 겨울에 임석후가 비를 세운 사실을 적고 있다.

용호리 열부 진주강씨비



용호리 호자 임양문 정려 ●●●

용호리龍湖里 상룡마을 입구에 있는 마을회관 옆에 위치하고 있다. 임양문林養文은 1744년에



용호리 효자 입양문 정려

연기군 동면 용호리에서 임시무(林時茂)와 정세평(鄭世枰)의 딸인 진주정씨(1709~1782) 사이에서 태어났다. 형인 양조(養祚)와 함께 양친을 모시고 어렵게 살아가던 중 부친이 병으로 중태에 빠지자 엄동설한에 산약을 캐어 연명하게 하였으며, 부모가 돌아가시자 3년간 극진히 시묘살이를 했다. 1810년에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묘소는 동면 용호 3리 출동산 서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임양조는 동생인 양문과 함께 효로써 부모를 봉양함이 한 고을의 모범이 되므로 쌍효라고 일컬어졌다고 하는데, 『조선환여승람』과 『연기지』에 이와 같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임양조가 효자로 등재되어 있다.

이 정려는 효자 임양문(林養文)(1744~1810)의 효성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된 것이다. 1937년 유인철이 찬한 정령기에 효행사실이 자세히 보인다. 임양문은 타고난 성품이 온량하고 청명하여 6~7세에 이미 효경과 소학을 배워 아버지를 섬김에 효성이 지극하여 아침저녁으로 문안드리는 것이 성인과 다름이 없었으며, 장성해서는 밖에 나가고 집에 돌아와 아되는데 법도를 잃지 않고 때에 맞추어서 의복을 갖추어 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봉양하였다. 아버지가 병으로 중태에 빠지게 되자 의복과 허리띠를 벗지 않았고 잠시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대변을 맛보아 병세를 시험하였다고 한다. 하루는 의원을 맞이하고자 길을 떠나는데 용한 의원이 스스로 찾아와 산삼이 아버지의 병에 좋다고 하니 엄동설한임에도 불구하고 산삼을 구해 드려 목숨을 연장시켰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매우 애통해 하여 호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어머니마저 70이 넘는 연로한 나이로 자리에 눕게 되자 집안의 크고 작은 일과 마을에서 들은 바를 반드시 한글로 써서 보여드렸으며, 나이 오십에도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희롱하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다고 한다. 부친상과 모친상 모두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는데,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는 날에도 폐하지 않고 매일 밤낮으로 성묘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 상장(喪杖)을 끝

고 오르내린 자리가 길이 되고, 무릎을 꿇고 앉았던 자리가 구덩이를 이루었으며, 항상 묘소 곁의 송추松楸를 어루만지며 울부짖기를 초상初喪 때와 같이 하니 그 눈물에 나무가 모두 말라 죽었다고 한다.

1866년 송능수宋能洙 조상규趙尙奎 등이 연기현감 조병익趙秉益에게 글을 올려 명정을 청하였으나 명정받지 못하였고, 고을 선비들이 다시 여러 차례 현감과 관찰사에게 글을 올렸으나 역시 명정받지 못하다가, 1904년에 이르러 원근의 선비들이 다시 관찰사 이건하李乾夏에게 등장을 올렸고, 관찰사가 “3년 시묘도 어려운데 하물며 10년은 말해 무엇하겠는가”라고 치하하고는 군내 진사 장철상張喆相 등과 합쳐 장례원경掌禮院卿 조정희趙定熙에게 글을 올리니, 조정희가 왕에게 보고하여 특명받았다. 유인철이 찬한 정려기에 의하면 1937년에 정려를 중수하고, 정려 앞에 비석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연기군 향토유적 제5호로 지정되어 있다.

동면 응암리



조사대상 청주한씨 문정공파, 무안박씨 선일공파, 열녀 박기정처光山김씨 정려, 경주김씨 송애공파, 김경여 신도비, 담양전씨 아은파

응암리는 1914년에 연기군 동일면의 부동리釜洞里 성동리性洞里 응암리鷹岩里 고정리高亭里와 봉무동鳳舞洞 일부, 동이면의 노곡리老谷里가 합쳐져서 동면 응암리가 되었다. 『여지도서』와 『호구총수』에는 부동리가 수록되어 있는데, 『여지도서』에 의하면, 부동리는 관문으로부터의 거리가 16리, 1759년(己卯帳籍)의 편호가 107호, 인구는 남자 212명, 여자 197명이었다. 동이면의 노곡리는 『호구총수』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서는 동일면의 부동리 성동리 고정리 응암리 봉무동리와 동이면의 노곡리가 모두 확인된다.

자연촌락 응암리(매바위, 응암)는 매바위가 있으므로 매바위, 응암이라 하였고, 성동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인 노곡(노산소골)은

노씨 산소가 있어서 불리게 된 이름이라 한다. 또한 높은정이는 ‘고정高亭’이라 쓰는 한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응암의 북쪽 높은 지대에 있는 마을을 이르는 말이다. 예전에는 노목老木이 많아서 노수정老樹亭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는데 지금은 나무가 모두 사라져 고정(높은정)이라 부른다.



응암리 높은정이



응암리 청주한씨의 오래된 족보



응암리 청주한씨 유허비 전면



응암리 청주한씨 유허비 후면

응암리 청주한씨 문정공파 ●●

응암리 청주한씨 입향조는 한필적^{韓必迪}(1600년대)으로 호는 청절^{淸節}이다. 청주한씨의 시조는 고려개국공신으로 삼중대광 태위^{三重大匡 太尉}를 지낸 한란^{韓蘭}이며, 문정공파의 파조는 한계희이다.

청주한씨 시조로부터 19세손인 한효삼이 당파간의 갈등을 피해 홍성군 결성으로 낙향했다가 청원군 부용리(당시의 공주 명탄)로 왔고, 이후 아들 필적이 응암리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한필적은 정묘재란(1597년) 당시 강화도에 피신 중이던 임금을 모신 공으로 6품의 벼슬을 내렸으나 받지 않았다고 한다. 후손들은 명당을 찾아 응암리 높은정이에 은거하기 위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필적은 수직^{壽職}으로 절충장군을 지냈으며 청절한선생유허비^{淸節韓先生遺墟碑}가 응암리 마을 입구에 있다. 후손들은 이를 근거로 한필적을 입향조로 보고 있다. 묘는 금강너머 금남면 부동산 아래에 있다.

후손으로는 청주현감을 지낸 한여익^{韓汝益}과 서흥현감을 지낸 한성기^{韓聖箕} 등이 있다. 21세손 한여익은 응암리에서 태어나 성장한 것으로 보이며 청산현감을 지냈고, 22세손 한성기는 서흥현감을 지냈다. 23세손 대진과 원진은 사촌간으로 대진은 응암리를 원진은 흥성 결성을 터전으로 삼았다. 원진은 수암 권상하의 문하생이었다.

응암리 무안박씨 선일공파 ●●●

응암리 무안박씨^{務安朴氏} 선일공파는 족보의 표지에 ‘상서공파’로 쓰여 있고, 입향조로 알려진 선일 부친의 이름 휘길을 파조로 하여 휘길대부터는 ‘휘길공파’라 쓰여 있다. 하지만 후손들은 증조부때부터 ‘선일공파’라고 교육받았으니 선일공파로 알고 있다고 한다. 박휘길은 17세기 초 송시열의 사당인 송현서원장을 지냈다. 무안박씨인 박휘길이 송현서원장을 지낸 배경은 쌍천당 송유의 6세손 송구의 딸이 박휘길의 조모였기 때문임을 족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휘길의 아들 4형제(홍일, 함일, 선일, 행일)는 어릴 때 당진에서 나고 자라다가, 장성하여 이곳 응암리로 왔다고 한다.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다고 하는데, 무안박씨 이전에 응암리에 세거하고 있던 청주한씨와 혼인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처가를 따라 이거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응암리 입향조 박선일^{朴善一}(1628~1708)은 증추부사 절충장군^{中樞府使 折衝將軍}을 지냈고 자는 회원^{會元}, 호는 안팔제^{按八齊}이다. 어머니는 절도사^{節度使} 홍창세^{洪昌世}의 딸 남양홍씨^{南陽洪氏}이고, 부인은 한필무^{韓必茂}의 딸 청주한씨^{靑州韓氏}이다.

박선일은 원래 형제들과 당진군 고대면 진관리에 세거하다가, 만형 박홍일^{朴洪一}만이 당진에 남고 나머지 박함일^{朴咸一}, 박선일, 박행일^{朴行一} 3형제는 모두 연기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이들 형제가 연기지역으로 이주한 이

유는 전해지고 있지 않으나, 박함일의 처가 동면의 토성이자 대성인 경주 김씨(慶州金氏)이며, 박선일의 처가 동면 응암리에 세거하고 있던 청주한씨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처가와 의 인연으로 동면에 정착한 것으로 추측된다.

박선일은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浚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부모상을 당했을 때 흰 제비가 날아와 집을 지었는데, 새끼 또한 흰 색이었다고 한다. 이에 사람들이 박선일의 효성이 지극함을 칭송하고 여러 차례 나라에 알렸다고 한다.

입향조 박선일 이하 4세손이 효자로 『연기지』에 등재되었으며, 통덕랑(通德郎)을 지낸 박장(朴場), 1877년에 명정 받은 5세손 박기정(朴基鼎) 처 광산김씨(光山金氏), 박동환(朴東煥) 등이 있다.

응암리 열녀 박기정처 광산김씨 정려●●●

응암리(鷹岩里) 노곡마을 안쪽의 낮은 구릉 동쪽에 열녀 광산김씨 정려가 있다. 열녀 광산김씨는 광성군 김국광의 후손인 김귀택(金龜澤)의 딸로 무안 박씨 가문의 박기정(朴基鼎)(1792~1830)에게 출가하였다. 혼례를 치른 3일 후 처가에 갔을 때 뜻밖에도 남편이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김씨가 지성으로 간호하였으나 남편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에 김씨는 3년간 시묘에 정성을 다하고 수절하면서 시어머님을 정성껏 봉양하고 당진읍 사기소리에 사는 먼 친척 아이를 양자로 삼아 후사를 잇게 하였다.

열녀 광산김씨는 증조인 창(場)과 조부인 동환(東煥), 아버지인 병(炳) 역시 효성이 매우 지극하여 4대가 모두 읍지에 효자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대대로 효성이 지극한 집안에 출가하여 집안의 전통을 이었고, 양자인 응현 또한 그 전통을 물려받아 지극한 효성으로 세금을 면제 받았다. 열녀김씨의 묘소는 동면 응암 2리 산 42번지에 있다.

이 정려는 열녀 광산김씨(光山金氏)의 열행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그 지방



응암리 광산김씨 정려



음암리 노곡마을

에 행차했던 관찰사가 김씨의 열행을 듣고 나라에 보고하여 1877년(고종 14)에 명정을 받았다. 정려기는 1877년 명정 받을 당시 우의정 송근수가 글을 짓고, 민영태가 썼다. 그러나 당시는 현재와 같은 정려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가집의 대문에 명정현판을 걸어 놓은 형태였던 것 같고, 그 후에는 종가의 사랑채 들마루에 걸어 보존하였다고 한다. 항상 정려가 건립 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던 중 신기하게도 1944년 돌무더기가 한 달 가량이나 계속 떨어지는 이변이 나타나자 집안에서 돈을 내어 100일간 경을 읽었다고 하며, 이를 기화로 김씨의 현손 박용래 등이 1952년 4월에 정려를 건립하고 명정현판의 내용을 음각한 정려비의 3면에 성기운이 찬한 정려기를 음각하였다. 1955년(율미년) 상량한 대들보가 남아 있으며, 1965년에는 청기와로 지붕을 단장하였다. 그러나 2-3년 후 기와를 새로 올렸으며, 1980년대 말(7-8년 전)에 군의 보조를 받아 정려를 보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연기군 향토유적 제22호로 지정되었다.



응암리 경주김씨 송애공파 묘역

응암리 경주김씨 송애공파 ●●●

동면 응암리 경주김씨 慶州金氏는 송애공파 松崖公派로 김경여 金慶餘(1597~1653)를 파조로 하며, 입향조는 김경여의 증손인 김병운 金炳運(1696~?)이다.

김병운의 아버지는 현감을 지낸 김명양 金明錫, 어머니는 통덕랑 通德郎 박시위 朴時衛의 딸인 밀양박씨 密陽朴氏이다. 그의 부인은 부사 府使 박수의 朴守義의 딸인 밀양박씨로 3남을 두었다. 김병운은 원래 회덕에서 살았으나, 그가 병에 시달려 쇠약해지자 1730년경 증조부인 김경여의 산소가 있는 연기군 동면 가마골로 요양하기 위해 이주하였다고 한다.

동면 응암 1리에는 17세기 중엽에 임금에게 하사받은 선산이 있어 당시 공주에 모셨던 김경여의 산소를 이장해 오고 입향조 김병운은 이곳 선산에 잠들어 있다. 묘역 아래로 재실이 있는데 최초 건립시기는 1800년대로 추정되나 1994년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현재의 건물로 새로 지었다 하는데 규모가 큰 편이다. 재실 입구에는 김경여 선생의 예전 신도비와 새로



- | | |
|---|--------------------------------|
| 1 | 1 응암리 경주김씨 송애공파 재실 |
| 2 | 2 응암리 경주김씨 송애공파 재실 입구에 세워진 하마비 |

세운 신도비 및 하마비가 있다. 신도비 비문은 우암 송시열이 찬하였다.

응암리 김경여 신도비 ●●

김경여 신도비는 응암리 가마골 입구에서 500m 들어간 낮은 야산 하단부에 남향하여 위치하고 있다.

김경여(金慶餘, 1596~1653)의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는 유선(由善), 호는 송애(松崖)이다. 연평부원군 이귀의 사위이며, 사계 김장생의 문인이다. 이조정랑 겸 독전어사로 남한산성에서 40여일을 독전(獨戰)하였다. 1649년(효종 즉위년) 대사헌이 되었고 1650년 충청도 관찰사가 되어 특히 군사 배양에 힘썼다. 사후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고, 영조 때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응암리 송애 김경여 흙 신도비



응암리 송애 김경여 新 신도비

비석은 비신 크기 90cm×220cm×43cm, 옥개형 이수 150cm×35cm×103cm의 크기이다. 비문은 1676년(숙종 2) 송시열이 글을 짓고, 8세손 김직원(金稷源)이 글씨를 썼다. 비석은 1904년 건립되었다. 신도비의 왼쪽으로 1986년에 새로 세운 신도비가 서 있다. 신도비에서 서편으로 200m정도 떨어진 지점에 김경여의 묘소가 있다. 묘역은 넓고 1986년에 세운 상석과 묘비 문인석 망주석 동자석이 있다.

응암리 담양전씨 야은파 ●●●

응암리에 거주하는 담양전씨 야은파는 19세기 후반에 입향한 것으로 추측된다. 담양전씨의 시조는 전득시로 고려 의종 때(서기 1155년)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좌복야(左僕射)와 참지정사(參知政事)를 지내고, 시호는 충원공(忠元公)이며 담양군(潭陽君)에 봉군(封君)되었다. 전득시의 7세손 전녹생(田祿生)(1318~1375)의 호가 야은(野隱)이라, 그의 후손들을 야은파라 일컫는다.

후손들은 21세손 전춘발을 입향조라고 하지만, 춘발의 최초 묘소는 논산

두마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신빙성이 약하다. 23세손 전성하의 묘소가 연기군 동면 장대場^場로 확인되며, 제보자의 증조부인 전환구(24세손, 묘소도 음암리에 있음)가 할머니 등에 업혀서 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집안의 구전을 들었다고 하므로, 담양전씨 연기군 입향조는 23세손 전성하(?~1912년)일 가능성이 높다. 생몰년을 토대로 추측하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가 될 것이다.

현재 담양전씨는 마을전체 가구 20호 중 6가구에 불과하지만, 1950년경에는 마을 전체 가구 60호중 20호가 담양전씨 였다고 한다.

합강리는 1914년에 연기군 동일면의 소지리沼池里 생지리生芝里 용당리龍塘里와 합강리合江里 일부가 합쳐져 동면 합강리가 되었다. 합강은 금강과 미호천이 이 마을 앞에서 합하므로 합강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고 한다.

『여지도서』 동일면에는 합강리와 용당리가 수록되어 있다. 합강리는 관문으로부터의 거리가 15리이고, 1759년(己卯帳籍)의 편호가 55호, 인구는 남자 108명, 여자 87명이며, 용당리는 관문으로부터의 거리가 15리, 1759년의 편호 18호, 인구는 남자 35명, 여자 42명이었다. 『호구총수』 동일면에는 합강리 생지리 용당리 등이 수록되어 있다.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서는 합강리 소지리 생지리 용당리를 모두 찾아볼 수 있다.

합강의 원 마을을 거름뜰이라 하고 이곳에 안향선생을 모신 합호서원이 있다. 이 마을은 80호 정도가 살았던 작지 않은 마을이었으나, 세종시 건설로 하나 둘 이주하고 지금은 50호 정도가 남아있지만 이들도 머지않아 이주를 해야 한다. 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은 순흥안씨, 예안김씨 등이다. 그 중에도 대부분이 순흥안씨로 전체 마을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했었다고 한다.



조사대상 예안김씨, 순흥안씨 양공공파, 합호서원, 인천채씨 참의공파, 효자 채관형 행적비, 전주이씨 양녕대군 파, 임난수 묘소와 신도비



합강리 마을



멀리서 바라본 합강정



합강리 잿절입구

합강리 예안김씨 ●●●

동면 합강리 예안김씨 입향조는 좌부승지左副承旨를 지낸 김삼섭金三燮(1600년대 추정)으로 아버지는 김몽가金蒙歌이다. 김삼섭이 어떠한 이유로 합강리에 입향하게 되었는지는 전해지지 않으나 할아버지 김만인金萬引이 처음 충청도로 이거 했다고 하며, 이후 아버지 김몽가가 공주 장기면 오공동에 거주했다고 한다. 후손들이 합강 생지울에 거주했다.

합강리 순흥안씨 양공공파 ●●●

동면 합강리 순흥안씨順興安氏는 양공공파良恭公派이다. 양공공파는 양공공良恭公 안조동安祖同을 파조로 하며, 입향조는 안조동의 9세손으로 한성좌윤漢城左尹을 지낸 안윤희安允禧(생몰년 미상)다. 아버지는 통덕랑通德郎을 지낸 안린安麟이며, 어머니는 경주김씨慶州金氏이고, 부인은 예안김씨이다.

안윤희는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에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에서 살다가 합강으로 이거했다. 입향조로 알려져 있는 안윤희의 묘는 현재 부용면 달개에 위치하고 있다. 사후에 후손들이 고향 현도로 모시기 위해 가던 중 부용면 달개에서 상여 다리가 부러져 그곳이 명당인가 하는 생각으로 모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었다. 후손들은 입향 내력에 대해 이미 이곳에 살고 있던 예안김씨인 처가를 따라오지 않았을까 추측만 할 뿐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마을 입구에는 안씨들의 집성촌임을 표시하는 순흥안씨 세장비順興安氏世庄碑를 후손들이 세워 놓았으나, 지금은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합강리 105번지에 있는 합호서원合湖書院으로 옮겨졌다. 합호서원合湖書院은 주자학자인 순흥안씨 문성공文成公 안향安珦을 배향하고 있는데 세종시 건설 후에도 계속 보전하기로 약속되어 있다고 한다. 1716년(숙종 42)에 처음 건립하고 1984년에 문화재 자료 제41호로 지정되었다.

순흥안씨는 이곳에 입향한 후 크게 출세한 후손들은 없지만 문중 재산은 남부럽지 않을 만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훈은 공산이씨 청송심씨 부안임씨 등과 이루어 졌다.

합강리 합호서원 ●●●

합호서원(合湖書院)은 동면 소재지에서 북동쪽 합강마을의 골짜기 안쪽에 위치한다. 합호서원은 원래 이 마을의 순흥안씨들이 봉안했던 안향의 영정을 1716년(숙종 42)에 '합호사(合湖祠)'라는 영당에 모시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1843년(헌종 9)에 후손 안정량(安靖良), 안사랑(安師良)과 연기 유림들에 의하여 합호서원으로 발전하면서 안향 외에 금서재(琴書齋) 박광보(朴光輔)와 덕재(德齋) 신○辛○를 함께 배향하였다.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합호서원도 훼철되었다가 1939년 현 상태로 재건되고, 현재는 안향만을 독향하고

합호서원



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강당인 성의재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이며, 성의재 북편에는 전사청이 있다. 충청남도지정 문화재자료 제41호(1984. 5.17)로 지정되어 있다. 세종시 건설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지만, 다행히 이전하지 않고 현 상태를 보존하기로 결정되어 있다.

합강리 인천채씨 참의공파 ●●●

동면 합강리 인천채씨(仁川蔡氏) 참의공파(參議公派)는 채승(蔡昇)을 파조로 한다. 인천채씨는 고려초의 동지사 선무를 시조로 하며 예부상서 형부상서 등을 지낸 조상들과 고려말 두문동 72현에 속하는 10세손 채귀하(蔡貴河)가 있다. 연기군의 인천채씨는 호조참의를 지낸 12세손 채승(蔡昇)을 파조로 하며, 입향조는 파조로부터 5세손인 채윤희이다.

인천채씨 참의공파는 원래 황해도 평산에서 거주하였는데 10세손 채귀하가 세상의 어지러움을 염려하여 네 아들을 전국 곳곳에 하나씩 떨어져 살도록 했다는데 후손이 없던 채귀하의 아들 채동양은 양자로 들인 아들을 연기군 동면 문주리로 데리고 왔다가 아들 채승을 두고 채동양 홀로 평산으로 되돌아 갔다고 한다. 이유는 평산에 두고 온 부모님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12세손 채승의 문주리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후손들은 전한다. 이후 채승의 5세손 채윤희가 합강리로 오게 되면서 문주리의 인천채씨는 모두 합강리에 모여 살게 되었고, 현재 문주리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다. 합강리로 이주한 정확한 유래는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족보에 기록된 채윤희의 묘가 원봉에 있다고 되어 있어 합강리 이거는 확인할 수 있었다. 원봉은 합강리 1리와 2리를 경계 짓는 산의 봉우리를 일컫는다.

인물사전에 의하면, 채윤희(蔡允浩)의 본관은 인천, 자는 양오(養吾), 호는 반

구당(伴鷗堂)이며, 진사 채효범(蔡孝範)의 아들이다.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학행(學行)으로 안동교수(安東教授)를 제수 받았다.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1482~1519)와 친하여 벼슬하려는 뜻이 없어 그의 동생 채윤구(蔡允龜)와 모두 함께 연산군(燕山君) 때에 은거했다고 한다.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로 조광조가 죽자 합강정습(江亭) 위에서 통곡하고 시를 지었다고 한다.

그런데 사마방목을 살펴보니, 같은 시기인 1522년(중종 17)에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3등(三等) 제5위로 입격한 채윤호(蔡允浩)가 보인다. 거주지도 연기(燕岐)로 되어 있어서 반가웠는데, 지는 호연(浩然)이고, 본관은 함안(咸安)으로 기재되어 있다. 동일인 여부는 앞으로 좀 더 고증을 거쳐야 할 것 같다.

후손으로는 효행으로 포상 받은 채관형(蔡觀亨)(1751~1817)과 그의 처 경주 최씨(慶州崔氏)가 알려져 있으며, 1968년에 세워진 효자·효부비가 마을 입구에 있다. 또한 1993년에 건립된 재실 금연사(錦燕祠)가 있다.

합강리 효자 채관형 행적비 ●●●

채관형(蔡觀亨)(1751~1817) 효자비는 합강리 마을에서 10m 정도 떨어진 도로가에 금강을 마주보고 서 있다. 인천채씨는 동면에서 가장 오래된 성씨이다. 채관형 15대조이고 고려말 두문동 72현 가운데 한 사람인 채귀하의 손자인 채승광(蔡昇光)이 황해도 평산에서 동면 문주리로 낙향하면서 인천채씨가 동면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채관형의 아버지는 문백(文伯)이고 어머니는 안동 김만성(金萬成)의 딸이다. 다섯 살 때 부친을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살던 중 모친이 병으로 눕게 되자 지성으로 간호하여 눈 속에서 달팽이를 구해다 먹이고, 엄동설한에도 강에 나가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다 봉양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충청도읍지』 『호서읍지』 『조선환여승람』 『연기지』 등에 기록되어 있으며, 묘소는 동면 합강 2리 산 2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합강리 인천체세 채관형 행적비

한편, 그의 아내인 경주최씨는 최필범의 딸로 효성이 매우 지극하였다. 시어머니의 병환을 당하여 시어머니의 머리가 영키어 빗질을 못하게 되자 최씨는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자기 머리에 이를 옮기게 하여 잡았다고 한다. 병이 중해지자 7일 밤을 하늘에 빌고 연일 대변을 맛보아 네 번을 소생하게 하였다고 한다.

사람들이 채관형의 효행사례를 여러 차례 현감과 감사에게 천거하여 고종조에 명정을 받고 정려가 건립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 정려가 허물어지고 퇴락하여 복구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긴 후손 채진두蔡鎭斗 등이 중심이 되어 1968년에 이 효자비를 세웠다. 전면에 '효자인천채공관형 효부숙인경주최씨孝子仁川蔡公觀亨 孝婦淑人慶州崔氏'라고 새겨져 있고, 3면에는 채진두가 찬한 정려기가 새겨져 있다. 채관형의 묘소는 동면 합강 2리 산 2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합강리 전주이씨 양녕대군파 ●●●

동면 합강리 전주이씨全州李氏는 양녕대군파讓寧大君派로 입향조는 이만성李萬鼎(1600년대)이며, 그의 부인은 단양우씨丹陽禹氏와 청송심씨靑松沈氏이다. 이만성이 이 일대에 거주하게 된 것은 이괄의 난 때에 피난하였다고만 할 뿐,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는다. 이만성은 공조참판工曹參判을 증직 받았으며, 이만성의 묘소가 연기군 동면 합강리 황우산곡(삼합정)에 있다.

전주이씨 양녕대군파는 합강리 외에도 석교리 황용리 대박리 영대리 호탄리 용호리 등에 거주하고 있다.

합강리 임란수 묘소와 신도비 ●●●

합강리에서 용호리로 가는 길에 불과미 마을이 있는데, 이곳 덕고개에 임란수林蘭秀의 묘소가 있으며, 그 아래에 신도비가 위치하고 있다.

임란수의 묘소는 전체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인석 2기와 석양 2기, 호동 4기가 있고 최근에 세워진 문인석 2기도 있다. 주위는 돌담으로 둘러져 있다. 중앙에는 계단이 있다. 1693년(숙종 19)에 개립改立한 묘비가 있는데, 크기는 155×38×17cm이다.

1679년(숙종 5) 후손 찬현(贊賢)이 임란수의 묘소를 보수하던 중에 지석을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우암 송시열에게 신도비문을 받아 1682년(숙종 8) 신도비를 세웠다. 비문은 송시열宋時烈이 짓고, 박태유朴泰維가 글씨를 썼으며, 민유중閔維衆이 전하였다. 신도비가 오래되어 글씨가 일부 마모되자, 최근 후손들이 다시 세운 신도비가 연기군 남면 임씨가묘 내에 있다. 화강석재를 가공하여 제작한 신도비의 비신은 방형대좌 위에 너비 69cm, 높이 148cm, 두께 28cm의 크기이며, 옥개형의 이수(水頭)를 올렸다.



불파미 임난수 묘소



불파미 임난수 신도비

□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
『문과방목』
『사마방목』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호구총수』
『충청도읍지』
『조선환여승람』
『연기읍지』
『연기지』, 1934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조선총독부 편, 1912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1917
『한국지명총람』 4 충남편 하, 한글학회, 1974
문중소장 족보
- 『금남면향토지』, 금남면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1995
『남면향토지』, 남면향토지발간위원회, 2004
『동면지』, 조치원문화원, 1996
『연기군지』, 연기군지편찬위원회, 2008
『연기군 총·효·열 유적』, 공주대학교박물관·연기군, 1998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역사분야-』, 행복도시 역사분야
공동연구단, 한국토지공사, 2006

□ 도움을 주신 분

강태남 (71세. 금남면 발산리)	양헌길 (91세. 충북 청원군 저산리)
강정현 (77세. 금남면 발산리)	오근수 (80세. 금남면 영대리)
강희상 (77세. 동 면 옹호리)	윤강선 (75세. 동 면 예양리)
강삼례 (91세. 금남면 축산리)	이대연 (71세. 동 면 문주리)
경문호 (62세. 동 면 노송리)	임광수 (83세. 동 면 옹호리)
김기황 (79세. 금남면 대박리)	임창철 (64세. 남 면 연기리)
김원묵 (55세. 금남면 금천리)	임철수 (76세. 동 면 합강리)
김준제 (73세. 금남면 황룡리)	임태빈 (80세. 동 면 명학리)
김달수 (86세. 동 면 노송리)	이국한 (54세. 금남면 석교리)
김덕회 (78세. 동 면 내판리)	이창하 (75세. 금남면 축산리)
김종석 (78세. 동 면 응암리)	이창길 (70세. 금남면 감성리)
김창호 (82세. 동 면 노송리)	임남수 (82세. 금남면 남곡리)
김찬회 (62세. 동 면 내판리)	임득수 (74세. 금남면 남곡리)
곽영창 (96세. 금남면 축산리)	임헌진 (86세. 금남면 남곡리)
노동섭 (76세. 동 면 예양리)	장덕순 (76세. 동 면 예양리)
류재춘 (61세. 금남면 금천리)	장석기 (75세. 동 면 노송리)
박성규 (84세. 동 면 예양리)	전계동 (67세. 동 면 응암리)
박종관 (66세. 금남면 옹담리)	진병옥 (75세. 금남면 반곡리)
박태신 (87세. 동 면 응암리)	진영은 (62세. 금남면 반곡리)
박순환 (76세. 금남면 부용리)	진형식 (61세. 금남면 반곡리)
박철규 (80세. 금남면 황룡리)	천인기 (64세. 남 면 연기리)
변성규 (80세. 금남면 축산리)	천병문 (78세. 조치원읍 교리)
배기찬 (82세. 동 면 노송리)	채규식 (68세. 동 면 합강리)
배정수 (72세. 동 면 노송리)	최원민 (62세. 금남면 도암리)
성낙봉 (84세. 금남면 달전리)	최철환 (77세. 금남면 성덕리)
성낙천 (65세. 강내면 당곡리)	하태영 (72세. 남 면 연기리)
신희석 (79세. 동 면 송용리)	한창순 (69세. 동 면 응암리)
신지철 (75세. 금남면 감성리)	황병석 (77세. 동 면 명학리)
신상현 (65세. 금남면 감성리)	황의성 (56세. 동 면 명학리)
심규만 (75세. 금남면 석교리)	허경무 (75세. 금남면 봉기리)
안진철 (65세. 남 면 놀왕리)	허종행 (80세. 금남면 봉기리)
안재영 (62세. 동 면 합강리)	허동영 (73세. 금남면 봉기리)

□ 조사후기

재미있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성씨조사 작업은 한 분 한 분 만나 뵈는 때마다 부담감이 쌓여 갔다. 단순한 조사 작업이 아니라 한 문종의 뿌리를 찾는 작업이었기에 어느 한 부분 사소한 이야기라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작업이었다.

조사내용을 정리, 기록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용 할 수 있는 내용과 언어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으나 임선빈 교수님의 지도로 잘 해낼 수 있었다. 마을 조사를 했던 지난 6개월간 향토사를 대하는 객관적인 자세와 책임감, 애항심이 얼마나 중요 한지를 깊이 느끼며 향토사로서 한뼘 정도 성숙해진 느낌도 든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신 성씨조사팀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다.

—연기향토사 위원 강현숙

우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신 우리 성씨조사팀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임선빈 교수님의 성씨별 문종족보를 대하는 모습에서 교수님의 인간미를 느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막힘이 없는 대화와 그 실력은 우리 팀 모두에게 큰 배움의 기회를 주었다.

그 뿐이라 같이 동행한 강현숙 위원과 윤윤희 위원의 문종 어른들과 인터뷰 하는 모습은 상대적으로 하여금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 할 만큼 기분 좋은 모습이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큰 관심으로 협조해 주신 강정현 향토사소장님이 계셔서 금남면의 조사는 순조로웠다. 동면 조사당시에는 동면에 거주하시는 향토사 위원 배정수 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서로 배려하며 끝까지 성심을 다해 노력하였으니 좋은 책이 나올 것을 의심치 않는다 한 여름의 뜨거운 태양도, 늦가을의 쓸려한 바람도 잊고 지난 2011년의 후반기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연기향토사 위원 남정환

연말이 되면 언론사마다 '올해의 10대 사건'을 뽑는데, 내게 있어 2011년 그 1위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다. 당연히 문화원 '성씨조사팀'에 참여한 것이 아닐까.

언제부터인지 연기군 토박이로 사는 것이 행복해 지지 않았다. 내 터전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었다. 다행히도 그 때쯤 성씨조사가 시작되었다. 연기군의 큰 길만 다닌 나는, 작은 길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 동안 무심코 지나친 동네가 든든한 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우리 연기군을 다스나마 재해석, 재발견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젠 내가 있는 터전이 살아가는 힘이 되고 행복을 준다.

문화원의 6개월 간 조사 여정에 참여하고 지원해 주신 분들이 많다. 늦게나마 고마움을 전한다. 이 조사를 이끌어 주신 임선빈 교수님과 우리 팀! 함께 해서 즐거웠다.

—연기향토사 위원 윤윤희

연기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I)
- 금남면 · 남면 · 동면

2011년 12월 20일 인쇄

2011년 12월 30일 발행

지은이: 임선빈 · 강현숙 · 남정환 · 윤윤희

발 행 : 연기문화원

인 쇄 : 민속원

본 책은 충청남도 및 연기군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연기문화원에 있으므로 무단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